

# 아인 랜드

개론



# 아인 랜드

개론

에이먼 버틀러 지음 · 황수연 옮김

도서출판 리버티

# 아인 랜드 개론

지은이 에이먼 버틀러  
옮긴이 황수연  
펴낸이 구자춘

초판 1쇄 펴낸날 2019년 7월 13일

도서출판 리버티  
48075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182, 103-404  
전화 (051) 701-0122 / 팩스 (051) 918-0177  
출판등록 2013년 1월 10일 제333-2013-000001호  
전자우편 jachoon2@hanmail.net

Liberty Publishing House  
182 Yangwoon-ro, 103-404, Haeundae-gu, Busan 48075, Republic of Korea  
Phone 82 51 701 0122  
email jachoon2@hanmail.net

© 도서출판 리버티 2019

Ayn Rand: An introduction by Eamonn Butler  
First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in 2018  
Copyright ©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18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19 by Liberty Publishing House  
Translated by Sooyoun Hwang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Westminster,  
London, UK.  
Reprint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한국어 판권은 저작권자인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계약한  
도서출판 리버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98766-17-7 (03100)

이 책은 알기를 겁내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연령에서나  
정신에서—젊은 사람들에게 전한다.

아인 랜드, 《자본주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 차례

- *지은이에 대해* ..... 13
- *감사의 글* ..... 15

## 1 서론 ..... 17

- 이 책의 주제 ..... 17
-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 ..... 19
- 이 책의 대상 독자 ..... 19
- 랜드, 필자 그리고 이 책 ..... 20
-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 방식 ..... 21

## 2 아인 랜드가 중요한 이유 ..... 23

- 랜드의 소설의 중요성 ..... 23
- 랜드의 사고의 중요성 ..... 27
- 비판자들과 지지자들 ..... 30

**3 랜드의 생애와 작품들** ..... 32

러시아에서의 격동의 어린 시절 ..... 32

미국에서의 새로운 경력 ..... 33

획기적인 소설 ..... 35

객관주의 운동과 그것의 불만스러운 것들 ..... 38

말년들 ..... 40

계속되는 영향력 ..... 41

랜드의 생애와 저작의 연표 ..... 43

**4 랜드의 세계관의 개관** ..... 51

현실에 관한 랜드의 견해 ..... 52

인간 지식에 관한 랜드의 견해 ..... 53

도덕에 관한 랜드의 견해 ..... 54

정치학과 경제학에 관한 랜드의 견해 ..... 55

예술과 문학에 관한 랜드의 견해 ..... 56

영웅적 존재에 대한 랜드의 이미지 ..... 57

**5 현실의 본질에 관한 랜드의 견해** ..... 59

기본적인 공리들 ..... 60

정체성과 인과성 ..... 61

존재와 의식 ..... 62



필연성과 선택 .....	63
현실의 거부 .....	64
<b>6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b>	<b>66</b>
이해의 과정 .....	66
지식과 그것의 비판자들 .....	73
<b>7 도덕에 관한 란드의 견해 .....</b>	<b>78</b>
사실과 가치 .....	79
생명과 객관적 가치 .....	79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기 .....	84
원칙의 중요성 .....	88
객관주의 미덕들 .....	90
<b>8 정치학과 경제학 .....</b>	<b>95</b>
합리적인 정치 원칙들 .....	95
기타 정치 철학들 .....	99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경제 .....	102

**9 공공 문제에 관한 랜드의 견해** ..... 110

진보주의적 학교 교육의 빈약 ..... 110

대학과 학생 불만 ..... 111

구좌파와 신좌파 ..... 112

집합주의로서의 인종 차별주의 ..... 113

환경 보호주의 ..... 114

민권 ..... 115

범죄와 테러리즘 ..... 116

경제 정책 ..... 117

외교 정책 ..... 118

**10 예술의 본질과 중요성** ..... 120

예술 창작의 과정 ..... 120

예술의 결정적 역할 ..... 121

예술과 삶 ..... 122

예술의 구조 ..... 123

타당한 예술 형태들 ..... 124

타당하지 않은 예술 형태들 ..... 125

문학예술의 원칙들 ..... 125

예술과 문학에서의 낭만주의 ..... 127

현대 예술의 결함들 ..... 128

**11 랜드의 소설들** ..... 130

랜드의 소설의 목표 ..... 130

**12 랜드의 비판자들** ..... 145

랜드의 철학적 접근법 ..... 145

현실과 지식에 관한 랜드의 견해 ..... 146

도덕에 관한 랜드의 견해 ..... 149

정치학에 관한 랜드의 견해 ..... 151

자본주의에 관한 랜드의 견해 ..... 153

예술과 문학에 관한 랜드의 견해 ..... 154

랜드의 소설 ..... 155

아인 랜드의 유산 ..... 157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하고 있는가? ..... 160

**13 랜드에 의한 그리고 랜드에 관한 인용문들** ..... 163

자신에 관하여 ..... 163

현실과 지식에 관하여 ..... 163

윤리학에 관하여 ..... 165

이타주의에 관하여 ..... 166

정치학과 경제학에 관하여 ..... 170

영웅적 자질에 관하여 ..... 179

랜드에 관한 인용문들 .....	180
<b>14 추가적인 읽을거리 .....</b>	<b>181</b>
아인 랜드를 읽는 방법 .....	181
랜드에 대한 짧은 안내서들 .....	183
랜드의 주요 소설 .....	185
랜드의 주요 논픽션 .....	186
유고집 .....	188
그녀 자신의 말에서의 랜드 .....	189
랜드에 관한 책들 .....	191
<b>IEA에 대해 .....</b>	<b>195</b>
♦ <i>웁긴이 후기</i> .....	197
♦ <i>웁긴이에 대해</i> .....	201

## 지은이에 대해

에이먼 버틀리(Eamonn Butler)는 세계의 지도적인 정책 싱크탱크들 중 하나인 애덤 스미스 연구소(Adam Smith Institute)의 소장이다. 그는 경제학과 심리학 학위들, 철학 박사 학위, 그리고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에 그는 워싱턴에서 미 하원에 근무했고, 미시건 주 힐스테일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으며, 애덤 스미스 연구소를 창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왔다. 벨리 포지의 자유의 재단(Freedom's Foundation at Valley Forge)이 수여한 자유 메달(Freedom Medal)과 영국의 전국 자유 기업상(UK National Free Enterprise Award)의 과거 수상자인 버틀러는 현재(구—옴긴이 주)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의 간사이다.

에이먼은 선구적인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인 애덤 스미스, 밀턴 프리드먼, F. A. 하이에크 그리고 루트비히 폰 미제스에 대한 개론서들을 포함한 많은 책들의 저자이다. 그는 또한 고전적 자유주의, 공공선택론, 마그나 카르타,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그리고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관한 입문서들도 출판하였고, 게다가 《축약된 국부론(The Condensed Wealth of Nations)》과 《시중에서 최고의 책(The Best Book on the Market)》도 출판하였다. 그의 《자유 사회의 기초(Foundations of a Free Society)》는 2014년 피셔 상(Fisher Prize)을 받았다. 그는 《40세기의 임금 및 가격 통제들(Forty Centuries of

Wage and Price Controls)》과 IQ에 관한 시리즈 책들의 공저자이다.  
그는 인쇄, 방송 그리고 온라인 매체에 대한 빈번한 기고자이다.

## 감사의 글

이 프로젝트를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카를 바니(Carl Barney)와 야론 브룩(Yaron Brook)에게 그리고 원고에 대해 극히 유용한 비판을 해주신 데 대해 그레그 살미에리(Greg Salmieri)와 마이크 베를리너(Berliner)에게 감사한다.





# 1 서론

## 이 책의 주제

이 책은 러시아계 미국인 작가이자 사상가인 아인 랜드(Ayn Rand)(1905-82)—그녀의 ‘객관주의(Objectivist)’ 세계관과 그녀의 소설들 《원천(The Fountainhead)》(1943)과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Atlas Shrugged)》(1957)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의 고도로 독창적이지만 논쟁적인 사상에 대해 독자를 안내한다.

랜드의 사고는 아직도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그녀의 소설을 통해, 개인주의, 자기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당신이 강요당하지 않고 당신의 삶을 살 권리라는 그것들의 핵심 메시지들에 이끌려, 그것[랜드의 사고]에 도달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하다. 이러한 비전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는 해마다 거의 25만 권이 팔리고—50년 이상 전에 출판된 1,200 페이지의 책으로서는 아주 놀랄 만하다—《원천》의 매상고도 크게 뒤쳐지지 않는다. 그것들의 인기는 랜드를 개인주의 운동의 최고 모 집자로 만들었다. 한 리버테리언 활동가의 유명한 말로, ‘그것은 보통 아인 랜드로 시작한다(It usually begins with Ayn Rand).’

이것은 그녀를 세계의 지도적인 입법자들, 정책 자문가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다수에 대해 주요한 영향을 준 인물로 만들었다. 기업

가들과 투자가들도, 특히 (위키피디아 공동 창립자 지미 웨일스 (Jimmy Wales)와 페이지 팔 공동 창립자 피터 티(Peter Thiel)과 같이) 지식 산업들을 이끄는 사람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도덕성에 관한, 그리고 인간 진보를 추진하는 데서 창조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정적 역할에 관한, 그녀의 강건한 설명에 영감을 받았다.

그렇지만 더욱 널리 랜드의 사상들은 여전히 고도로 논쟁적이—거나 크게 인기가 없다. 대학 교수들은 예술, 문학, 그리고 철학에 관한 그녀의 생각들을 대개 무시한다. 전통주의자들은 이타주의와 종교에 대한 그녀의 공격들을 충격적으로 여긴다. 진보주의자들은 국가 개입에 대한 그녀의 견해를 가치, 정신 그리고 삶 그 자체의 파괴자로 조롱한다. 사회 참여 지식인들은 그녀를, 그 작품이 탐욕, 자기 탐닉, 무관심, 그리고 냉담의 가장 나쁜 악들에 연료를 공급하는, 미친 극단주의자로 목살한다.

그런 반응들은 예상 밖이 아닐 것이다. 랜드 자신은—인간 본성, 도덕, 정치학, 경제학, 예술, 문학, 교육, 그리고 심지어 현실 그 자체에 관해서도—거의 모든 가닥의 주류 사고에 급진적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반대했다. 그렇지만 그녀의 입장들은 모두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인생 및 우주관의 부분이었다. 그것이 아무리 비정통적이고 충격적인 것 같을지 몰라도, 그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견해이다.

설사 당신이 아인 랜드와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녀는 확실히 당신으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든다.

##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

이 책은 랜드의 세계관을 요약하고 있는,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에서 등장인물 존 골트(John Galt)가 한, 32,963단어 연설보다 더 짧다. 그래서 그것은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학술적 세목을 피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랜드의 주요 사상들과 그것들에 대해 이루어진 약간의 비판들을, 명백하게 그리고 전문 용어 없이,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책은 랜드의 중요성, 현실과 인간 본성에 관한 그녀의 이해, 그리고 지식, 도덕, 정치학, 경제학, 정부, 공공 문제, 미학, 그리고 문학에 관한 그녀의 결론들을 다룬다. 그것은 이것들을 그녀의 생애와 시대의 맥락에 두어, 그것들이 얼마나 혁명적이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공공 정책 논쟁에 영향을 끼쳤으며 집합주의, 중앙 집권주의 그리고 국가주의의 거부가 보급되도록 조장했는지 보여준다.

## 이 책의 대상 독자

랜드의 작품은 아주 많은 주제들을 아주 많은 상이한 형태들—소설, 논문, 연설, 인터뷰, 책, 연극, 영화 대본, 뉴스레터, 방송—로 다루고 있어서 어디서 시작할지 알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 책은 그녀의 사고를 짧은, 구조화된 안내서로 조직한다.

이 책은 정치, 정부, 사회 제도, 자본주의, 권리, 자유, 그리고 도덕에 관한 공개 토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적인 독자들을 위해 쓰였다. 그것은[그 책은] 논쟁의 친(親)자유 쪽을, 그리고 아인 랜드가 자

기의 비범한 개성과 자기를 중심으로 일어난 ‘급진적 개인주의 (radical individualist)’ 운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저작을 통해서도 그것[친자유 쪽]에 끼친 영향력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된다.

이 책은 랜드의 사상을 알기 쉬운 언어로, 왜곡 없이,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학문적인 양식의 각주나 참고 문헌이 없고 단지 그녀의 가장 중요한 책들과 논문들의 필수 독서 목록만이 있는데, 독자가 그것들을 더욱 쉽게 여기저기 찾을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고등학생들과 경제학, 정치학, 윤리학, 그리고 철학의 대학생들에게 주류 선생들에 의해 흔히 묵살되거나 무시되는 일단의 급진적인 사상과 견해에 대한 간결한 학습 안내서를 제공한다. 그런 선생들에 도전할 것이 이 안에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정치적 중요성도 있다. 랜드는 20세기 말에 개인주의, 친자유 정치의 부활의 배후에 있는 주요한 지적 영감을 주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녀의 사상은 전 세계에 걸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 랜드, 필자 그리고 이 책

나는 결코 아인 랜드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젊었을 때, 그녀의 소설을 통해서 그녀에 도달했다. 나는 《원천》을 신선하고, 정신을 고양시키며, 영감을 주는 것으로 여겼고, 인간 창의성, 성취, 그리고 성실에 관한 그것의 영웅적인 비전을 찬양했

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는 나를 덜 감동시켰다. 그것의 구성은 부자연한 것 같았고, 그것의 등장인물들은 비현실적인 것 같았으며, 그것의 어조는 설교를 늘어놓는 것 같았고, 그것의 길이는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았다.

더군다나, 나는 현실의 본질에 관한 랜드의 확실성과 개인들, 사회 및 도덕에 관한 진실을 드러내는 그것[확실성]의 능력이 결코 납득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의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그녀를 둘러싼 파벌주의와 그녀의 사망 후에 계속된 분열에 흥미를 잃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분쟁들은 랜드의 사상들에 대한 가속화하는 전 세계적 관심에 의해 무색하게 되었는데, 나는 열려 있지만 비판적인 마음으로 그런 사상들에 돌아왔다. 나는 여전히 회의론자이고, 그녀의 소설들에 대한 나의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나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뒤에 이어지는 것을 윤색하지 않기를, 그리고 랜드의 사상들(과 그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들의 약간)에 관한 나의 묘사가 공정하기를 그리고 (내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객관적(objective)이기를, 희망한다.

##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 방식

이 책은 연대기적 역사가 아니고 랜드의 주요 사상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랜드가 왜 중요하고 더 많이 읽을 가치가 있는지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자기의 소설들을 통한 그녀의 더 넓은 영향과 그녀가 주류 사고에 제기한 도전들을 고찰한다. 그 다음에는 그것은 그

녀의 생애에 관한 간단한 개요를 제공하고, 사건들이 어떻게 그녀의 사상들을 형성했고 그 다음에는 그런 사상들이 어떻게 그녀의 추종자들의 생활들과 그 너머 세계를 형성했는지에 관한 간단한 개요를 제공한다. 그것은 그녀의 생애의 주요 사건들과 출판물들의 연표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에는, 이 책은 랜드의 세계관의 주요 요소들을 개설한다. 그 다음 그것은 그런 요소들, 즉 현실, 지식, 도덕, 정치와 공공 문제, 경제, 예술 그리고 문학에 관한 그녀의 사상들을 더욱 면밀하게 고찰한다.

그것의 끝맺는 장들에서, 이 책은 랜드의 소설들을 비평하여, 독자를 위한 안내를 제공하고, 그것들의 주제, 구성, 성격 묘사, 그리고 양식이 어떻게 그녀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표현하는지 보여준다. 그것은 그녀의 작품에 대해 행해졌던 약간의 비판들을 고찰한다. 그것은 랜드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관한 짧은 평가, 추가적인 독서에 대한 안내, 그리고 현실과 인간 본성에 관한 그녀의 놀랄 만하게 급진적인 사상들을 요약하는 약간의 주요 인용문들로 끝맺는다.

## 2 아인 랜드가 중요한 이유

### 랜드의 소설의 중요성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가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라는 말은, 매일 나타나는 랜드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들과 많은 논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랜드의 출판사들이 받는 모든 편지들의 가장 흔한 서두임에 틀림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논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소설을 통해서 랜드를 발견한다. 그녀의 소설들은 삶, 정치, 그리고 도덕에 관한 그녀의 사상들을 대중문화가 되게 했고, 어떤 학술 논저를 읽느라 고투할지도 모르는 비전문가 공중에게 그것들을 접근 가능하게 했다.

특히 젊은이들은 《원천》과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에 쉽게 연결되는데, 이것들은 그들의 미래 생활과 야망에 관한 그들의 관심사를 언급한다. 그 책들은 또한 그들의 타고난 반항심을 만족시키고, 그들이 자기들의 선생들에 의해 전해지는 자기희생과 부드러운 사회주의(soft socialism)라는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는 데 필요로 하는 논거들을 그들에게 준다.

## 탁월하기를 열망하기

이 소설들은 젊은이들—과 참으로 그렇게 젊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만족시킨다. 그것들은 독자들에게, 사고와 행동을 통하여, 자기들의 노력이 경멸되거나 착취되지 않고 소중히 될 세계를 그들이 창조할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그것들은 당신의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하는 데 당신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의 고귀함을 단언한다. 그것들은 자신감을 멋있게 한다.

랜드의 영웅들은 자기들 자신의 창조적 능력에 따라 사는—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더러 자기들을 위해 존재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개인주의자들(individualists)이다. 그들은 기득권층과 그것의 방식들에 반대하는 반항아들이다. 그들은 사회 규범들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들 자신의 비전과 진실을 지키는데, 자기들 자신의 가치에 의거한 비전이고 사실과 이성에 의거한 진실이지, 다른 사람들의 거짓된 권위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혁신하고, 진보를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에 편익을 주는 창조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강제될 수 없다. 창조성과 그러므로 인간 진보는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여, 그리고 권위가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달려 있다—특히 랜드의 젊은 독자들에게, 이것은 매력 있는 생각이다.



## 포괄적인 견해

랜드를 그렇게 영향력 있게 하는 또 하나의 특질은 그녀가 체계(system)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녀는 단순한 정치나 경제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넓게 보고, 그것들의 근원을 문화, 사회, 그리고 철학에 이르기까지 추적한다.

그녀의 소설들은 자유, 가치, 마음, 이성, 창조성, 기업가 정신, 자본주의, 성취, 영웅적 자질, 행복, 자존심, 그리고 자부심의 관념들을 가르친다. 그것들은 강제, 강탈, 규제, 자기희생, 이타주의, 희망적 사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기의 생명 파괴 결과들을 설명한다.

이것은 바로 (특히)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 것, 즉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세계관과 그것의 많은 수수께끼들이 해결될지 모르는 일단의 원칙들이다.

물론, 머지않아, 그들은 다른 관점들을 만날지 모르고, 아니면 세계가 랜드가 암시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점을 받아들여지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체계가 전형적으로 아직도 자기의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녀의 체계의 능력의 표시이다. 그들의 생활은 영원히 바뀐 채로이다.

## 랜드의 사상의 전파

랜드의 사상은 그녀를 받아들인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삶들을 바꾸는데, 거기서 그녀의 소설들은 자립과 개인주의라는 미국의 이상에 다

가간다. 그녀가 사망한 지 10년 후인 1990년대 초기에, 국회 도서관과 이 달의 책 클럽(Book of the Month Club)에 의한 서베이는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를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평가했다. 오늘날, 랜드의 사상은 미국 전역의 대학들에서 가르치고 있고 학술 및 대중 잡지들에서 토론된다. 그녀의 사상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소들과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그녀의 사상은 또한, (매년 20,000권의 랜드 책들이 팔리고 있는)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인도와 같은, 영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 다른 영어권 나라들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다. 심지어 인도 축구 선수들과 발리우드(Bollywood · 인도 영화 산업을 일컫는 말로 봄베이(Bombay)와 할리우드(Hollywood)의 합성어) 스타들조차도 자기들의 삶에 대한 그녀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영어권 나라들 외에, 그저 950만 국민들만의 나라인 스웨덴은 ‘아인 랜드(Ayn Rand)’라는 구글 검색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스웨덴 사람들은 지난 10년간 그녀의 책들을 30,000권 이상 샀다. 약 25,000권 이상이 랜드의 출생지 러시아에서 구입되고, 매년 또 13,000권이 브라질에서, 6,000권이 스페인에서, 그리고 각각 1,000권이 일본과 불가리아에서 구입된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약 15,000권—그 나라의 경제적 및 지적 각성을 고려하면, 그저 증가하기만 할 수 있는 숫자—의 랜드 책들이 매년 구입된다.

## 정치에 대한 영향력

이 모든 것은 랜드에게 정치적 논쟁에 대한 현저한 영향력을 준다. 미국에서는, 그녀가 고무했던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 올랐다. 전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판(Alan Greenspan)은 랜드의 중추 세력의 초기 멤버였다. 대법원 판사 클레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는 자기의 신입 서기들에게 《원천》의 영화를 보여준다. 전 하원 의원 론 폴(Ron Paul), 그의 아들 상원 의원 랜드 폴(Rand Paul), 그리고 하원 의장 폴 라이언(Paul Ryan)은 랜드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용한다. 심지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자신을 ‘아인 랜드의 숭배자(an admirer of Ayn Rand)’로 서술했다.

이것은 또한 단지 미국 현상만이 아니다. 스웨덴의 중앙당(Center Party)의 지도자이자 전 기업부 장관이었던 아니 뢰프(Annie Lööf)는 《원천》의 스웨덴어 번역서를 발행하는 것을 도왔고, 랜드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 중 한 사람(one of the greatest thinkers of the 20th Century)’이라고 불렀다. 랜드의 사상은 에스토니아의 개혁주의 수상, 마르트 라르(Mart Laar)에 의해 찬양되었고, 많은 다른 전직 혹은 현직 지도자들과 더불어, 오스트레일리아 수상 맬컴 프레이저(Malcolm Fraser)에게 영향을 끼쳤다.

## 랜드의 사고의 중요성

그녀의 소설들과 연극들에 덧붙여서, 랜드는 철학(philosophy)—현실과 존재, 우리가 세계를 알고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도덕과

정치에 대해 함축하는 것에 관한 연구—에 관한 논픽션도 썼다.

### 현실과 그것의 함의들

그녀의 접근법은 많은 이유들로 흥미로운데, 그 중에서도 그녀가 현실, 지식, 인간 본성, 도덕, 정치, 경제, 그리고 심지어 예술도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단지 한 요소에만 집중하는 반면에, 랜드에게는 그것들은 전반적인 체계의 통합적인 부분들이다.

그녀는 이 체계를 *객관주의*(Objectivism)라고 불렀다. 그것은 심지어 우리 없이도 계속해서 존재할 현실 세계가 우리 바깥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다. 우리는 이 세계의 본질과 작동들을 알게 될 수 있지만, 오직 우리가 *객관적으로*(objectively) 생각하는 경우에만 그렇다. 그것은 우리의 지각(知覺) 작용들의 날것의 사실들(raw facts)을 가지고 시작하여,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에 일관성 있는 세계관의 기반을 두는 데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면, 우리가 그것 안에서 번창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최상인지 알아낼 수 있다고, 랜드는 생각했다. 그것은 우리에게—종교, 감정, 혹은 권위라는 전통적인 기초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이성*(reason)이라는 *객관적인*(objective) 기초에 의거해서—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른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작동 가능하거나 작동 불가능한지 결정할 새로운 방법을 준다.

## 현실과 도덕

이것은 놀랄 만한 주장인데, 랜드가 이 추론 과정에 의해 함축된다고 말하는 도덕 원칙들과 정치 제도들의 논쟁적인 본질을 고려하면, 그것이 비판을 끄는 이유를 누구든지 알 수 있다. 정치에서, 그녀는 이성이 자유와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반면에, 우리의 이성이 명령하는 도덕률은—그렇게 많은 도덕주의자들이 가르치듯이—이타주의와 자기희생이 아니라 *합리적인 자기 이익(rational self-interest)*이라고 믿는다.

이것들은 우리를 생명, 번영, 우리의 가치들의 달성, 그리고 행복으로 안내하는 것들이라고, 랜드는 말한다. 대조적으로, 이타주의와 자기희생이라는 전통적인 도덕은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성공은 매도되고 착취되는 반면에, 실패와 무능은 보상받는다—이것은 퇴보, 분쟁, 그리고 파괴로의 편도 승차권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소련에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아마도 그런 문제들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했을 것이다.

도덕이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당신이 받아들이건 않건, 랜드의 접근법은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같은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정치 및 도덕 사상들의 중요한 비판이다. 그녀에게는,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이성과 지식—마르크스가 육체노동이라고 주장하고 싶었겠지만—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은, 식량을 재배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고사하고, 산을 옮길 수 없다. 그것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후자는 그 다음에는 창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 새로운 자유 방어

그러나 작동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세상과 상호 작용하고, 추론하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가치를 식별하고 이바지하는 데—자유로워야 한다. 그 과정은 강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유는, 랜드에게는, 인간 생존과 진보에 필수적이다.

이것은 새롭고 강력한 자유 방어인데, 랜드가 우리의 종과 우리의 세계에 관한 객관적인 이해라고 보는 것에 근거한 것이지,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들과 관행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치 및 경제 장치들도 자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완전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체제는 자유방임 자본주의(*laissez-faire capitalism*)라고, 랜드는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강제되지 않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적 소유와 법의 지배의 존재에 달려 있다. 국가의 역할은 단지 모든 사람에게 이 규칙들을 지키게 하고 폭력을 억제하는 것뿐이다. 어떤 다른 국가 활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

## 비판자들과 지지자들

외부 세계를 알 우리의 능력에 대한 랜드의 확신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많은 회의론자들은 우리의 경험들이 그저 꿈이거나 환상일 뿐일지 모르거나, 기껏해야 현실의 왜곡일지 모른다고 암시한다. 다른 비판자들은 심지어 신뢰할 수 있는 현실 지식조차도 우리의 도덕 혹은 정치 행동들에 어떠한 안내자도 될 수 없다고 생각

한다.

우리가 이타주의를 거부하고 사물들을 우리 자신의 이익의 면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랜드의 도덕관념은 타락한 것이라고, 비판자들은 말한다. 그것은 자존심과 자만심, 자기 이익과 탐욕, 성실성과 허영 사이의 가늘지만 결정적인 경계선들을 무시한다. 그것은 본성과 불화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낯선 사람들조차도, 돌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세계의 종교들이 이타주의를 촉진하는 것이 틀릴 수 있는가? 그리고 물론 랜드의 정치적 결론들—자유, 사적 소유, 그리고 최소 국가—도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 마찬가지로 인기가 없다.

그러나 대학의 반대는 랜드의 사상들이 목살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들은—그것들이 모든 직업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이었다는 사실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진지하게 다루어질 가치가 있다.

### 3 랜드의 생애와 작품들

#### 러시아에서의 격동의 어린 시절

아인 랜드는 알리사 지노브예브나 로젠바움(Alisa Zinov'yevna Rosenbaum)으로 19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중산 계급 러시아계 유대인 가정의 세 딸 중 맏딸로 태어났다. 아홉 살까지는 그녀는—어린 시절이 잡지에서 영웅적인 영국 병사 사이러스 폴턴스(Cyrus Paltons)의 이야기에 고무되어—이미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었다. 후에, 자기의 어머니가 그녀를 영화관에 데리고 간 후에는, 그녀는 영화 시나리오를 쓸 열정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17년, 그녀가 12살에 불과했을 때, 페트로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가 그때 그렇게 불렸다)는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의 중심이 되었다. 볼셰비키들이 결국 통제를 획득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의 약국 사업과 가정집이 몰수되었다.

그 시에서의 분쟁과 혹독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랜드의 준(準)자전적 소설 《우리 살아 있는 자들(We the Living)》(1936)에 충격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가족은 크림(Crimea)으로 이사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새로운 약국 사업을 시작했지만, 적군(赤軍)이 도달했을 때 그것도 다시 국유화되었다. 그래서 알리사가 1921년 고등학교를 마쳤을 때, 그들은 페트로그라드로 돌아왔다.



그녀는 국립 대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여성들 중 한 명이었다. 미국 역사와 정치, 그리고 서양 연극, 음악, 및 영화가 특별히 그녀를 열광시켰다. 그녀가 크림에서 읽었던 소설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와 빅토르 위고 외에도, 그녀는 이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자기의 나중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 다른 사상가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다시 《우리 살아 있는 자들》에서 여자 주인공 키라(Kira)와 같이) 그녀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유 사상과 자유 언론을 억압하는 방식에 낙담했다. 다른 ‘부르주아(bourgeois)’ 학생들과 함께, 그녀는 대학교에서 추방당했지만, 외국인 교수들이 항의한 후, 그녀는 결국 1924년에 졸업했다.

이 암울한 시절에, 그녀는 더욱더 서양 연극, 희가극(operettas), 그리고 영화에 열중하게 되었다.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여, 그녀는 레닌그라드(소련은 그 도시를 개명했다)의 국립 영화 대학(Cinematic Institute)에 입학했는데, 거기서 그녀는 아인 랜드(Ayn Rand)라는 자기의 직업명(professional name)을 선택했다. 그녀는 질식할 것 같은 공산주의 러시아에서는 자기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미국 영화에서 묘사되는 할 수 있다는 문화(can-do culture)에 속하기를 갈망했다. 그녀는 시카고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할 비자를 얻었다. 그녀의 부모가 여행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올 의향이 없었다.

## 미국에서의 새로운 경력

1926년 뉴욕에 상륙했을 때, 랜드는 인상적인 (그리고 그녀에게는 영

웅적인) 겨울 스카이라인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시카고로 향했는데, 거기에는 자기의 친척들 중 한 사람이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녀가 영화에 대한 자기의 열정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녀는 자기의 비자를 연장했고, 빌린 100달러와 자기의 친척들의 영화 배급 업체 친구에게서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출발하였다.

할리우드에서의 그녀의 둘째 날, 지도적인 영화 제작자 세실 B. 데밀(Cecil B. DeMille)—그는 자기가 촬영소를 나갈 때 그녀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그는 그녀를 종교 영화 《왕중왕(King of Kings)》에서 엑스트라로 고용하게 되었다. 두 주 후 그녀는 젊은 배우 프랭크 오코너(Frank O'Connor)를 만났는데, 그녀는 1929년 자기의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 그와 결혼했다. 그녀는 1931년 미국 시민이 되었다.

랜드는 데밀을 위해 영화 대본들을 비평했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의 글 솜씨를 신장시키는 동안에 RKO 픽처스(RKO[Radio-Keith-Orpheum] Pictures)의 의상부에서 일했다. 1932년 그녀는 자기의 최초의 영화 대본이자 러시아의 감옥 섬을 배경으로 한 스파이 드라마인 《붉은 전당물(Red Pawn)》을 유니버설 스튜디오스(Universal Studios)에 팔았다. 자기의 법정 드라마 무대극 《1월 16일의 밤(Night of January 16th)》(관중의 구성원들이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은 1934년 할리우드에서 그리고 1935년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되었다. 그녀는 성공적인 작가가 되고 있었다. 자기의 경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브로드웨이 연속 흥행을 예상해서, 그녀와 프랭크는 1934년 늦게 뉴욕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자기의 소설 《우리 살아 있는 자들(We the Living)》을 1934년에 완성했지만, 소련에서의 모진 삶의 현실에 관한 그것의 묘사는 ‘붉은 10년(Red Decade)’의 분위기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때 서양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의 대담한 비전에 대해 능동적으로 공산주의를 찬양했다. 또한 ‘철학 소설(philosophical novel)’이라는 러시아 관념은 미국 문화와도 잘 들어맞지 않았다. 그 책은 결국 1936년 출판되어 실망스러운 서평들을 받게 되기까지 했는데, 하기야 그것은 미국 바깥에서는 더 순조롭게 되었(고, 랜드가 알지 못한 채, 이탈리아에서 두 개의 영화로 바뀌었다. 똑같은 이유들로, 1938년에 그녀의 다음 책, 《앤섬(Anthem)》을 처음 낸 것은 그녀의 영국 출판사였는데, 이 책은 개인성(individuality)이라는 개념이 소멸된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배경으로 한 중편 소설이었다.

## 획기적인 소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영향력 있는 《뉴욕 헤럴드 트리뷴(New York Herald Tribune)》 문학 칼럼니스트이자 저명한 리버테리언 사상가인 이사벨 패터슨(Isabel Patterson)으로부터 결정적인 격려를 받았는데, 패터슨은 그녀와 의견들을 교환했고 랜드에게 그녀의 독창성을 보증하였다.

그녀의 획기적인 소설, 《원천(The Fountainhead)》은 1943년에 세상에 나왔다. 반응들은 혼합적이었다. 비판자들은 그것의 700페이지 길이를 조롱하거나 그것의 등장인물들을 저자의 견해들을 대변하는 매정한 확정기로 보았다. 그러나 독자에서 독자로의 추천은 《원

천》을 주요 문학적 성공으로 만들었고, 1945년까지는 그것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6위로 올랐다.

《우리 살아 있는 자들》과 같이, 그것의 주제(theme)는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이번에는 정치보다는 창조성의 영역에서—이다. 철학적인 연애 소설로서, 그것의 구성(plot)은, 원칙에 입각하고, 타협하지 않고, 통찰력이 있는 현대 건축가 하워드 로어크(Howard Roark)—랜드가 자기의 이상적인 남자에 관해 최초로 의인화한 사람—와 그의 가치들을 공유하지만 자기가 경멸할 만하게 평범한 세계로 보는 것에서 탈퇴한 여주인공 도미니크 프랑콘(Dominique Francon)을 중심으로 한다.

《원천》은 랜드를 개인주의의 투사로서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읽고 찬양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은 지도적인 영화배우 게리 쿠퍼(Gary Cooper)였는데, 그는 워너 브러더스(Warner Bros.)에게 영화관에 대해 자기가 로어크로 연기할 봉사를 하겠다고 제의했다. 랜드는 그 대본을 쓰기 위해 뉴욕에서 할리우드로 돌아가겠다고 동의했지만, 촬영소가 그것[그 대본]에서 한 단어도 바꾸지 않는다는 조건—논쟁에도 불구하고 존중된 조건—에서였다.

1949년에 영화가 나왔을 때, 비관자들은 다시 등장인물들을 실제 인간으로보다는 철학적 대변자로 보았다. 영화는 상업적 성공작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추종자를 끌어들였는데, 이것은 그 책의 매상고를 증대시켰고, 랜드에게 상당한 부를 가져왔—으며, 그녀와 프랭크가 캘리포니아에 큰 (그리고, 적절하게, 현대주의적인) 랜치 하우스(ranch house · 지붕의 경사가 완만한 단층집)를 살 수 있게 하였다.

##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랜드는 할리우드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동조가 과급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녀의 《미국인들을 위한 영화 지침(Screen Guide for Americans)》은 영화 제작자들이 자기들의 대본들에서 공산주의 선전을 어떻게 탐지하고 저지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1947년 그녀는 하원 비미(非美) 활동 위원회(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에 우호적인 증인으로 출두하였다. 그것 모두는 영화, 문학, 그리고 비평을 지배하는 좌경 지식인들로부터 그녀에 대한 적개심을 깊게 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녀는 이미 새로운 소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그녀는 뉴욕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일단의 숭배자들—역설적(逆說的)으로, ‘집합체(The Collective)’라고 칭해졌다—이 그녀를 중심으로 모였다.

1,200페이지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Atlas Shrugged)》가 1957년에 출판되었다. 그것의 주제는 ‘인간의 존재에서 마음의 역할(the role of the mind in man’s existence)’과 합리적 자기 이익(rational self-interest)이라는 자기의 새로운 도덕이라고, 랜드는 말했다. 그것은 창조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한 자기들의 착취를 거부하고 이기주의(egoism)—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살 것을 기대하는 것의 거부—에 기초한 자기들 자신의 사회를 설립하기 위해 철수하는 무너지는 경제를 묘사한다. 《원천》과 같이, 구성은 유능한 철도 회사 사장 대그니 태거트

(Dagny Taggart)와 혁신적인 제강업자 헝크 리어든(Hank Rearden) 사이의—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업의 배후에 있는 주도자, 존 골트(John Galt)와의—연애 사건을 포함한다.

비판자들은 그 소설의 논쟁적인 어조, 그것의 정치학, 그리고 그것의 길이를 조롱했다. 그러나 수백만의 독자들은 그 책, 그것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의 등장인물들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여겼—고 아직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 그것은 이내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3위에 도달했고, 계속해서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책들 중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 그것은 계속해서 한 해에 수만 권이 팔린다.

## 객관주의 운동과 그것의 불만스러운 것들

랜드의 명성은 이제 그녀를 대학들과 기타 단체들에 강연하도록 그리고 TV 토크쇼들에 출연하도록—거기서 그녀의 단도직입적인 스타일과 자기의 비(非)인습적인 견해들에 대한 뚜렷한 열정이 청중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었다—초대하게 되었다.

1962년부터, 그녀는 한 정기 간행물, 《객관주의 소식지(The Objectivist Newsletter)》를 설립하여 글을 썼는데, 이것은 더 큰 잡지, 《객관주의자(The Objectivist)》로 바뀌었고, 1971년부터 《아인 랜드 편지(The Ayn Rand Letter)》가 되었다. 이 잡지들에 대한 그녀의 에세이들의 다수는 연속되는 논픽션 책들로 모아졌는데, 도덕에 관한 《이기심의 미덕(The Virtue of Selfishness)》(1964), 경제와 정치에 관한 《자본주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Capitalism: The Unknown Ideal)》(1966), 예술과 문학에 관한 《낭만주의 선언(The

Romantic Manifesto)》(1969), 그리고 우리가 개념들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관한 《객관주의 인식론 개론(Introduction to Objectivist Epistemology)》(1979)을 포함한다.

랜드의 초기 추종자들 중 한 사람은 네이션 블루멘탈(Nathan Blumenthal)이었는데, 그는 10대 때 그녀를 열심히 찾았다. 자기 이름을 너대니얼 브랜던(Nathaniel Branden)으로 바꾸고, 그는 철학과 심리학의 쟁점들에 관해 랜드와 함께 긴밀하게 연구했고, 그녀와 함께 소식지를 운영했으며, 추종자들의 망을 키웠다. 그녀의 승인으로 그는 너대니얼 브랜던 연구소(Nathaniel Branden Institute)를 창설해서, 그녀의 사상을 촉진하고 토의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랜드 자신은 그 연구소의 행사들에서 그리고 대학 교정들에서 인기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강연자가 되었다.

랜드는 브랜던의 지력과 추진력을 찬탄했다. 1954년 그들은 자기들이 서로에게 연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비록 그가 훨씬 더 어렸고 최근에 결혼했지만). 브랜던에게 놀랍게도, 그녀는 자기들의 해당 배우자들이 정사에 빠지도록 설득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랜드의 아파트에서 만났다.

1968년에, 비록 자기들의 연정이 가라앉았지만, 랜드는 브랜던이 또 하나의 정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갑작스럽게 그들의 개인적 및 전문 직업적 연결들을 끊는, 그들 사이의 깜짝 놀라게 하는 불화가 있었다. 《객관주의자》에서의 긴 논문에서, 랜드는 브랜던이 그녀의 신뢰를 남용했고, 그녀의 이름을 이용했으며, 그의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녀의 원칙들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했다. 응답으로, 그는 그녀의 추종자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랜드를 결코 잘못이 없

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녀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으로 평가한다고 비난했다.

랜드는 브랜던을 그녀의 삶과 저작에서 완전히 제거했다. 그가 그녀를 중심으로 형성하는 것을 도왔던 운동 단체는 그를 피했고 ‘랜드로이드(Randroid · Rand와 android의 합성어)’ 숭배자의 무리로서의 그것의 이미지가 보강되었다. 그런 적의들은 깊은 분열들로 자랐는데, 그것들의 흔적들은 객관주의 운동에서 아직도 남아 있다.

## 말년들

랜드는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강연하였고, 교육, 학생 시위, 나태, 베트남 전쟁, 징병, 아랍-이스라엘 전쟁, 반독점법, 그밖에 많은 것을 포함하여, 많은 쟁점들에 관해 논쟁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여러 개인적인 사건들 때문에 랜드가 자기의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비록 철의 장막이 오랫동안 자기의 러시아 가족과의 교신을 막았지만, 그녀는 마침내 자기의 여동생 노라(Nora)와 연락을 취했고, 노라는 뉴욕의 그녀를 방문했다. 슬프게도 그 방문은 그저 고통만 야기했다. 시간과 사건들은 그들 사이에 가교(架橋)할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 내었고, 잠시 머무른 후에 노라는 소련으로 돌아갔다.

이내, 랜드—평생 동안의 흡연자다—는 폐암 수술을 받았다. 그녀의 남편 프랭크도 역시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소식지 집필을 중단했고 공개 석상에 덜 나타났다.

1979년에 프랭크가 사망했을 때 그녀는 ‘나는 나의 가장 큰 가치를



있었다.’고 말했다. 비록 그녀가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에 기초한 TV 미니 시리즈의 대본을 공들이는 것에 힘을 주었지만, 그녀는 살아서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1982년, 뉴올리언스에서의 강연 행사에서 돌아왔을 때—그녀에게 기쁘게도, 그리고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를 생각나게 하면서, 주최자는 그녀에게 개인 전용 철도를 보내주었다—그녀는 병이 들었고, 이내 자기의 뉴욕 아파트에서 사망했다. 그녀의 관 위에는 거대한 달러 표시—‘자유 국가를 나타내는, 성취를, 성공을, 능력을, 인간의 창조력을 나타내는’ 그녀의 상징—가 놓였다.

## 계속되는 영향력

그녀의 사망 후, 랜드의 가까운 지적 동료(이고 법적인 지정 유언 집행자이자 상속인인) 레너드 페이코프(Leonard Peikoff)는 그녀의 사상을 촉진하기 위해 아인 랜드 연구소(Ayn Rand Institute)를 설립했다. 객관주의와 그것이 랜드의 견해들을 얼마나 가깝게 고수해야 하느냐에 관한 의견의 차이로 페이코프의 학생이자 동료인 데이비드 켈리(David Kelley)는 경쟁 단체, 객관주의 연구소(Institute for Objectivist Studies)(후에 객관주의 센터(Objectivist Center),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틀라스 협회(Atlas Society)로 불리게 되었다)를 창설하게 되었다.

오늘날, 객관주의 단체들이 네 개의 다른 대륙에서 설립된 반면, 2001년에 창설된 앤섬 객관주의 장학 재단(Anthem Foundation for Objectivist Scholarship)은 다양한 미국 대학들의 교수들을 후원한다.

이들 그리고 기타 원천들을 통해, 랜드의 철학은 지금 학술 잡지들과 서적들에서 진지한 비판적 평가를 얻고 있다.

한편, 그녀의 편지, 일지, 에세이, 인터뷰, 그리고 강연에 기초한 책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랜드의 작품이 출판되었다. 이탈리아 영화들은 《우리 살아 있는 자들(We the Living)》로 재개봉되었고, 연극 《이상(Ideal)》이 상연되었으며, 중편 소설 《앤섬》은 무대극으로 각색되었고, 다양한 대본들과 단편 소설들이 나타났다. 심지어 《1월 16일의 밤》의 발리우드 판도 있었다.

또한 전기들과 회상록들도 나타났다. 이것들은 너대니얼 브랜던이 쓴 책, 그의 아내 바버라가 썼고 TV 영화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책, 그리고 오스카 상 지명 영화 《아인 랜드: 삶의 감(Ayn Rand: A Sense of Life)》을 포함한다.

오늘날, 랜드는 대중문화의 중심적인 (설사 아직도 논쟁적이라 하더라도) 부분이다. 1999년에는, 그녀의 초상이 미국 우표에 나타났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는 2008년 금융 붕괴 후, 그 소설에서 묘사된 위기에 공명하는 경제적 파국의 공포 한가운데서, Amazon.com의 베스트셀러 소설 목록에서 1위 자리에 도달했다. 사람들은 분명히 여전히 랜드에게 해답들을, 그리고 힘을, 구한다.

## 랜드의 생애와 저작의 연표

- 1905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알리사 지노브예브나 로젠바움으로 태어나다
- 1914 작가가 되는 것을 자기의 야망으로 삼다
- 1917 페트로그라드(이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전(Winter Palace)의 습격으로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되다
- 1918 내란을 피해서 자기 가족과 함께 크림으로 이사하다
- 1921 자기 가족과 함께 페트로그라드로 돌아오다; 페트로그라드 국립 대학교(Petrograd State University)에 입학하다
- 1924 ‘부르주아(bourgeois)’ 학생들의 추방에 반대하는 외국 과학자들의 항의 후에 결국 졸업이 허가되다
- 1924 국립 영화 대학(Cinematic Institute)에 등록하다; 직업명 아인 랜드(Ayn Rand)를 선택하다
- 1925 팜 파탈(femme fatale · 요부) 여배우 폴라 네그리(Pola Negri)에 관한 짧은 모노그래프인, 그녀의 최초의 출판물이 나오다
- 1925 미국 친척들을 방문할 비자를 얻다
- 1926 뉴욕에 도착하여, 6개월을 미국 친척들 집에 묵고, 할리우드에 가서, 세실 B. 데밀(Cecil B. DeMille)에 의해 엑스트라로 고용되다
- 1927 데밀에 의해 하급 시나리오 작가로 고용되다
- 1929 영화배우 프랭크 오코너(Frank O'Connor)와 결혼하다; 미국 영주권자가 되다
- 1931 미국 시민이 되다

- 1932 그것이 결코 제작되지 않았지만, 자기의 첫 영화 대본, 스파이스틸러 《붉은 전당물(Red Pawn)》을 유니버설 스튜디오스(Universal Studios)에 1,500달러 받고 팔다
- 1934 단편 소설 《이상(Ideal)》을 쓰지만, 그것이 2015년까지 출판되지 않다
- 1934 그녀의 첫 연극, 법정 드라마 《재판을 받고 있는 여자(Woman on Trial)》가 할리우드에서 상연되다
- 1934 《재판을 받고 있는 여자》가 《1월 16일의 밤(Night of January 16th)》으로 브로드웨이로 이동하고, 일곱 달 동안 연속 공연되다
- 1935 새 소설 《원천(The Fountainhead)》에 관한 작업을 시작하다
- 1936 소비에트 러시아를 무대로 하는 준(準)자전적 소설 《우리 살아 있는 자들(We the Living)》을 출판하다
- 1936 비록 그것이 1989년까지 상연되지 않지만, 《이상》을 무대극으로 고치다
- 1938 호의적인 미국 출판사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편 소설 《앤섬(Anthem)》을 영국에서 출판하다
- 1939 비록 그것이 그녀의 생애 동안 결코 상연되지 않았지만, 철학적 살인 수수께끼 극 《다시 생각하기(Think Twice)》를 쓰다
- 1940 웬들 윌키(Wendell Wilkie)(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운동의 자원 봉사자가 되다
- 1940 《우리 살아 있는 자들》의 그녀의 무대 각색물, 《정복되지 않는 사람들(The Unconquered)》이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되지만 성공작이 되지 못하다

- 1941 파라마운트(Paramount)가 《1월 16일의 밤》에 기초한 영화를 제작하다
- 1942 《우리 살아 있는 자들》이 이탈리아 영화들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Noi Vivi)》과 《안녕, 키라(Addio, Kira)》로 만들어 지다
- 1943 《원천(The Fountainhead)》이 출판되다
- 1943 《원천》 영화 판권들을 워너 브러더스(Warner Bros.)에 팔다
- 1943 제작자 헬 윌리스(Hal Willis)에 의해 시나리오 작가와 대본 편집자로 고용되다
- 1944 결코 완성되지 않은 책, 《개인주의의 도덕적 기초(The Moral Basis of Individualism)》를 위한 시험적인 논문 ‘내일로의 유일한 길(The Only Path to Tomorrow)’를 출판하다
- 1945 출판 2년 후, 《원천》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6위에 도달하다
- 1945 랜드가 크리스토퍼 매시(Christopher Massie)의 소설에서 각색한, 《연애편지(Love Letters)》는 악평을 얻지만, 흥행에 크게 성공하다
- 1945 랜드가 대개 다시 쓴 영화 대본을 가지고 있는 코미디-연애 소설인 《당신이 왔군요(You Came Along)》가 발표되어 널리 호평을 받다
- 1946 《앤섬》의 개정판이 마침내 미국에서 출판되다
- 1947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Atlas Shrugged)》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다
- 1947 미국 하원 비미(非美) 활동 위원회(US House Un-American

- Activities Committee)에 ‘우호적인 증인(friendly witness)’으로서 증언하다
- 1949 게리 쿠퍼(Gary Cooper)가 주연하는 《원천》의 영화관이 여러 번의 지연 후에 발표되다
- 1950 그녀의 옹호자이자 동료가 될, 숭배자 네이션 블루멘탈(Nathan Blumenthal)(후에 너대니얼 브랜던(Nathaniel Branden))을 만나다
- 1951 농담으로 ‘집합체(The Collective)’라 불리는 숭배자들의 토론 집단이 그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뉴욕으로 돌아오다
- 1954 너대니얼 브랜던과 정사를 시작하다
- 1957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Atlas Shrugged)》가 출판되고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3위에 도달하다
- 1958 너대니얼이 너대니얼 브랜던 강연(Nathaniel Branden Lectures)을 창설하는데, 이것은 후에 너대니얼 브랜던 연구소(Nathaniel Branden Institute · NBI)로 바뀐다
- 1959 《우리 살아 있는 자들》의 개정판이 출판되다
- 1960년대-1970년대 객관주의에 대한 강연 여행들을 하다
- 1961 《신지식인을 위하여(For the New Intellectual)》가 출판되다
- 1962 《객관주의 소식지(The Objectivist Newsletter)》가 나타나다
- 1962 너대니얼 및 바버라 브랜던이 랜드의 삶, 윤리학, 심리학, 그리고 소설에 관해 쓴 《아인 랜드는 누구인가?(Who Is Ayn Rand?)》를 출판하다
- 1963 루이스 앤 클라크 대학(Lewis & Clark College)에서 명예 학위를 받다

- 1964 유망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를 지지하다
- 1964 《이기심의 미덕(The Virtue of Selfishness)》이 출판되다
- 1966 《자본주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Capitalism: The Unknown Ideal)》이 출판되다
- 1966 《객관주의 소식지》가 확대되고 그 이름이 《객관주의자(The Objectivist)》로 바뀌다
- 1966-67 《객관주의자》가 랜드의 주요 철학적 논저, 《객관주의 인식론 개론(Introduction to Objectivist Epistemology)》을 연속 물로서 연재하다
- 1967 미국 TV 쇼 《더 투나잇 쇼(The Tonight Show)》에 출연하다
- 1968 브랜던 및 NBI와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끝나다; 그녀가 그의 행동들을 《객관주의자》에서 길게 조롱하다
- 1969 예술과 문학에 관한 랜드의 견해들을 요약하는 《낭만주의 선언(The Romantic Manifesto)》이 출판되다
- 1971 《신좌파: 반(反)산업 혁명(The New Left: The Anti-Industrial Revolution)》이 출판되다
- 1974 수년간 담배를 많이 피운 후에 폐암 수술을 받다
- 1976 레너드 페이코프(Leonard Peikoff)의 객관주의 강연들을 자기의[그녀의] 철학의 최상의 해설로서 보증하다
- 1976 《객관주의자》에 쓰기를 중단하다
- 1979 남편 프랭크 오코너가 사망하다
- 1979 레너드 페이코프가 쓴 1967년 에세이를 추가하여, 《객관주의 인식론 개론》이 재출판되다

- 1982 《철학: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Philosophy: Who Needs It)》출판
- 1982 페이코프의 《불길한 평행선(The Ominous Parallels)》을 ‘나 자신 외에 객관주의 철학자가 쓴 최초의 책’이라고 부르다
- 1982 그녀의 뉴욕 아파트에서 심부전으로 사망하다; 그녀의 관 위에 꽃으로 장식된 큰 달러 표시가 놓이다
- 1984 더글러스 덴 윌(Douglas Den Uyl)과 더글러스 라스무센(Douglas Rasmussen)이 비판적인 학리적인 평가, 《아인 랜드의 철학사상(The Philosophic Thought of Ayn Rand)》을 출판하다
- 1985 레너드 페이코프와 에드 스나이더(Ed Snider)가 아인 랜드 연구소(Ayn Rand Institute)를 설립하다
- 1986 이탈리아 영화들의 개정판이 《우리 살아 있는 자들(We the Living)》로 개봉되다
- 1986 바버라 브랜던이 랜드의 사생활에 집중해서 쓴 《아인 랜드의 열정(The Passion of Ayn Rand)》출판
- 1987 이전 집합체(Collective) 회원 앨런 그린스핀(Alan Greenspan)이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이 되다
- 1987 미국 철학회(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안에 전문적인 학자 집단, 아인 랜드 학회(Ayn Rand Society) 설립
- 1989 랜드의 연극 《이상(Ideal)》이 최초로 상연되다
- 1989 《1월 16일의 밤》의 발리우드(Bollywood) 판, 가와히(Gawaahi · 증거)가 개봉되다
- 1989 너대니얼 브랜던이 《판결일: 아인 랜드와 가진 나의 몇 년(Judgment Day: My Years with Ayn Rand)》을 출판하다



- 1990 데이비드 켈리(David Kelley)가 객관주의 연구소(Institute for Objectivist Studies)를 설립하다 (이것은 후에 객관주의 센터(Objectivist Center)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아틀라스 협회(Atlas Society)로 바뀐다)
- 1991 국회 도서관 서베이가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를 미국에서 (성경 다음) 두 번째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보도하다
- 1991 레너드 페이코프가 랜드의 세계관에 관한 ‘포괄적인 진술(comprehensive statement),’ 《객관주의: 아인 랜드의 철학(Objectivism: The Philosophy of Ayn Rand)》을 출판하다
- 1995 랜드의 많은 편지가 《아인 랜드의 편지들(Letters of Ayn Rand)》로 출판되다
- 1996 랜드의 삶과 사상에 관해 마이클 팩스톤(Michael Paxton)이 제작한 기록 영화, 《아인 랜드: 삶의 감(Ayn Rand: A Sense of Life)》 개봉
- 1999 랜드와 너대니얼 브랜던의 정사에 관한 바버라 브랜던의 기술에 기초한 TV 영화 《아인 랜드의 정열(The Passion of Ayn Rand)》 개봉
- 1999 《아인 랜드 연구 저널(The Journal of Ayn Rand Studies)》의 첫 호가 나타나다
- 1999 랜드의 초상이 미국 우표에 나타나다
- 2000 소설 쓰기에 관한 랜드의 강연들의 편집된 필기록들이 《소설의 기술(The Art of Fiction)》로 출판되다
- 2001 논픽션에 관한 랜드의 1958년 강연들이 《논픽션의 기술(The Art of Nonfiction)》로 출판되다
- 2001 기업가(이자 후에 역사가)인 존 매캐스키(John McCaskey)가

- 앤섬 객관주의 장학 재단(Anthem Foundation for Objectivist Scholarship)을 창설하다
- 2009 금융 위기 후에,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가 Amazon.com의 베스트셀러 소설 목록에 1위로 평가되다
- 2009 저널리스트 앤 C. 헬러(Anne C. Heller)가 쓴 전기, 《아인 랜드와 그녀가 만든 세계(Ayn Rand and the World She Made)》출판
- 2009 역사가 제니퍼 번스(Jennifer Burns)가 쓴, 랜드가 정치 운동들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시장의 여신(Goddess of the Market)》출판
- 2011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의 3부작 영화 각색의 제I부가 제작되다(후속 부들은 2012년과 2014년에 나타난다)
- 2012 애덤 스미스 연구소(Adam Smith Institute) 싱크탱크가 런던에서 제1회 연례 《아인 랜드 강의(Ayn Rand Lecture)》를 주최하다
- 2013 랜드의 소설 《앤섬》이 무대극으로 각색되다
- 2014 《정복되지 않는 사람들》의 대본들이 출판되다
- 2014 유럽 아인 랜드 연구소(Ayn Rand Institute Europe) 설립
- 2015 랜드의 단편 소설 《이상(Ideal)》이 출판되다
- 2016 미국 학자들 앨런 고트헬프(Alan Gotthelf)와 그레고리 살미에리(Gregory Salmieri)가 엮은 《아인 랜드의 벗(A Companion to Ayn Rand)》출판

## 4 랜드의 세계관의 개관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의 판촉 대회에서 랜드는,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그녀가 자기의 철학을 설명할 수 있을지 여부—그녀가 세계와 인간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질문 받았다. 그녀는, 열 마디 단어로, 설명했다.

‘형이상학[즉 우주의 본질]—객관적인 현실;  
인식론[즉 우리가 우주에 관해 어떻게 알 수 있는지]—이성;  
윤리학[즉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하는 도덕 원칙들]—자기 이익;  
정치[즉 사회 조직의 원칙들]—자본주의.’

그녀는 아직 예술에 관해 깊이 있게 쓰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보탬 수 있었을 것이다.

‘미학[즉 예술의 원칙들]—낭만주의.’

그 열두 마디의 단어들은, 그녀가 *객관주의(Objektivism)*라고 불렀던, 랜드의 철학을 깔끔하게 요약한다. 그리고 철학은 인간사(人間事)의 모든 부분들에서 지극히 중요하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우리는 정치 원칙들을 개인들에게 옳은 도덕 원칙들에 뿌리박지 않고는 사회에 잘 봉사할 정치 원칙들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그

런 도덕 원칙들은 세계와 그것의 작동들에 관한 명백한 지식에 뿌리 박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타당한,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객관적으로(objectively) 처리—이성과 논리를 통해 적절하게 이해된 현실에 기초해 사는 것—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덕이나 편견이나 희망적 사고를 따름으로써 변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것과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것을 선택해야 한다.

## 현실에 관한 랜드의 견해

랜드가 이야기하는 형이상학은 현실의, 사물들의, 그리고 존재의 궁극적인 본질을 발견할 우리의 탐구이다.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세계에 살고 있는가? 그것은 현실적인가 아니면 그저 환상일 뿐인가? 그것은 자연적인가, 아니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 의해 통제되는가?

랜드는 세계가 현실적이고 자연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 주위에는 견고한 사물들이 존재하고, 그것을—아주 자동적으로—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가 주위에 있건 없건, 이 사물들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감을 때 그저 사라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존재(existence) 그 자체는 현실적인 어떤 것이다—혹은 랜드가 표현하듯이, ‘존재는 존재한다(existence exists).’

우리의 세계는 꿈도 아니고, 마법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비논리적 이지도 않고, 자의적이지도 않다. 사물들은 존재하고, 모순 없이, 서로 안정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녀는 결론짓는다. 우리는 견고한 사물들과 견고한 사실들 양쪽 다에 의해 둘러 싸여 있다.

## 인간 지식에 관한 랜드의 견해

인식론(epistemology), 지식의 이론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이 세계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what) 아느냐에 관한 것—그것은 과학이다—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how) 아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과 우리 자신 양쪽 다에 달려 있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우리의 두뇌는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것, 사물들이 있다(are)는 것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알게 한다. 그러나 생존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그런 사물들이 무엇인지(what)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동적이지 않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사고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 문제에 집중하기로 선택하고, 사물들이 무엇인지 알아내며, 우리의 방법과 결론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

지식을 우리의 인식의 기초에 의거하게 하는 것은 이성(reason)의 이러한 의도적인 사용이라고, 랜드는 말한다. 이성은 우리가 사물들을 그것들의 본질적인 현저한 특징들에 기초하여—그것들을 분리하고 ‘인간들(humans),’ ‘동물들(animals),’ 혹은 ‘나무들(trees)’ 같은

상이한 범주들로 철(綴)해서(filing)—식별하는 독특하게 인간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논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형성하는 철하기 범주들—혹은 개념들—이 일관성 있고 모순적이지 않도록 확실히 한다.

랜드는 이 독특한 능력이 인간의 성공을 설명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에 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철하고,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관찰들을 단일의 관념으로 증류하도록 허용한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freedom)’나 ‘기업(business)’이나 ‘번영(prosperity)’ 같은 고도로 추상적인 개념들에 관해—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들에 관해—생각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존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도덕에 관한 랜드의 견해

윤리학(ethics), 우리가 도덕적 판단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선(good)’이라는 추상적인 개념과 씨름한다.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고서 태어나지 않는다고, 랜드는 말한다. 우리는 그것을 체득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존재의 본질을 체득할 수 있는 것과 똑 같이,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도덕의 원칙들을 체득할 수 있다.

도덕적 가치들을 이해하는 열쇠는 생명(life · 삶)이라고, 그녀는 주장한다. 생물들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 무생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차이를 가져오는 선택들에 우리가 직면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안락, 안전, 건강—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가치들이 기여하는 우리 자신의 생존—은 우리가 하는 일에 달려 있다.

랜드는 가치의 측정치 혹은 기준(standard)이 생명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우리 각각에 대해, 우리의 도덕적 목적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다.

자기희생(self-sacrifice)—이타주의(altruism)—이라는 전통적인 도덕은 파괴적이라고, 그녀는 경고한다. 자기희생은 당신 자신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의 자기희생은 당신을 기생자로서 살도록 부추긴다. 어느 쪽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타주의는 덕이 될 수 없다. 대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소중히 하고, 당신 자신의 장기적인 합리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당신 자신의 가치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that) 도덕의 보상은 생명, 행복, 그리고 자존심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 정치학과 경제학에 관한 랜드의 견해

랜드는 사회 조직의 가치들과 원칙들—정치학(politics)—이 우리의 개인 행동을 안내하는 윤리학에서 논리적으로 뒤따른다고(이것은 그 다음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철학은 국가들의 진로를 안내하는데, 그것이 우리 각자를 안내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개인 행동과 사회 행동을 연결시키는 것은 권리들—개인들이 언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는지에 관한 도덕 원칙들—이라고, 랜드는 말한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 기준이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생명에 대한 우리의 권리라고, 그녀는 계속한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다른 권리들이 뒤따

른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생존하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권리는 생각하고, 생산적으로 일하며, 우리의 노력의 과실들—즉 우리가 창출하는 재산—을 간직할 권리를 함축한다. 그 모든 것을 보증하는 유일한 체제는 규제받지 않는 자유방임 자본주의(unregulated laissez-faire capitalism)라고, 랜드는 주장한다.

사람들이 강압(force)을 통해 우리의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이 확실히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악이라고, 랜드는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성, 지식, 그리고 가치들에 거슬러서 행동하게 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비례적으로 보복하는 데 개인들에 의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강압을 개시하는 사람들에 맞서 균형이 잡힌 행동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정부(government)—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작은 기능이 아닌데, 법률, 경찰, 법원, 그리고 처벌을 가진 사법 체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개인 권리들의 방어는 정부의 유일한 기능이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밖에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 예술과 문학에 관한 랜드의 견해

랜드는 미학(aesthetics)—예술의 원칙들—을 또 하나의 철학 분야로 본다. 윤리학은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반면, 미학은 예술이 어떻게 중요한 것을 의사 전달하는지를 검토한다. 다시 한 번, 그것은 변덕이나 신비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과정의



문제이다.

랜드는—화가, 조각가, 작가, 그리고 극작가를 포함하는—진정한 예술가들이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들을 선택하고 표현함으로써 그리고 자기들이 사소하거나 부차적이라고 보는 것을 생략함으로써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다고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현실을 재창조하고, 우리가 존재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예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높은 돋을새김 판(high-relief version)을 우리에게 준다.

예술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물리적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들을 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세계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술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술품을 이 미학적 원칙들에 입각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설사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 영웅적 존재에 대한 랜드의 이미지

랜드의 소설의 영웅들은 그녀 자신의 도덕적 이상을 반영한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가치, 판단, 그리고 노력에 의존하는 개인주의자들(individualists)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공짜로 기대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들에게서 빼앗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도덕적 가치(worth)와 진정으로 존경을 얻는 사람들의 가치(worth)에 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기생자들을 경멸한다. 그들은 총명하고, 합리적이고, 창조적이고,

예지력 있고, 단호하고, 자신이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업적과 성실성에 자부심을 느낀다.

랜드의 소설들에서 주인공과 대립되는 적대자 역들은 이성에 따라 살지 않는다. 그들은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강압이나 정부 권력을 사용하는 골목대장들, 성취하는 사람들을 먹고 사는 기생자들,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과 이랬건 저랬건 상관하지 않는 순응주의자들,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반듯이 드리눅게 하기를 원하는 조작자들, 그리고 그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성공 때문으로 미워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러한 것은 랜드가 우리의 문화의 가치들에 거스르는 예로 들고 있는 바로미터이다. 자기의 기타 저술에서와 같이, 자기의 소설에서, 그녀는 궁극적으로 오직 이성의 문화만이 지탱될 수 있다는 자기의 신념을 명백히 한다.

## 5 현실의 본질에 관한 란드의 견해

란드에게는, 우리의 세계관—우리의 철학(philosophy)—이 우리의 행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활동들에서 변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계관에 관한 그리고 인간 본성에 관한 명백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형이상학(metaphysics), 현실과 존재에 관한 근본적인 본질의 연구가 출발할 좋은 장소다. 비록 많은 철학자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꿈, 왜곡, 환상, 혹은 어떤 더 깊은 현실의 단순한 그림자일 수 있을지 아닐지 의문스러워 했지만, 란드는 상식의 견해를 취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현실 이라고(is), 그녀는 역설한다. 도전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만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감각들과 지각들은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감각들과 지각들은 사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이 문제에 적용할 때, 우리는 세계가 수수께끼도 환상도 아니고 견고한 사물들과 견고한 사실들의 현실이라는 점을 발견한다. 그것(that)은 우리의 삶과 활동이 의거해야 하는 현실이다.

## 기본적인 공리들

왜 그런지 보여주기 위하여, 란드는 세 가지 공리(axioms)—그녀가 자명하게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의 진술들—를 가지고 시작한다.

첫째, 우리는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한다. 우리가 그것들의 정확한 본질을—정확하게 그것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 그것들이 그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것들은 자기들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 혹은 란드가 표현하듯이, 또한 ‘존재가 존재한다(existence exists).’

둘째,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이 문단에서는 ‘우리’를 강조함—옮긴이 주)는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인식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의식한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한 사물들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없는 것을 의식할 수 없다. 우리는 무언가를 의식해야 한다.

셋째, 무언가 라는 것은 사물이 정체성(identity)—그것이 특정 사물이기 그밖에 어떤 것이 아닌 것으로 구별해 주는 속성들의 모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란드가 표현하듯이, ‘존재는 정체성이다(existence is identity),’ 혹은 ‘A는 A이다(A is A)’—누구든지 사물의 존재(그것이 있다는 것(that))를 그것의 본질(그것이 무엇인 것(what))과 분리할 수 없다. 사물은 무언가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동

시에 다른 무언가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이 정체성의 법칙(law of identity)이다.

그러므로 존재, 의식, 그리고 정체성은 모두 엮여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명하다. 즉, 그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넘어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으로, 그것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것들을 가정해야 할 것이다. 즉, 당신은 사물들과 그것들에 관한 당신의 인식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주장도 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공리들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추론의 기초들이다.

## 정체성과 인과성

사물들이 있다—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각(知覺 · perception)은 자동적이다. 그러나 사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방식은 이성을 통해서다. 그것은 자동적이지 않다. 그것은 선택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을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랜드는 유아가 어떻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지 상상한다. 처음에, 유아는 단지 별개의 색깔들, 소리들, 냄새들, 맛들, 그리고 기타 감각들의 혼란만 지각한다. 그러나 유아의 뇌는 이것들을, 그저 개별적이고 외관상 무작위적인 감각들만이 아니라, 사물들을 알 능력을 자기에게 주는 감각들의 집단들—지각(知覺)들—로 연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색깔과 형태의 그저 이질적인 파편들만 보는 대신에, 유아는 특정 테이블과 같이 온전한 사물, 온전한 실체를 본다.

이 과정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 유아는 이 실체들의 속성들, 규모, 행동들, 그리고 관계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상이하지만 일관성 있는 방식들로 행동하고 유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면, 테이블은 촉감이 단단하지만, 곰 인형(teddy bear)은 부드럽다. 개는 움직이고 짖지만, 테이블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테이블은 곰 인형을 으깬 수 있지만, 곰 인형은 테이블을 으깨지 못한다. 사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다른 사물들에 영향을 미치는지—인과성(causality)—도 역시 그것들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다. 인과성은, 랜드가 표현하듯이, 행동에 적용된 정체성의 법칙이다.

## 존재와 의식

유아는 또한 어떤 다른 것도 알아차린다. 눈을 감으면, 사물들이 사라지는 것 같다. 눈을 뜨면, 그것들이 변함없이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존재에 관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식에 관해 알게 된다. 우리는 사물들이, 우리와 독립적으로, 자기들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우리 눈을 감음으로써 혹은 사물이 없어지기를 바램으로써 존재를 바꿀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사물들이 다르기를 바라는 것이나 그것들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이나 만약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것들이 사라질 것을 희망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라고, 랜드는 선언한다. 사물들은, 불가피하게, 여전히 그대로이다. 우리의 특별한 욕망과 꿈이 무엇이건, 그것들은 그것들의 근본적인 본질에 따라 계속해서 존재하고 행동한다. 혹은 그녀가 표현하듯이, 존재는 의식

보다 수위(首位)를 가지고 있다.

바뀌 말하면, 우리는 안으로 우리의 감정을 검토함으로써 세계를 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바깥으로 현실의 냉엄한 사실들을 지켜보아야 한다. 세계는 우리의 상상의 산물도 아니고, 우리가 뜻대로 창조하고 바꿀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다. 그것은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 필연성과 선택

그녀가 부르듯이, 형이상학적으로 주어진 것(metaphysically given)을 받아들이는 것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사실들은 사실들이다. 즉 사물들은 그것들이 무엇인 것이고, 우리와 상관없이, 그것들의 본질에 따라 존재하고 행동한다. 그것들은 필연적—불가피한 현실의 부분들—이다.

우리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연적이지 않은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하기로 혹은 만들기로 선택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심지어 그때조차도, 우리의 선택들은 현실의 주어진 사실들에 의해 여전히 제한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물들을 그것들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로 선택할 수도 없고, 그저 그것을 원한다는 것만으로 사건들을 바꾸기로 선택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확실히 재배열할—말하자면, 점토와 짚으로 벽돌을 만드는 것—수 있지만, 우리는 무(無)에서 사물들을 창조할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건, 우리는 다만 자연의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할 뿐이다.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우리의 실패의 책임을 그

것들에 돌려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들은 그저 주어진 것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들에서 생기는 사실들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not). 그것들은 좋은 것으로나 나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만약 우리가 미래에 현명하게 선택하려면, 그것들은 판단되어야 한다.

## 현실의 거부

이런 차이를 간과하면 심한 실수들에 이르게 된다. 우선, 많은 사람들은 인간 선택의 산물들—예를 들면, 정치 문화—이 바꿀 수 없다고 가정한다고, 랜드는 한탄한다. 그래서 그들은 분별없는 영합에 말려들고, 규범, 폭도, 혹은 독재자를 따른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같이, *이상주의자(idealists)*라고 알려져 있는 다른 사람들은 세계가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 의해 통제된다고 (혹은 그저 그것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상상한다. 이것으로 약간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소망이나 기도를 통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라고, 랜드는 한탄한다. 그것은 의식(혹은 ‘정신(spirit)’)이 제1차적이라고 전제한다. 그것은 현실의 기본적인 공리들을 무시한다. 그것은 모순들에 이르게 된다.

동시에, 독일 정치 사상가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와 미국 ‘행태주의(behaviorist)’ 심리학자 B. F. 스킨너(B. F. Skinner) 같은 *물질주의자들(materialists)*이 있는데, 이들은 *사실들(facts)*을 받아들이지만, 의식의 역할을 부정하고, 그것을 신비한 허구로나 단지 물리적인 두



뇌 활동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식이 없이는, 의식이 없이는, 우리는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랜드는 주장한다.

현실을 타당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채택해야 하는 과정과 방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크게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랜드의 철학의 두 번째 가닥이다.

## 6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이 두 번째 가닥은 인식론(epistemology)—우리가 현실의 지식과 이해를 어떻게 얻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우리가 무엇을(what) 아는지에 관해서가 아니라(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과학이다), 우리가 사물들을 어떻게(how) 아는지에 관해서.

### 이해의 과정

세계에 관한 낱것의 자료는 우리의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한다고, 랜드는 설명한다. 우리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그 외관상 무작위적인 관련 없는 감각들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일관성 있는 지각(知覺)들로 통합한다. 이 지각들은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물들이 무엇인지(are) 이해하는 것은 자동적이지 않다. 그것은 사물들의(of) 원(原) 지각들을 사물들에 관한(about) 유용한 지식으로 전환할 의지의 행위—마음과 생각의 의도적인 적용—를 우리에게서 필요로 한다. 이 의도적인 과정은 랜드가 이성(reason)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성은 우리의 지각들을 우리가 개념(concepts)이라고 부르는 정신적 그룹으로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수반한다. 우리가 사물들의

진정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들을 개발하고, 다듬고, 검증하는 것에 의해서다. 그것에는 초점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현실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좋은 개념들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고안하려면 건전한 사고의 규칙들을 배우고 따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객관적이게 그리고 우리의 편견, 꿈, 혹은 번덕에 의해 왜곡되지 않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 *감각의 타당성*

약간의 의심하는 사람들은 랜드의 주장이 첫 번째 장애물에서 넘어진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세계에 관한 타당한 지식을 결코 가질 수 없는 데,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들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현실을 왜곡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랜드에게는, 우리의 지각들은 완전히 타당하다. 우리의 감각들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무엇이 존재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에 달려 있다.

현실과 인식은 긴밀하게 엮여 있다. 우리의 감각들은 부분적으로는 실제 대상들의 본질에서 생기고 부분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감각 기관들의 본질에서 생긴다. 우리는—정상적인 사람들과 색맹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현실을 다르게 경험할지 모르지만, 이성이 우리에게 증명할 수 있듯이, 그것은 똑같은 현실이라고, 랜드는 말한다.

색깔, 맛, 기타 등등은, 하여간 어떤 실제 대상들과도 독립적으로,

그저 ‘마음속에(in the mind)’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들이, 하  
여간 우리와 독립적으로, 대상들의 특질들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것들은 대상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지각하는 방식이다. 왜곡은 없다. 즉 대상과 우리의 감각들은  
둘 다 우리의 지각의 부분이다. 실수들과 왜곡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유  
일한 장소는 그런 지각들이 실제로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이다.

### *의식의 초기 단계들*

그 과정에는 여러 단계들이 있다. 이미 개설(概說)되었듯이, 매우 어  
린 유아들은 처음에는 단지 외관상 무작위적인, 고립된 감각들만 경  
험한다. 뒤에, 우리의 어린 두뇌는 자동적으로 이런 감각들을 지각들  
로 통합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록과 갈색 형태들의 거대한 옹성거  
림을 감지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제 감각들의 일관성 있는 집단(하나  
의 *지각 대상(percept)*)을 지각하는데, 이것을 성인은 ‘나무(tree)’라  
고 부를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한 사물, 한 실체, 우리의 다른 배경 감각들과 다르고  
참으로 다른 실체들과 다른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있다. 처음에는, 모  
든 지각 대상—우리가 지각하는 각각의 개별 ‘나무(tree)’—은 유일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어린 두뇌는 자동적으로 그것들  
사이의 차이점들, 유사점들, 그리고 관계들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우  
리는 실체들을 더 이상 유일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통일적인 특징들을  
가진 대상들의 집단(‘나무들(trees)’)의 구성원들로서 보게 된다.

## 개념 형성

지금까지는, 그 과정은—인간들과 동물들 양쪽 다에서—자동적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유일하게 인간적인 그리고 우리의 인간 이해와 생존에 결정적인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다고, 랜드는 말한다. 우리의 두뇌가 이런 지각 대상들을 자동적으로 분리하고 그것들을 비슷하게 혹은 다르게 하는 것을 구별한 후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성을 적용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새로운 집단들로—우리가 *개념*(concepts)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정신적 실체들로—통합한다.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즉 그것은 우리더러 상이한 사물들의 본질적인 성질에 관해 생각하기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개념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에 관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생존하고 번창할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각 나무를 그저 유일한 대상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개별 나무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나무(tree)’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every) 나무—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우연히 어디에 있건, 그리고 과거에 있었건, 현재에 있건, 미래에 있을 것이건 상관없이, 아무리 많은 나무들이라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나무(tree)’와 같은 견고한 대상들을 지칭하는 이러한 *존재론적*(existential) 개념들로부터 ‘나무들(trees)’ 같이 *오직*(only) 우리의 마음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abstract) 개념들로—혹은 ‘식물(vegetation)’이나 ‘생물(life)’이나 ‘자연(nature)’ 같은 더

욱더 높은 추상 개념들로—높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편익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즉각적인 감각들과 지각들보다 훨씬 더 정교한 무언가에 기초하여 행동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장소와 시간을 훨씬 넘어 분석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또한 ‘기업(business)’과 ‘부(wealth)’ 같은 추상적—이지만 필수적—인 개념들 사이의 인과 관계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바꿔 말하면, 개념들은 우리가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을 돕고 그러므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촉진하는 지식의 한 형태이다.

### 능동적인 과정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의 사물 파악을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방법들로 철(綴)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하는 능동적인 과정,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이다. 타당한 개념들을 찾아내는 것은 노력, 사고, 철학, 방법, 그리고 초점을 필요로 한다고 랜드는 역설한다. 그것은 우리가 종사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자발적인 과정이다.

그것은 또한 길고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긴 개념 연쇄를 형성하는 것—지각에 관한 존재 관련 개념(‘나무(tree)’), 그 다음 그런 개념에 대한 추상적 개념(‘나무들(trees)’), 그 다음 그런 것에 대한 더욱더 추상적인 개념(‘식물(vegetation)’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정의(justice)’나 ‘용감성(bravery)’이나 ‘우정(friendship)’ 같은) 최고도로 추상적인 개념들은 수천의 관찰들과 수

백의 다른 개념들로부터 추상하는 것을 수반한다. 그리고 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지각에서 더 멀어질수록, 그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어렵다. 하나의 나쁜 개념은 더욱 많은 개념들에 관한 우리의 사고를 오도하고 왜곡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념들이—사물들 사이의 본질적인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을 드러내는 것인—그것들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것을 잘하는 좋은 개념들을 개발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한 사물들의 본질적인 현저한 특징을 빠뜨리는 나쁜 개념들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것은 특히 우리의 가장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사실이다.

그렇다면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좋은 방법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개념들이 견고한 사실에 근거하고 항상 아무런 모순 없이 현실과 조화하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내리고 우리 자신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지식을 가질 것이다.

### *언어와 정체성*

랜드는 또 하나의 인간 능력—언어(language)—이 우리의 개념들을, 아무리 추상적이라도, 정신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데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각 개념에 이름을 주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다룰 수 있는 ‘구체적 개념(concrete)’으로 전환한다. 이런 이름은 우리의 개념을 식별한다. 즉 그것은 각 정신적 ‘파일(file)’에 있는 것을 요약하는 ‘라벨(label)’이다. 이것은 언어를 개념 형성의 필수적인 도

구가 되게 한다.

그러나 개념에 정체성을 주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인간(man)’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라고, 랜드는 묻는다. 당신의 정의는 인간을 그밖에 모든 것과 구별하는 모든 본질적인 특징들을 요약해야 한다. 그것은—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모든(all)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더욱 추상적인 개념들은 정확히 밝히기가 더욱더 어렵다.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 것을 식별하는 것은 랜드에게 특별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인간 이해와 행동들이 그녀의 전 초점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그녀는 우리가 이성적인(rational) 동물이라는 정의를 과감히 말한다. 다른 특징들—예를 들면, 우리의 다른 손가락들과 마주보게 할 수 있는 엄지손가락—도 역시 우리를 동물들과 구별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의는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녀는 역설한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우리를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이성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각 자료를 식별하고 지식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사고 현실 그리고 논리

다시, 그러한 정의는 인간들과 그들의 사고들과 행동들에 관한 엄청난 양의 과거와 현재의 관찰들을 요약한다. 단어 하나는 그림 천장의 가치가 있다고, 랜드는 농담한다. 그러나 (‘인간(man),’ ‘문화(culture),’ ‘성공(success),’ ‘인간성(humanity)’ 같은) 우리의 개념들



이 아무리 추상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든 단계에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의 정의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우리가 지어내는 자의적인 라벨이 될 수 없다. 그것들은 현실적이고 필연적인 사실들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것들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개념적 지식은 계층적이다—우리는 정신적인 파일 폴더를 다른 정신적인 파일 폴더 안에 넣어, 추상의 수준들이 증가하고(말하자면, ‘의자(chair)’에서부터 ‘가구(furniture),’ ‘가정용품(household goods)’을 거쳐 ‘재산(property)’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원(原) 지각들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추상적인 개념들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들을 수립할 때 우리가 이룬 각 단계의 타당성을 확실히 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들의 근원을 지각적 수준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개념들이 현실에 일치하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방법은 논리(logic)이다. 우리가 수립하는 정체성들과 그것들을 서술하는 데 우리가 사용하는 정의들은 모순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논리는 우리의 개념들과 정의들이 함축하는 것을 수립하고 그 다음 만약 모순들이 발생한다면 그것들을 수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모순 없는 논의 방법을 지각적 사실이나 자명한 공리들에 거슬러 올라가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나 혼란 오류는 우리의 개념들을 맹목적으로 과거의 실수들에 의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랜드는 한탄한다.

## 지식과 그것의 비판자들

랜드 이전의 많은 철학자들은 우리 및 우리 마음과는 독립적이지만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암시했다. 이들이 불리듯이, 이런 현실주의자들(realists)의 목록은 아리스토텔레스, 토머스 아퀴나스, 프랜시스 베이컨, 르네 데카르트, 존 로크,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다.

주요 차이점은 대부분의 현실주의자들이 현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연결이 우리 감각들의 의심스러운 증거라고 생각한 반면에, 랜드는 지각에 대해서도 현실주의자라는 점이다. 우리의 지각들은 우리의 (잠재적으로 믿을 수 없는) 감각 기관들을 통해 들어오는 감각 자료의 나열일 뿐만 아니라 사물들의 직접적인 인식이기도 하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토머스 리드(Thomas Reid) 같은 다른 사상가들도 대충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파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플라톤이나 아퀴나스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랜드가 추상적인 개념들에 관해서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녀에게는, 우리와 상관없이 특정 ‘나무(tree)’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무들(trees)’이나 ‘식물(vegetation)’은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실제(real)’ 사물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형성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관념들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지각들에 정신적 질서를 가져오는 데 사용하는 철(綴)하는 체계(filing system)이다.

그러나 랜드는 현실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에 관한 논쟁을 현실 세계의 존재를 전제하는 현실주의자들(realists)과,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흄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각들을 넘어 어떠한 현실도 결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회의론자들(skeptics) 사이의 논

생만을 넘는 것으로 본다. 그녀의 독특한 견해는, 실제 사물들이 정말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점을 오직 그것들이 우리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끼치는 영향들을 통해서만 안다는 것이다. 현실이 우리의 마음과 분리될 수도 없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관해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하고 사실에 근거한 세계의 명백한 모습을 작성하는 데 논리와 이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 *불가지론의 무효*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인 방법들을 거부하고, 신이나 윤회를 믿거나 운성(運星)이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고 믿는다고, 랜드는 관찰한다. 우리가 그들이 틀렸다고 증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들이 옳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여전히 불가지론인 채로여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아니라고, 랜드는 말한다. 우리는 그러한 주장들이 옳지 않다고 할 의무도 없고, 심지어 그것들을 고려와 논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진지하게 취급할 의무도 없다. 입증 책임은 항상 자기들의 믿음을 지지할 사실적 증거를 제시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들의 단언들을 그저 자의적인 것으로—아무리 기괴하건, 어떤 다른 무작위적인 견해보다 현실에서 더 중대한 기초가 없는 것으로—묵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증 책임을 비판자들에게 떠넘기거나 우리가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그녀는 결론짓는다. 만약 우리가 이용 가능한 사실들의 맥락 안에서 견고한 증거에 의존하는 논리적 과정에 종사했다면, 불확실성도 없고, 불가지론의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 이성과 감정

다른 비판자들은 우리의 욕망과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고 이성만은 단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최상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라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흄이 표현하듯이, ‘이성은 . . . 단지 열정의 노예일 뿐이다.’ 그러나 랜드는 이것을 완전히 퇴보적이라고 본다. 사고가 감정을 안내하지, 반대 방향이 아니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성은 사물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개념들로 철(綴)하는 능력이라고, 그녀는 우리에게 환기시킨다. 감정들은 이 이성적 과정의 산물이다. 감정은—좋거나 나쁘거나 유용하거나 위험한 것과 같이—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무언가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무언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means)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성을 적용했음에 틀림없다. 즉 이성은 우리의 감정들에 선행한다. 감정들은 다른 방식들로 유용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말해 줄 수 없다.

## 랜드의 철학적 자세

랜드는 지식이 현실과 마음 양쪽 다에 근거한다는 점을 전통적인 철학이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철학이 치명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녀에게는, 지식은 그 둘 사이의 친밀한 협력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녀는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얻는가 하는 과정을 *심리 인식론*(psycho-epistemology)으로서 서술한다.

그렇다면 올바른 철학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 안에서 움직이는지에 결정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도 진실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의 도덕 행동들에 대해서도 진실이다.

## 7 도덕에 관한 랜드의 견해

도덕적 가치들과 행동들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지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생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우리는 우리가 행동하는 방법,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우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열망하는 미덕들과 이상들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랜드는 말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좋은(good) 도덕적 선택들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또 하나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를—즉, 시류에 맡기거나 회피하는 일 없이,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그것을 사물들의 진정한 본질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기를—선택해야 한다. 랜드는 그 과정이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곳을 그녀가 일반적인 자기 철학을 요약했던 것만큼이나 함축성 있게 서술하였다.

‘인간은 무슨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해답: **생명(Life)**.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무슨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해답: **이성(Reason)**.

그의 행동들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어야 하는가?—해답: **자기 자신(Oneself)**.’

## 사실과 가치

수세기 동안, 도덕 철학자들은 자기들의 도덕적 판단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지의 문제와 씨름했다. 우리가 사실들—무엇인가(is)—을 증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치들—무엇이어야 하는가(ought to be)—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보통 그들은 두 가지 가능한 대답들 중 하나를 채택한다. 종교, 전통, 혹은 어떤 다른 권위가 무슨 가치들과 행동들이 좋거나 나쁜지 우리에게 말해 주거나,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은 그저 개인적인 의견의 문제들일 뿐이라는 것이다.

어느 쪽 대답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랜드는 한탄한다. 각각은 사실들과 논리를 무관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도덕적 가치들은 객관적이라고(are), 그녀는 역설한다. 그것들은 사실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can). 이성이 우리에게 현실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에게 좋고 나쁜 것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연구—윤리학(ethics)—은 합리적인 연구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적용하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도덕적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도덕적 가치들이 의거하는 주요 사실은 생명(life · 삶)이라고, 그녀는 암시한다.

## 생명과 객관적 가치

가치(value)란 생물들이 얻으려고 (혹은 간직하려고) 분투하는 어떤 것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안락과 안전을 소중히 여길지 모르고, 그

들은 (식품, 물, 그리고 집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들을 추구함으로써 이런 가치들을 얻으려고 행동한다. 그러나 이 모든 목표들과 가치들은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 즉 자기 보존(self-preservation)—자기의 생명—에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랜드에게는 가치의 바로 그 개념은 목적이 있는 행위자(purposive actor)—자기에게 차이를 가져오는 (배고픔이나 만족,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 같은) 대안에 직면하는 자—의 존재에 의거한다.

대조적으로, 무생물들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돌은 목적도 목표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다. 그러나 행동할 수 있지만 피해를 당할(harmed) 수 없는 어떤 것—그녀가 암시하듯이, 파괴할 수 없는 로봇 같은 것—도 역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이 하는 (혹은 하지 않는) 어떤 것도 자기에게 아무런 차이도 가져오지 않는다. 즉 행동은 그것에게 아무런 가치도 낳지 않는다.

## 도덕 기준

동물들은, 자기들에 관한 한, 일반적으로 자기들에게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데 본능에 지배된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다르다.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신축성을 준다—비록 그것이 우리가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괴하는 나쁜 선택들을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의미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윤리학을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랜드는 말한다. 우리의 바로 그 존재가 달려 있으므로, 우리를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우리 자신(own)



의 생명—쪽으로 이끌고 파괴적인 실수들에서 멀리 이끌 어떤 것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어느 행동들이 궁극적으로 파괴적인 것으로 증명될지를 식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녀는 계속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본질을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존—말하자면, 온전한, 사고하는, 목적이 있는, 생산적인, 유덕한 존재로서의 생존—을 촉진할지를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우리는 인간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종류의 삶과 가치들—이 목적을 촉진할 구체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도울 *도덕률(moral code)*—을 식별하고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랜드에게는 생명은 궁극적인 가치 기준—우리의 개인 선택들이 대비되어 측정되고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원칙—이다. 생명을 촉진하는 것은 선이고, 그것을 위협하는 것은 악이다. 도덕적 가치들이 단지 개인적 선택의 문제만이거나 신이나 어떤 다른 권위에 의해 규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윤리학을 아주 오해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도덕적 가치들이 기능—생명을 보존하는 객관적인 기능(function)—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이다.

### *객관적 가치의 개념*

도덕의 이러한 객관적인 본질을 고려하면, 우리는 우리의 다른 종류들의 지식과 정확하게 꼭 같이 도덕적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즉 우리가 이해하고 건전한 선택들을 하고 생존하는 것을 도우며, 사실에

의거하고 우리의 이성에 의해 개발되는, 정신적 철(綴)하는 체계를 가질 수 있다고, 랜드는 말한다. 어떤 다른 개념들과 같이, 좋은, 나쁜, 옳은, 그른, 정당한, 혹은 부당한 같은 도덕 개념들도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도록 허용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가치들, 목표들, 그리고 행동들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정신적 추상 개념들이다. 그러므로 윤리학은 신비하거나 자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윤리학은 자기 보존의 과학이다.

그리고 다시, 무엇인가(what is)에 대해 우리가 타고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꼭 마찬가지로 무엇이어야 하는가(what ought to be)에 대해서도 우리는 타고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발견하여야 한다. 사실들을 가지고 시작하여 건전한 방법들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것이 옳은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좋은지, 혹은 무기를 드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성은 모든 인간 가치를 달성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랜드는 결론짓는다. 그리고 가장 큰 미덕(virtue)—우리가 가치를 얻는 수단인 자발적인 행동—은 우리의 이성 사용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큰 악은 이성을 버리는 것, 즉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초점을 잃고, 모순을 회피하고, (중독자처럼)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무시하고, 일이 ‘하여간’ 잘 해결될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려면,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 자기 보존의 과학

그렇지만 개인들은 현실을 자기들 자신의 삶 혹은 죽음이라는 면에서 대면한다. 모든 개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self) 보존이다. 우리 각각은 우리 자신의 삶의 도덕 기준에 대비해 우리의 가치들과 행동들을 선택해야 한다고, 랜드는 말한다.

그러므로 그녀의 논쟁적인 결론은 우리의 주요 도덕적 의무가 자기이익(self-interest)이라는 것—우리 자신의 생존과 복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녀는 이기주의(egoism)라 부른다.

랜드의 이기주의는 사람들이 흔히 이기심(selfishness)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하기야 독자들을 자기들의 이타주의에서 깨우기 위하여 그녀가 자기의 책 제목 《이기심의 미덕(The Virtue of Selfishness)》에서 짓궂게 그 둘을 동일시켰지만). 이기주의는 이기적으로 강도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피해를 끼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장기적, 합리적 자기 이익과 양립하지 않는다. 즉 온전한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협조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고, 그러한 것들[흠치는 것 등]은 그러한 것을 얻는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기주의는 쾌락주의—결과에 대한 생각 없이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와도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기주의는 인간 삶의 장기적 요건들에 집중한다.

##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기

이기주의자들(egoists)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갈등이 파괴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기 위해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에게서 빼앗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들과 *거래할(trade)*—우리가 더 크게 평가하는 그들의 어떤 것과 교환으로 우리의 어떤 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상호적으로 포기할—수 있다. 그것은 우리 각각을 상태가 더 좋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타주의의 도덕이 요구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거래할 때 그렇게 하듯이,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 더 작은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다. 우리는, 자기희생의 도덕이 함축하듯이, 도덕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상태가 더 나쁘게 할 필요가 없다. 도덕적으로 유덕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들의 장기적 결과를 마음에 두는 이기주의자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지도 어떤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 *자기 부정의 죄악*

전통적인 도덕률은 우리 자신을, 신이나 ‘사회(society)’나 ‘다른 사람들(others)’과 같은, 어떤 ‘더 높은(higher)’ 권위에 봉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녀는 계속한다. 그러나 당신이 생명 그 자체보다

‘더 높은(higher)’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궁극적 가치이고, 어떤 다른 것을 위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희생일 뿐만 아니라, 자기 부정이고, 궁극적으로 자기 파괴이다.

더군다나, 가치는 우리의 이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이성을 포기하는 것—즉, 우리 자신의 지식, 판단, 그리고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도덕적 의무(moral duty)’가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고 우리가 이야기 듣는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성은 우리의 필수적인 생존 도구이고 우리는 그것 없이는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랜드는 경고한다.

### *이타주의의 해악*

그렇지만 이것은 지배적인 *이타주의(altruism)* 도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 살도록 촉구하고, 자기희생을 칭찬하며, 자신에게 봉사하는 행동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거부한다. 이것은 많은 세계의 종교들의 일부이고 ‘올바른(right)’ 생활방식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진다.

이타주의에서는, 도덕의 기준은 행동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수혜자의 정체성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바지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당신 자신에게 이바지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나 그 기준에서는, 폭력배들과 사업가들을 구별할 것이 없다고, 랜드는 한탄한다. 양쪽 다 악으로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양쪽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폭력배들은 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반면에, 사업가들은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도덕적 등가(等價)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타주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친절, 호의, 혹은 존경과 혼동하지 말라고, 그녀는 계속한다. 자기희생이라는 그것의 핵심 요구는 자기 부정을 의미한다. 그것은 ‘도덕(morality)’을 모든 사람의 적으로 만든다. 당신은 ‘도덕적(moral)’임으로써 그저 손해를 볼 수 있을 뿐인데, 왜냐하면 이 ‘도덕(morality)’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의 이익들에 거슬러서 행동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호의로써가 아니라 원한으로써 바라보게 한다.

참으로, 우리 문화의 상태는 지배적인 이타주의 도덕이 동정심과 존경을 촉진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랜드는 관찰한다. 이타주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먹이로 삼고, 다른 사람들에 의존해서 살며, 자기들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자기들 자신의 필요를 과장하도록 부추긴다. 활동적인 사람들에 의해—그밖에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비용도 부과하지 않고—창출된 부는 그들의 사악한 이기심의 표시로서 경멸된다. 이타주의의 논리는 부가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가 악이고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타주의는 사실상 비도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들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 보존을 억압하고 자기희생을 의무로 하려는 그것의 시도는 오직 강제력이라는 추가적인 악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 위급 상황의 윤리학

그렇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고, 랜드는 조언한다. 예를 들어, 아내가 암에 걸려 있는 남자는 기꺼이 의료비를 내고 그녀를 돌보는 데 시간을 쓸 것인데, 왜냐하면 그녀는 그에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기주의와 일치한다.

그러나 낯선 사람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하거나 당신 자신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생명, 지식, 이성, 그리고 마음을 그들의 것들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것일 것이다. 낯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호의를 유지하는 것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위급 상황(emergencies)에서 그들을 돕는 것은 전적으로 도덕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상태가 더 나쁘게 한다거나 우리를 큰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상황은 진정한 위급 상황이어야 한다. 그것은 예상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도움은 단지 사람들의 무책임만 조장할 뿐이다. 또한 그 문제는 지속 기간이 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 복지 체계들이 그렇게 하듯이, 어떤 사람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그저 의존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지속적인 희생을 요구할 뿐이다.

## 원칙의 중요성

그래서 랜드에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장기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인간 본성에 충실하고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생존을 촉진할 것 같다.

이성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전 삶을 위해—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도—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인간들을 유일하게 만든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최대의 편익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그저 순간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원칙(principle)**이라고 부른다. 거짓말이 우리를 궁지에서 벗어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 내킬 때는 언제든지 거짓말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들에 맞지 않는다고, 랜드는 경고한다. 즉 그것은 그저 얽히고설킨 기만과 파괴만을 낳는다. 우리의 행동들은 시종일관하게 우리의 더 장기적인 목표들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들이 원칙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 원칙들은 규정하기 쉽지 않을지 모른다.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은 어떤 맥락들에서는 잘못이지만 다른 맥락들에서는 잘못이 아닐지 모른다. 강도들에게 당신의 귀중품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에 관해 거짓말하는 것은 ‘부정직(dishonesty)’이 아니다. 그들이 당신의 권리들을 침해한다는 것은 정직의 개념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원칙들을 일관성 있고 상황



을 인식하는 도식(圖式)—도덕률(moral code)—으로 조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옳고 그름의 개념들에 대한 빠른 지침을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돕는다.

### 세 가지 기본적인 가치

그렇다면 당신의 도덕적 가치의 기준은 온전한 인간 존재로서—이성이 ‘인간(human)’ 개념의 본질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성적인 존재로서—당신 자신의 삶이라고, 랜드는 말한다. 그러므로 이성(reason)은 기본적인 가치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에는 목적(purpose)을 가지는 것, 즉 당신 자신의 마음과 장기적인 가치들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들을 명백하게 식별하고 그것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라 그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은 우리를 중요한 것에 집중시키고, 우리가 끊임없는 탐색, 불확실성, 갈등, 그리고 대세에 따르기를 겪지 않아도 되게 해 준다.

당신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또한 자존심(self-esteem)도 필요로 한다. 당신이 생각할 역량이 있다는 것과 삶과 행복을 누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현실과 진실에 관한 당신 자신의 마음의 판단을 존중할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고 그것을 단언하는 데 자신이 있을 필요가 있다.

## 객관주의 미덕들

랜드의 객관주의 윤리학에서 그밖에 모든 것은 이성, 목적,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이 기본적인 가치들에서 생긴다. 이 가치들은 현실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함축하고, 그것 위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의 가치, 목표, 욕망, 그리고 심지어 감정도 명백한 사고에 의해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우리의 실수들에 대해 탓을 대거나 우리의 실수들을 교정할 초자연적인 존재도 없고 신비로운 힘도 없다.

미덕(virtues)이란 우리가 가치를 달성하는 실제 행동들이라고, 랜드는 설명한다. 물론, 가치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들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참으로, 가장 큰 악덕(vice)—가치를 파괴하는 행동—은 의도적으로 현실과 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미덕이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무슨 행동이 옳은지에 관해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을 방해할지 모른다. 사건들이 우리를 압도할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인 행동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롭다.

### 기본적인 미덕들

이성, 목적,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랜드의 기본적인 가치들은 모두 구체적인 미덕들—우리가 그것들[기본적인 가치들]을 달성하는 방법들—에서 자기들의 대응물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성의 가치를 합리성(rationality)의 미덕—시종 일관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을 우리의 유일한 지식 원천, 우리의 가치 척도, 그리고 실제 행동에 대한 우리의 지침으로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 달성한다고, 그녀는 말한다. 이 미덕은 자유 의지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당신의 마음을 진실한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하여 그것에서 떠내려가 버리지도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 다음 독립성(independence)의 미덕—당신 자신의 판단들을 형성할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따라 사는 것—을 함축한다. 그것은 또한 또 하나의 미덕, 성실(integrity)—당신의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소망이나 의견에 결코 희생시키지 않는 것—을 함축하기도 한다. 그것은 정직(honesty)—현실을 결코 꾸며 내려고 하지 않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고 그것은 정의(justice)—응당한 것을 주고,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들이나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을 결코 추구하지 않으며, 당신의 행동들의 완전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함축한다.

우리는 목적이라는 가치를 생산적임(productiveness)의 미덕을 통해 달성한다고, 랜드는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산적인 일—동물들이 하듯이, 그저 우리의 환경에 의지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신의 필요와 가치에 맞추어 형성하는 것—을 통해 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생산적임은 그저 어떤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당신의 능력 안에서 당신의 마음의 최대한의 생산적인 사용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마음을 파소 사용하는

것은 당신을 쇠약하도록 선고한다고, 랜드는 경고한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들을 달성하도록 일하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고, 생산적인 일에 대해 당신의 열의를 잃는 것은 당신의 가치들과 당신의 삶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하게, 자존심도 *자부심*(pride)의 미덕—당신이 당신 자신의 최고의 가치이고 다른 가치들과 마찬가지로 이 가치도 멀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달성된다. 그것은 *인격*(character)을 형성하고, *자기 가치*(self-worth) 의식을 획득하며, 당신 자신을 도덕적 이상에 근거하여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미덕의 보상*

미덕의 보상은 행복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장기의 행복을 순간적인 쾌락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매우 상이한 개념들을 섞는 것이 될 것이다.

가치를 얻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가치를 잃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야기한다. 그러한 기분들은 우리의 즉각적인 이익들의 유용한 지표이지만, 반드시 장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랜드는 말한다. 예를 들어, 술이나 마약이나 상대를 가리지 않는 성행위가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 만약 장기에 걸쳐 무턱대고 만족시킨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단지 해만 가져온다.

대신,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장기의 자기 이익을 위한 것에 관해 능

동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그 견고한 기초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개념들이 일관성이 있고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행동들이 그러한 개념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경우, 우리의 장기 이익을 촉진하거나 해치는 것—에 일치하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항상 해답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배울 수 있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가능성을 가진다.

랜드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happiness)은 *모순되지 않는 기쁨* (non-contradictory joy)—우리의 가치들의 어느 것파도 충돌하지 않는 기쁨—의 상태이다. 어느 변덕의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현실 및 우리의 본성과 조화되는 진정한 가치들을 달성하는 기쁨이다. 이 기쁨은 도덕적 삶을 살려고 하는 데서의 우리의 *목적*(purpose)이고, 객관적인 사고(思考)와 우리가 그것에 기반을 두는 도덕적 행동의 *보상* (reward)이다.

### 강제의 해악

이기주의자들(egoists)은, 갈등 없이, 평화로운 협동을 통해 자기들의 가치들을 달성하고 행복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랜드는 우리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만약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할 수 없다면 교제를 끊는 것을 좋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의 견해를 따르도록 *강제*

하느(force) 것—그들에게 자기들 자신의 판단에 거슬러서 우리의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은 나쁘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과 그러므로 그들이 살 능력을 억누른다. 합리적인 마음들은 강제 아래에서는 작동될 수 없다고—그것은 역사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대들이 또한 가장 생산적인 시대들이기도 했던 이유이다—랜드는 역설한다. 강압은 창조자들을 짐승 같은 자들로 대체하고 짐승 같은 자들을 더욱 나쁜 짐승 같은 자들로 대체한다.

강압은 또한 가치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고, 그녀는 계속한다. 가치들은 합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 판단되는 사실들이다. 만약 당신이 생각할 수 없다면, 당신은 평가할 수 없다. 어떤 사람에게 강제된 가치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 강압은 도덕적일 수 없다.

강압(force)이라는 말로, 랜드는 물리적 강압(physical force)의 개시를 의미한다. 그것은 분노를 품은 폭력이거나, 무언의 강제이거나, 계산된 사기일지 모른다. 합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들 모두를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 방어(self-defense)—강압에 직면해서 이루어지는 보복—은 전적으로 도덕적이다. 강압을 개시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논의를 포기한다. 강압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보복적 강압이다.

그러나 보복은 건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희생자들은 불균형의 강압으로 대응하거나 심지어는 자기들의 피해의 탓을 엉뚱한 사람에게 돌릴지 모른다. 그것은 그저 해(害)를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범죄자들을 평가하고 균형적인 억제를 그것이 마땅한 곳에 행사하는 데 어떤 공평무사한 기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that)은 정치의 기능이다.

## 8 정치학과 경제학

훌륭한 사회 조직의 원칙들은 우리의 도덕 원칙들의 결과인데, 후자는 물론 우리의 지식과 그것을 형성하는 현실에 의거해 있다고, 랜드는 말한다. 건전한 철학은 건전한 정치학과 경제학에 필수적이다.

### 합리적인 정치 원칙들

랜드의 정치학은, 우리의 개인적 행동들과 사회적 행동들 사이의 연결들인, *권리들(rights)*에 의거해 있는데, 이것들은 사회적 행동들을 도덕 법칙에 종속시킨다.

권리들이란 개인들이 어떠한 사람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않고 언제 자유롭게 행동해도 좋은지를 규정하는 도덕 원칙들이다. 권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존중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우리는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의 권리들을 침해할 수 없다.

랜드에게는, 권리들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본질에서 생긴다.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생존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필수적이게 한다. 생명은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이자 우리의 도덕 기준이고, 그래서 *생명권(right to life)*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권리들도 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오래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함이 없이—생각하고, 가치들을 가지고, 사물들을 판단하고, 선택들을 하면서 그것들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의 동기와 시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또 하나의 권리, *자유권(right to liberty)*—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기를 선택할 권리—을 함축한다.

그것은 또한 *재산권들(property rights)*—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적인 것들을 획득하고, 간직하고,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들—도 함축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본질의 일부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의지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과 제조업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그것을 바꾸는 것에 의해서도 생존한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롭게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물질적인 재화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산권들에 대한 억제는 생명에 대한 억제이다.

### *권리가 아닌 것*

권리들은 ‘사회(society)’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랜드는 단언한다. 그것들은 우리를 사회로부터 보호한다. 우리는 ‘어떤 것을 돌려 줌(giving something back)’으로써 우리의 권리들에 대해 ‘대금을 치를(pay)’ 필요가 없다. 또한 우리의 권리들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을 주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일자리나, 집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복지 수당에 대한 ‘권리들



(rights)’은 없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제공하거나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개인들만 권리들을 가지고 있고, 집단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개인들은 주권적이고, 어떤 집합주의 기계의 톱니바퀴 이가 아니다. 어떤 ‘집합체(collective)’도 개인들의 마음, 노력, 혹은 산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들도 가지고 있지 않다. 집합체는 그들에게서 그들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을 빼앗는다. (그리고 그것은 소용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오직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생각하는 마음들만이 생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것은 집합주의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라고, 랜드는 말한다.) 그러나 생존하고, 생각하고, 생산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적이고, 진보하는 경제와 사회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 국가의 역할

권리들은 강압의 개시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이미 언급되었듯이, 보복적 강압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희생자들에게 안전하게 맡길 수 없는데, 이들은 엉뚱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불균형적인 폭력으로 대응할지 모른다. 그래서 대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강압 사용을 포기하고 강압에 대한 독점권을 객관적인 사법(司法)(objective justice)—침해자들에 대한 공평무사하고 신중한 강압 사용—을 시행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에 주기로 동의한다고, 랜드는 말한다. 우리는 이 기관을

국가(the state)라 부른다.

객관적인 사법을 내리는 기능을 위해서는 국가가 명백하고 객관적인 원칙들을 따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권리들이 침해당한 정도와 누구에 의해 침해당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 규칙들(rules of evidence)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행위들(음란, 모독, 그리고 거래의 억제와 같은 넓고, 모호한 개념들은 안 된다고, 랜드는 말한다)을 금지하는 객관적인 법률들(laws)과 적절한 처벌들에 관한 객관적인 규칙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규칙들은, 과도하거나 잘못 겨냥된 강압 없이, 폭력이 저지될 수 있게 한다.

국가의 사법(司法) 역할의 또 하나의 부분은 계약을 시행하는 것이다. 인간들은 혼자 사는 동물도 아니고, 사회적 동물도 아니며, 계약적(contractual) 동물이라고 랜드는 단언한다. 우리는 협조와 거래를 통해 우리의 목표들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정을 맺으면서 장기 계획에 종사한다. 그러나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켜야—하고, 필요하다면, 지키도록 강제되어야—한다. 우리는 또한 사실상 무엇이 약속되었는지에 관한 어떤 논쟁이든 해결할 방식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솔직한 의견 차이들(honest disagreements)에 대해 싸우게 하기보다, 우리는 법원들이 판결하게 한다.

*정부는 제한되어야 한다*

랜드의 견해에서, 우리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일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정부 역할이다. 어떤 다른 국가 기능들도 모든 사람

(everyone)이 자유롭게 동의하지 않는 한 정당화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강제되면 어떤 목적이든 그의 권리들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생각할지 혹은 어떻게 행동할지 지시하면서 국민들의 지적이거나 도덕적인 삶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생산이나 분배와 아무 관련이 있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도로, 공원, 병원, 혹은 학교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을 다수파가 결정하는 *민주주의(democracy)*가 아니다. 정부는 자기 시민들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들의 대리인이다. 오히려, 랜드의 비전은 그것[공화정체]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동의에 의거하는 *공화정체(republic)*이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들에게 강제의 독점권을 주지만, 그런 권력들의 잠재적인 오용은 정부들을 범죄자들보다 우리의 권리들에 대한 더욱더 큰 위협이 되게 한다.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제한되어야 한다. 이것, 정부가 자기의 강압 독점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 한계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들의 목적이다.

그러한 제한된, 초점이 맞춰진 정부는 또한 우리에게 과세의 해악을 면하게 해 줄 것이다. 랜드는 과세, 우리의 재산의 강제된 이전은—우리의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산물에 대해서도—도둑질이라고 역설한다. 자유 사회에서는, 국가의 몇 안 되는正当한 기능들을 유지할 돈은 자발적으로 모을 수 있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 기타 정치 철학들

우리가 보았듯이, 일자리, 집, 혹은 복지에 대한 ‘권리(right)’는 없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개인들이 그들을 돕는 것은 완전히 도덕적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재정상의 안정의 자동적인 보장은 있을 수 없다.

국가 복지(state welfare)의 개념은 우리가 각각 우리보다 우선권이 있는 종족의 그저 일부일 뿐인 집합주의 관념(collectivist notion)에서 유래한다고, 랜드는 말한다. 그것은 또한 정부가 종족의 자원들을 배치할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것들을 가질 ‘권리(right)’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누가 다른 사람들의 강요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deserves)’를 결정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 ‘민주적(democratic)’ 사회들에서는, 결정은 과반수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하게 소수파의 권리들을 침해한다. 랜드는 그것을, 가장 크고 가장 잔인한 갱이 지배하는, 폭도 규칙(mob rule)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녀는 또한 무정부주의(anarchism)—우리가 전혀 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상—도 비판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범죄자들에 의한 약탈에 노출시킨다고 말하면서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고, 무기를 휴대해야 하고, 우리의 집을 요새화해야 하고, 우리 자신의 보호를 위해 집단을 조직해야 한다면, 우리는 생각하고 생산할 수 없다. 국가를 가지는 것은 강압이 되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강압을 개시해 봐야 소용없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심지어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시민들조차도 여전히 객관적인 법률들과 솔직한 의견 차이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것은 그들이 정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을 기억하

라.

랜드는 보수주의자들(conservatives)을, 자기들의 정치적 견해들의 근거를 신념과 전통에 두는, 자유와 이성의 또 하나의 적이라고 본다. 그녀에게, 신념은 정치의 합리적 기초가 아니고, 전통도 역시 지침이 아니다. 오늘날의 정치적 전통은 사회주의이다—이것은 보수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원칙도 성실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랜드는 결론짓는다. 그들은 우리의 권리들을 선언하지만, 강제 징집과 같은 정책들로 그것들을 침해한다. 그들은 이타주의의 언어를 사용하여 자본주의를 변호하고, 그래서 그들은 불가피하게 자기들 자신의 이상들에 대해 결국 변명하게 된다.

그러나 랜드에게는, 아마도 최악의 정치적 범죄자들은 혼합 경제(mixed economy), 자유와 통제의 혼합을 요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것은 ‘양 세계의 최상(best of both worlds)’이 아니라 노골적인 모순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온건한(moderate)’ 사회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양쪽 다 그것을 옹호하지만, 그 이유는 그들 각각이 통제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생활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생활을 통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3의 길(third way)’ 사상을 뒷받침하는 일관성 있는 이론이 없고, 그것의 법률들, 목표들, 그리고 정책들의 배후에 원칙들이 없다. 또한 그것은 제한된 정부와 양립하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정부를 억제할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권리들이 단기적 가치들에 희생되도록 허용한다. 이성이 아니라 실용주의가 권리들이 존중되는지 아니면 침해되는지를 결정한다.

혼합 경제를 안내할 원칙들이 없기 때문에, 복지 수급권(welfare

entitlements) 같은 가짜 ‘권리들(rights)’이 소수파의 희생으로 창설된다. 압력 집단들이 이 합법화된 강도질의 자기 몫을 움켜잡기 위해 생긴다. 통제들이 도입되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들의 유해한 결과들과 씨름하기 위해 더 많은 통제들이 필요하다. 누구의 이익도 안전하지 않다. 이것은 ‘제3의 길(third way)’이 아니라, 독재 체제로의 길이라고, 랜드는 경고한다.

##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경제

랜드는 *경제학(economics)*을 정치적 원칙들을 생산에 적용하는 과학으로서 서술한다. 합리적인 경제 체제는, 인간 활동의 다른 부분들과 같이, 세계와 우리 자신의 본질에 관한 올바른 개념들에 의거해야 한다. 그리고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경제 체제는 또한 권리들을 존중하기도 해야 한다.

### *자본주의는 유일하게 도덕적인 체제이다*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양쪽 다를 하는 유일한 체제는 자유방임 자본주의(*laissez-faire capitalism*)—어떠한 정부 개입도 없는 자본주의—라고, 랜드는 주장한다. 오직 자본주의만이 사람들의 재산권들을 존중하여, 그것을 유일하게 도덕적인 경제 체제로 만든다. 그것은 또한 유일하게 도덕적인 사회 체제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권리들과 가치들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그 시민들이 여전히 예술, 과학, 혹은 문학을 물질적인 재화보다 더

소중히 여길지 모르는 사회이다. 즉 그들이(they) 자기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어떤 당국이 결정하지 않는다.

자본주의하에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기꺼이 대금을 치르는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간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 자유, 혹은 재산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당신이 무슨 가치를 창조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에 따라 그들이 당신에게 보상하는 공정한 체제이다. 그것은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과세하고 창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줌으로써 미덕을 벌하거나 악덕을 보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들은 그저 환경에 의지해서 살 수만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을 창조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할 유인을 우리에게 준다. 만약 우리가 가치를 생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보상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고객이 되도록 강제되지 않고 평범(mediocrity)을 보호할 법률들이 없으므로, 우리는 효과적인(effective)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게 한다. 역사적 증거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해서 진보적인 힘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랜드는 말한다. 사람들이 아주 자유로울 때—예를 들어, 그들이 르네상스 시대에나 19세기의 위대한 자유 무역 시대에 그랬다—혁신이 번성하고 부가 증가한다.

## 국가와 경제의 분리

자본주의와 그것의 편익들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가 개입할

모든 유혹을 제거해야 한다고, 랜드는 말한다. 경제와 국가의 분리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와 국가에 대한 미국의 헌법적 분리와 유사하다.

확실히, 모든 사람을 강압에 대비해 보호하고 계약들이 존중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법의 틀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넘어서는, 경제생활에 대해 법률이나 규제가 있어서도 안 되고, 세금이나 보조금이 있어서도 안 되며, 당국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특정 집단들에 호의를 보일 여지가 있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자발적으로 가치를 교환하는, 거래자로서—주인과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대등한 사람으로서—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유방임 경제에서는, 시장들은 효율과 가치를 증진한다. 시장 가격들은 상이한 제품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그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판단들을 반영한다고, 랜드는 설명한다. 시장들은 제공자들이 고객들에게 가능한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장 덜 낭비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과정들을 찾아내도록 장려한다. 시장들은 미리 계획하고, 혁신하며, 자발적인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좋고 가장 값싼 제품들을 고안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한다.

그러므로 시장들은 지속적인 교육 과정이어서, 우리에게 가치와 효율을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지 가르쳐 준다. 이런 교훈들을 배우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건전한 판단들을 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다. 그것들을 거부하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시원찮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유일한 손실자들이다. 국가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밖에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구제 금융을 주거나 그들의 평범을 지원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자



본주의는 합리성을 장려한다.

### 독점 권력의 미신

자본주의로 인해 강력한 기업들이 대중을 착취하거나 심지어 독점들을 창출할 수 있어서, 고객들이 그들의 높은 가격들과 빈약한 품질을 받아들이 수밖에 없다는 대중적 견해가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희화(戲畫)라고, 랜드는 되받는다. 대중을 착취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어떤 기업이든 다른 기업들이 더 낮고 더 값싼 제품들을 급히 제공함에 따라 곧 파산할 것이다. 또한 독점 기업들이 흔하지도 영구적이지도 않다. 심지어 가장 큰 회사조차도 도전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본 시장들이 전 세계의 자본을 경쟁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혹은 고객들은 똑같은 필요를 만족시키는 대체품들로 그저 전환하기만 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오직 계속해서 최상의 가치를 제공함으로써만이 자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참으로, 가장 흔한 독점 원인은—경쟁을 억압하는 보조금이나 규제를 통하거나 노골적인 국가 제공을 통한—정부이다.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독점 기업들은 그들이 다른 선택지들을 남기지 않는 자기들의 고객들을 착취할 수 있다(can). 국가 법인들이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해 ‘민주적으로(democratically)’ 운영된다고 국가주의자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직 지배하는 깡단의 이익을 의미할 뿐이라고, 랜드는 조롱한다.

경제적 권력은 실질적이라고, 그녀가 인정하지만, 그것은 유일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더 뛰어난 지능과 교육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준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우월한 지식은, 국가 독점 기업의 경제적 권력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훔친(stolen)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건,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은 전혀 다르다. 경제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reward)—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제공함으로써 얻는다. 정치적 권력은 그들에게 오직 처벌(punishment)만 제공한다. 어느 것이 악인지는 명백하다.

### 화폐의 의미

랜드는 화폐(money)도 역시 널리 오해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녀에게는, 화폐는 교환의 도구—가치를 창조해서 거래하기(create and trade value)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미래의 날짜에 그것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화폐를 받는다. 그것의 바로 그 존재는 생산적임, 정직, 그리고 이성의 미덕들을 함축한다.

‘돈에 대한 애착은 만악의 뿌리이다(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라는 표현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권력과 강압이었던 시대에서 유래한다고, 랜드는 말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하에서는 화폐는 사고, 창조성, 혁신, 생산, 그리고 가치 창조의 보상이다.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만큼을 당신이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돈은 *버는*(make)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서 훔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창조적인 성취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강

제되지 않은 수요에서 생긴다. 그것은 전적으로 도덕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화폐는 미덕들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덕들을 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직 생산적인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자기들의 목표들을 촉진하는 데서 그것의 용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봉사한다. 가치와 목적이 없고 범죄나 국가 권력을 통해 돈을 입수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 부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부를 변명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그것을 제거하는 데 국가 권력을 사용할 그 저 약탈자들만 끌어들이는 것이다.

### 자본주의의 비판자들

그렇지만 자기들의 부에 대해 변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타주의가 아주 만연하여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이타주의 체제로서 묘사해야 한다고 느끼는데, 설사 그들이 정반대라 하더라도 그렇다. 자본주의는 합리적인 자기 이익에 의거해 있고, 이타주의는 (불합리한) 자기희생에 의거해 있다.

기업가들은 이타주의자인 척해서 승리할 수 없다. 비판자들이 그들을 이기적이라고 낙인찍을 때 그들은 방어할 수 없다. 전적으로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확산시키는 체제에 관해 그들이 죄의식을 느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은 당황해서 후퇴한다.

자본주의의 도덕적 정당화 근거는 그것이 대중에 봉사한다는 점이 *아니라(not)*고—비록 그것이 틀림없이 봉사하지만—랜드는 말한다. 친자본주의 단체들은 이런 논쟁 방식으로 자신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자본주의의 진정한 정당화 근거는 그것이 과학적, 객관적 도덕과 양

립하는 유일한 체제라는 점이다. 자본주의는 역사상 유일한 도덕적 체제이다. 착취자인 사람들은 이타주의자들이다.

### *현상 유지의 불합리*

하여간, 기업의 해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정부에 의해 야기된다고, 랜드는 이의를 말한다. 보조금의 가망은 회사들을 부패시키고, 기성 기업들은 더 작은 시장 진입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 경쟁 파괴 규제들을 얻기 위해 로비한다. 덧붙여서, 규제들은 변함없이 다른 해롭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고, 정치가들과 관료들에게 자의적인 의사 결정 권력들을 준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자원들이 ‘공동 선(common good)’을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공동 선(common good)’이 무엇인지 결정할 합리적인 기초가 없다. 그러한 재분배는 또한 자원들을 그것들을 창출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이동시키기도 한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주요 자원들이 물질적 대상들이 아니라 개인들 자신들이라는 것을 사회주의자들이 언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것은 불가피하게 강압의 위협을 필요로 한다—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음, 이성, 그리고 판단에 대한 공격이다. 즉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온전한,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기능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받는다(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ies,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는 표

현에서, ‘필요(need)’에 대한 한계(limit)가 없다. 그 사상은 사람들을 거지와 거짓말쟁이로 바꾸고, 그들을 부추겨 어떤 재분배에서든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불행을 과장하게 하고 그것[재분배]에 의해 착취되지 않도록 자기들의 자력(資力)을 숨기게 한다. 이것은 그저 우리의 번영과 참으로 우리의 생존에 손해를 입힐 수 있을 뿐이다.

## 9 공공 문제에 관한 랜드의 견해

자기의 씌어진 작품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많은 논문들과 강연들에서, 랜드는 자기의 도덕적 및 정치적 사고를 자기 시대의 공공 문제들에 적용했다. 이것들은 보건 의료, 교육, 복지, 1960년대의 학생 혁명들, 인종 차별주의, 환경 보호주의, 페미니즘((feminism · 여권(女權)주의), 민권들, 동성애와 마약 사용에 관한 법률들, 외교 정책, 베트남 전쟁과 징병, 테러리즘과 ‘정치적(political)’ 범죄들, 최저 임금 · 조세 · 계획 · 에너지 및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쟁점들, 그리고 그밖에 많은 것을 포함한다. 각각에 관한 그녀의 견해들은 고도로 강건했는데, 그녀의 철학이 어떻게 그것들을 형성했는지 알기 위하여 그것들 중 몇몇을 고찰하는 것은 흥미롭다.

### 진보적인 학교 교육의 빈약

랜드는 독립심, —합리적 한계 내에서—자유, 그리고 아이의 자연적 발달의 존중을 강조하는 몬테소리 교육(Montessori education)을 지지했다. 그녀는 많은 우리의 문화적 문제들의 책임을 ‘진보적(progressive)’ 학교 운동에 씌웠는데, 후자에서는 배우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대신 놀도록 지시받는다. 그 생각은 그들의 사회적 기능들

을 증대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배우는 전부는 무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무리의 나머지도 똑같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똑같이 불공정하다. 아이는 오직 오늘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빨리 배우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무리가 내일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지어봐야 소용이 없는데,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박살낼 것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도덕은 무리의 변덕이다. 유일한 가치는 무리를 자기들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조종하는 능력이라고, 그들은 배운다.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지식을 전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현실을 부정하는—환상극(fantasy play)에 집중한다. 아니면—무엇이든 무리가 의견 일치를 보는 것에 가치를 두는—학급 토론에. 아니면 이해보다—아이들의 마음들을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너무 부담을 주고 그것들의 학습 개념들이 없는—기억의 과제(예를 들면, 음성학보다 전체 단어들의 형태를 배우는 것)에.

## 대학과 학생 불만

더 우둔한 학생들은 영합한다. 다수의 더 영리한 학생들은, 싫증내고 좌절해서, 그저 포기할 뿐이다.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할지 모르는 마지막 희망은 대학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대신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단어들이란 우리가 그것들에게 의미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실들(facts)’이란 단지 견해들일 뿐이라고 가르침을 받는다. 다시 말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강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그들의 견해들도 어떠한 전문가의 견해만큼이나 훌륭하다고 아첨하는 수업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을 안내할 객관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것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 ‘적절한(relevant)’ 수업들을 요구하게 된다고, 랜드는 계속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들의 함정에 빠져 있고 좋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그들은 이것이, 과거·현재 및 미래의 삶에 적절한 수업들이 아니라, 오늘(today)에 적절한 수업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수가, 혼란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정치적 의제를 가진 행동주의자들에 의해 쉽게 이끌리게 된다는 점은 예상 밖이 아니다.

## 구좌파와 신좌파

그러나 이것은 신좌파(New Left)—1960년대 후기의 사회 혁명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어난 정치 운동—의 정치적 의제였다고, 랜드는 말했다. 그것은 전통(traditional) 좌파 혹은 구좌파(Old Left)의 견해와 양립 불가능—했고 마찬가지로 이성과도 양립 불가능—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구좌파는—비록 오해하긴 했지만—이성과 과학의 옹호자로 자칭했다고, 그녀는 설명한다. 그들은 집합적 조직과 ‘합리적(rational)’ 계획이 일반적인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주의는, 자기의 더 효율적인 공장들과 기계들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능가할 것이다. 자본가들의 경제적 권력은, 전 세계에 걸쳐, 인민들의 의지에 굴복할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이 생산성 및 성장 환상은 산산이 부서졌다. 서양은 명백히 소련을 앞지르고 있었는데, 너무나 그러해서 소련은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장벽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대신, 구좌파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집합주의가 ‘더 높은(higher)’ 가치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번영이 불필요하다고 설득시키려고 했다. 설득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대조적으로, 신좌파는 생산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기를 원했다고, 랜드는 역설했다. 풍요를 약속하는 대신에, 그들은 자본주의가 풍요를 생산한다고 조롱했다. 그들은 경제 성장이 연약한 생태계를 훼손시킨다고, 법률들이 인간 본성을 억누른다고, 그리고 마약과 동양의 신비주의가 우리의 의식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시의 복귀(return of the primitive)’를 추구했다.

신좌파는 명백히 인간 복지에 관심이 없었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인간 본성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그들은 반항아가 되기를 원했지만, 실제로는—그저 인간을, 그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종족으로서 보는 지배적인 견해를 반영할 뿐인—기득권층이었다. 따라서 단지 어떤 사람들만의 번영은 불공정하다고 여겨졌다. 그들은 자기들을 뒷받침할 그저 상투어들과 슬로건들만 가지고 있었지만, 서양 철학이 아주 미약(했고 미약)해서, 지적으로, 그것은 저항하는 것이 무력했다.

## 집합주의로서의 인종 차별주의

이런 집합주의적 종족주의의 가장 조잡한 형태는, 비록 신좌파는 그

것을 거부하겠지만, 인종 차별주의(racism)이다. 인종 차별주의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과 업적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가계(家系)에 따라 판단한다고, 랜드는 말한다. 그것은 가치들과 인격이 태어날 때 결정된다고 암시하고, 인간들의 본질적인 특성—그들의 이성 능력—을 묵살한다.

인종 차별주의는 집합주의와 함께 상승하고 하락한다고, 그녀는 관찰한다. 예를 들면, 그것은 나치 독일에서와 초기 소비에트 시대에 강했다. 그 이유는 인종 차별주의가 자기를 유지하는 데 국가 권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반면 자본주의는 인종 차별주의를 부숴버린다. 자본주의는 각자를 주권적으로 간주한다. 시장들은 그들을 오직 그들의 생산 능력에 따라 판단하지, 다른 부적절한 특징들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인종 차별주의와 농노제를 부숴버린 것은 자본주의였다. 미국에서, 노예제는 남부 비자본주의 주들에서 가장 오래 존속했다.

대조적으로, 복지 국가와 혼합 경제는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것들은 국가 지원을 놓고 다투는 집단들 사이에 갈등을 낳는다. 파벌주의와 인종 차별주의는 불편부당성을 대체하고, 인종 집단들은 자기들의 ‘민족성(ethnicity)’이 존중되고, 보존되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가계(家系)에 따라 판단하고, 그들의 문화가 발전하게 하는 대신에 그것을 동결시킨다. 그러한 요구들은 이성, 권리들, 그리고 재산에 적대적이라고, 랜드는 말한다.

## 환경 보호주의

신좌파는 기꺼이 환경 보호주의(environmentalism)를 받아들였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반자본주의의 대리 변수이기 때문이라고, 랜드는 주장한다. 그것은 생산, 성취, 그리고 이성에 대한 적나라한 증오를 무심코 드러낸다. 그리고 인간 생명에 대해서도 그런데, 제조업 이전에, 기대 수명은 짧았다. 인간들은 생존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지만, 환경 규제는 혁신을 억누른다. 랜드는 생산 기술에 대한 그러한 제한들을 마음에 대한 그리고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본다.

그러나 환경 보호주의자들은 진보를 자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자연을 가만 놔두라(leave Nature alone)’라는 그들의 외침들은 급진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은 몹시 보수적이라고, 그녀는 강력히 주장한다. 그것들은 현상 유지의 숭배—인간성 자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보존하라는 요구—이다. 자연에서는, 심지어 인간 생명의 필수품조차도 얻는 것이 어렵다. 자본주의하에서는, 심지어 사치품조차도 쉽게 손에 들어온다. 정치가 아니라, 부와 기술이 공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환경 보호주의자들의 진정한 동기는 재능, 성공, 그리고 인간 성취의 증오가 아닌가, 랜드는 의심한다.

## 민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자유에 대한 랜드의 철저한 옹호로 그녀는 민권들에 관해 신좌파와 몇몇 동일한 결론들에 도달했다. 그녀는 낙태를 어머니의 도덕적 권리로 보았는데, 왜냐하면 그밖에 어느 누구도 그녀의 몸의 처분에 대해 권리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잠재적인 인간은 실제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국가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

장하면서 그 전쟁에서의 미국의 자기희생을 반대했다. 그녀는 또한 징병에 반대해서 글을 쓰고 강연하기도 했다. 이것은—국민들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된—국가의 권력의 가장 큰 남용이라고, 그녀는 느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생명에 대한 권리이지만, 징병은, 자기들이 심지어 지지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대의명분을 위해, 개인들에게 자기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도록 요구한다. 징병은 정부가 보호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신 그것은 국가주의(statism)—당신의 생명은 처분할 국가에 속한다는 견해—를 촉진한다. ‘권리가 의무를 부과한다(rights impose obligations)’는 것의 반론에 관해서는, 랜드는 권리들이란 ‘대가가 지불될(paid for)’ 필요가 없고—그것들을 존중하라는, 정부들을 포함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제외하고는—아무에게도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에게 환기시킨다.

## 범죄와 테러리즘

랜드는 또한 사람들을 그들의 신념과 생활양식 때문에 유죄로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믿기도 한다. 범죄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을 강압이나 사기로 침해하는 것이다. 성행위 관행이나 마약 사용 같은 생활양식 선택들은 범죄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강압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도 강압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다. 정당한 정부는 사람들을 그들의 사고와 신념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자유 언론은 권리이다.

설사 어떤 정치적 견해에 따라 동기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강압의

개시는 여전히 범죄라고, 랜드는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므로 테러리스트들은 범죄자로 취급되어야지, ‘반대자(dissenters)’나 ‘정치범(political prisoners)’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녀에게는, 그들은 실제로 일상 범죄자들보다 더 나쁜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신념이 범죄를 ‘정당화하는(justify),’ ‘이상주의자(idealists)’로 불리기를 요구하면서 권리의 개념을 와전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무슨 신념이 무슨 범죄를 정당화하는가? 명백히 이 전 개념은 무슨 정치 사상이 수용될 수 있거나 없는지 결정하는 데—그 자체 전제적이다—국가와 법원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 경제 정책

랜드는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예기치 않고 달갑지 않은 결과들을 풀어놓는 확실한 길로 본다. 예를 들어, 최저 임금 법률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확실히 일자리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실업을 끌어올리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고용인의 노력 때문에 고용주가 얻는 가치 위에 임금을 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것도 평등을 증진하지 않고(랜드가 그것을 가치로 본다는 것이 아니지만) 투자를 줄이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자기의 조류 위로(on its tide) 들어 올릴 경제 성장을 늦춘다. 참으로, 재분배적 과세는 그저 그 성공으로 그들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아서 물질적 성공의 결여로 그들이 귀중한 자원들의 서투른 관리자임이 증명되는 다

른 사람들에게로 재산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더 악화된다. 재분배와 경제적 안정에 대한 복지‘권(right)’은 노예 노동의 한 형태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여러 시간 국가를 위해 일할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노예제(slavery)라고 부를 것이라고, 랜드는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노동의 과실을 돈으로서 빼앗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과세(taxation)라 부른다. 어떤 진정한 차이가 있는가?

막연한 규제들은 특별히 해로운 종류의 개입이라고, 그녀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반(反)독점 법률에서, 시장에서 ‘지배(dominance)’로 간주되는 것이 명백히 정의될 수 없다. 그래서 결정들은 규제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귀착한다. 그것은 로비스트들과 기득 이해 관계자들이 자기들 자신의 편익을 위해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조장한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합병이나 인수, 혹은 심지어 자기들 자신의 자연적인 성장이 규제자들에 의해 불법으로 재정(裁定)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 그들이 미리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나치게 조심하게 되고, 미래의 투자, 생산성, 그리고 가치가 상실된다.

## 외교 정책

구속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모든 사회 집단들을 위한 가장 빠른 번영의 길이다. 자본주의의 국내 기초들은 최소 정부와 최소 법률들인데, 이것들은 오직 국민들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에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설계되어 있다. 그것의 대외 정책은 자유 무역—

자발적으로 가치를 교환하는 개인들과 기업들 사이의 국제적 협조—이다.

자본주의는 전쟁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종종 욕을 먹지만,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랜드는 반박한다. 전쟁들은 자본, 신뢰, 그리고 상업을 파괴한다. 전쟁을 시작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정부들뿐이고 국민들에게 전쟁들에서 싸우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정부들뿐이라고, 그녀는 우리에게 환기시킨다. 사업가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랜드는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오직 자위를 위해서만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 가치들을 옹호했고, 정부들이 모두 도덕적으로 대등하다는, 지배적인 미신을 끝낸 것은 훨씬 과거였다.

국제 연합에서 독재 정권들의 수는 이러한 도덕적 대등 견해가 얼마나 많이 뿌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의 수용은 세계의 반을 공산주의—개인 권리들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 정의에 의해, 사악한 집합적 이데올로기—에 넘겨주었다. 그러한 독재 국가들에 맞서 무기를 드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가? 물론이오, 라고 랜드는 생각했다—자기희생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진정한 위협에 반격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 10 예술의 본질과 중요성

미학(aesthetics)—예술의 이론—은 랜드의 세계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윤리학(ethics)이 선한(good) 것을 고찰할 때에, 미학(aesthetics)은 예술가들이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복잡한 추상적인 관념들을 우리가 직접 숙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들로 바꾸는 방법을 고찰한다. 그것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칙들에 관한 것이다.

대중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우리는 예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급진적인 결론 같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예술이 ‘개인적(personal)’이고 ‘감정적(emotional)’이며 그러므로 과학적 분석을 받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 듣기 때문이라고, 랜드는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예술의 기능(function)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술에 의해 불러일으켜지는 감정들은, 모든 인간 감정들과 같이, 한 가지 이유로 존재한다. 그것들은 우리의 생존에 중요하다. 미학은 물리학이나 생물학만큼 과학적 연구를 할 가치가 있다.

### 예술 창작의 과정

랜드는 예술의 과정을 설명한다. —화가, 조각가, 소설가, 시인, 극작가, 무용가, 혹은 음악가와 같은—예술가들은 중요한 어떤 것을 전달하기를 원한다. 그들의 예술에서, 그들은 이 본질적인 요소들을 분리



하고 강조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자기들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부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우아한 여성을 그릴 때, 초상화가는 그때 그녀의 입술에 우연히 존재하는 입술 발진을 모사(模寫)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 화가가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에 부차적이고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때 또 한 화가는 바로 인간 허영의 쓸데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 발진을 포함할지 모른다.)

이 선택적 과정에 의해, 예술가는 현실—가짜 현실이 아니라 예술가가 현실에 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더 뚜렷한 번역—을 재창조한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그것은 지식이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에 관한 더 나은 이해와 우리가 열망할지 모르는 이상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 예술의 결정적 역할

이것은 예술을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생존에 결정적이게 한다고, 랜드는 말한다. 우리는 개념들을 형성함으로써 지식을 얻는다. 예술 작품은 우리의 바로 그 존재에 관한 많은 심오하고 복잡한 추상 개념들을 통합할 수 있다. 이것들을 구체적인 형태로 묘사함으로써,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추상 개념들을 견고하게 현실에 뿌리박혀 있게 하는 것을 돕는다. 그리고 예술의 구체적인 형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개념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심원한 개념들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현실을 알 수 있다. 예술 작품들은 심원한 현실과 심원한 가치들을 성찰하고 숙고할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그렇다면 랜드에게는 예술의 바로 그 목적은, 현실의 재창조를 통하여, 예술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세계관, 삶의 감(sense of life), 관념, 혹은 가치 판단—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의 역사가 예술을 낳은 문명들의 근본적인 가치들의 바로미터가 되는 이유라고, 그녀는 관찰한다. 따라서 과학과 이성의 시대로부터의 고대 그리스의 조각과 문학은 인간들을 영웅적이고, 강하고, 아름답고, 자신만만한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인간들이 사악한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중세 시대의 예술은 그들을 불구의 괴물로 묘사한다.

중요한 개념들을 현실의 재창조를 통해 강조하는 미학적인 목적은—우리가 예술 작품을 좋아하건 않건—모든 예술에 적용된다고, 랜드는 말한다. 예술 작품은, 비록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벽에 걸어 놓기를 원하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의 삶을 보다 나은 쪽으로 바꾸는 심원한 어떤 것을 당신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합리적 목적을 이해하는 예술 비평가들은 거의 없다. 대신 그들은 예술이란 오직 교양 있는 엘리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적인 어떤 것이라고 암시한다. 이것은 그저 ‘전문가들(experts)’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비록 그들이 어떠한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의미 없는 ‘현대 예술(modern art)’의 과잉을 조장할 뿐이다.

## 예술과 삶

예술은 강력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랜드는 이것을 자기가

우리의 **삶의 감**(sense of life)—인생에 관한 그리고 사물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에 관한 우리의 잠재의식적인 견해—이라고 부르는 것에 돌린다. 선택들에 직면하고 판단들을 형성하는 삶을 우리가 겪음에 따라, 우리는 현실과 삶에 관한 일반적인 감정을 발현시킨다. 개념들과 같이, 삶의 감은 추상 개념들의 집합이지만,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잠재의식적으로 형성되는 집합이다.

예술에 관한 우리의 심원한 감정을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초상화에 있는 입술 발진을 우리의 미(美) 이상에 대한 모욕으로서 몹시 싫어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 자부심에 대한 정당한 비난으로서 칭찬할지 모른다. 삶의 감은 정확하게는 감정(emotion)이 아니고 오히려 ‘감(sense)’이나 ‘느낌(feeling)’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찬가지로 자동적이고, 강렬하며, 개인적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심원한 가치—인생 그 자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 예술의 구조

자기의 미학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술 작품은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랜드는 말한다. 첫째, 그것은 **주제(theme)**—청중에 대한 예술가의 메시지—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화란 거장 요하네스 베르메르(Johannes Vermeer)의 그림들의 주제는 빛의 경이이다.

둘째, 예술 작품은 **주제(subject)**—그 작품의 대상—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예술가가 선택함에 따라 영웅적이거나 타락한 것, 불합리하게

나 평범한 것일지 모른다. (랜드에게 실망스럽게) 베르메르의 제재들은 초라한 가정 현장들이다—실사 그에게는 그것들이 그저 그가, 탁월하게, 자기의 주제를 표현하는 수단일 뿐일지라도 그렇다.

작품의 양식(style)은 예술가 자신의 개념적 틀을 반영한다. 그것은 막대한 양의 추상의 구체적인 형태이다. 다시, 베르메르의 경우, 그의 양식의 정확성은 명료성, 규율, 그리고 목적의 이상들을 투사한다.

## 타당한 예술 형태들

예술의 목적은 많은 방식들로 달성될 수 있다고, 랜드는 말한다. 예를 들면, 회화는 현실을 재창조하는 데—시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사 전달하는 데—2차원의 색깔을 사용한다. 문학은 언어를 사용하여 현실을 재창조한다. 조각은 시각과 촉각 양쪽 다를 포함하는 3차원 대상들을 사용한다.

소리와 청각을 사용하는 음악은 다소 다르다. 음악은 두 단계 과정이다. 그것은 잠재의식적인 삶의 감(sense of life) 수준에서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는 작곡가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이상들을 숙고할 수 있다. 조각도 마찬가지다.

연기와 무용 같은 공연 예술들에서는, 연기자들 자신이 매체이다. 예를 들어, 발레에서는, 예술가는 힘과 우아함을 전달하려고 한다. 탭댄스에서는, 정확성과 명료성을 전달하려고 한다.

## 타당하지 않은 예술 형태들

랜드는 약간의 다른 형태들을 ‘예술(art)’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삶의 감을 전달하는 예술의 근본적인 목적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술은 예술이 아니라고—그것은 창조적인 재간이기보다 기술적인 재간이라고—그녀는 단언한다. 장식 ‘예술들(arts)’은 예술이 아니고 순전히 감각적이어서, 어떠한 개념적 이상들도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 예술(modern art)’을 그녀는 이성—과 그러므로 존재—에 적대적인 것으로 본다. 예술은 의사 전달에 관한 것이라고, 그녀는 우리에게 환기시킨다. 한 편의 ‘현대 예술(modern art)’이 감각을 자극할지 모르지만, 만약 그것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양식화 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예술이 아니다. 참으로, 감각적 영향을 사고의 전달 위로 들어 올림으로써, 그것은 이성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 된다.

## 문학예술의 원칙들

소설가이자 극작가로서, 랜드는 소설 쓰기의 원칙들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소설은 주제, 재재, 그리고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의 추가적인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그녀는 설명한다. 그것은 *성격 묘사* (characterization)를 필요로 한다.

*주제*(theme)는 소설의 목적을 규정한다. 그것은 작가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넓을지도(랜드 자신의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쓷었다»의 주제는 인간 존재에서 마음의 역할이다) 더 좁을지도(《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the Wind)》의 주제는 남북 전쟁이 미국의 남부에서의 삶을 바꾼 방식이다) 모른다. 주제는 행동—소설가의 현실 재창조는 등장인물들에 일어나는 것과 그들이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이다—의 면에서 진술된다.

제재에 대한 소설의 등가물은 구성(plot)이다(그러나 필자는 제11장에서 제재와 구성을 별도로 다 다룬다—옮긴이 주). 이것은 주제를 사건들과 행동의 줄거리의 전개로서 진술한다. 구성은 주제와 조화되어야 하고 연결된 사건들의 의도적인 진행에서 주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그것은 되는 대로거나 무의미할 수가 없다. 등장인물들은 목표들을 추구하고 있어야 하고, 그들의 선택들은 작가의 목적을 드러내야 한다.

성격 묘사(characterization)는 이야기에서 행위자들의 특질이다. 그들의 성격과 동기들은 행동과 대화를 통해 나타난다. 그것들은 자기들의 등장인물들에 부합되게 작용해야 한다. 성격 묘사, 구성, 그리고 주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소설의 양식(style)은 인간 지식과 그것이 수집되는 방식에 관한 작가의 견해를 반영한다. 양식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고, 예술가가 편하게 느끼는 종류의 정신적 작용을 드러낸다. 작가의 양식은, 미국 범죄 소설 작가 미키 스피레인(Micky Spillane)의 마이크 해머 소설들(Mike Hammer novels)과 같이, 매우 사실적이고 문자 그대로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 같은 작품들에서와 같이, 이성과 정열의 혼합을 투사할지 모른다. 아니면, 미국 소설가 톰 울프

(Tom Wolfe)의 작품에서와 같이, 그것은 작가 자신의 반응들의 면에서 소재(素材)를 진술할지 모른다.

## 예술과 문학에서의 낭만주의

빅토르 위고 같은 낭만주의 작가들은, 랜드가 ‘부유(浮遊)하는 추상 개념들의, 현실에서 고립된 감정들의, 혼돈(a chaos of floating abstractions, of emotions cut off from reality)’이라고 부르는, 토머스 울프(Thomas Wolfe)의 소설보다 랜드의 예술 관념에 훨씬 더 들어맞는 소설들을 창작한다. 낭만주의 운동(Romantic movement)은 의지에 기초하여 현실을 재창조한다고, 그녀는 설명한다. 낭만주의 예술에게 그것의 활력을 주는 원인,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심원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운동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강렬한 이유는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우리의 선택들과 가치 판단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심원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을 그것이 인정한다는, 그리고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낭만주의 예술은 세속적인 것들에 집중한다거나 우리에게 삶의 단순한 사진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들을 환상적인 것으로, 혹은 멈출 수 없는 힘들에 맞선 우리의 행동들을 무력한 것으로, 목살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에서 근본적, 보편적,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들과 가치들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고 정말 처리하는 방식에, 집중한다. 그것은 도덕적 이상을 투사하려고, 즉 사물들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ought) 방식을 보여주려고—

윤리학의 미학적 등가물—노력한다.

낭만주의는 우리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불러 일으키는 결정적인 가치들과 선택들이 우리의 삶의 감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예술과 문학에 색깔, 상상력, 흥분, 그리고 독창성을 도입한 19세기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강렬하게 감정적인 작품을 보라. 랜드의 총아, 빅토르 위고처럼, 그들 중 아주 최고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치들, 그리고 도덕의 면에서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선택들을 강조하기 위해 성격과 행동을 능숙하게 사용했다.

## 현대 예술의 결함들

현대 문학은 예술의 목적을, 그리고 의지·가치들 및 감정들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잊었다고, 랜드는 한탄한다. 그것은 우리가 외부의 힘들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고 암시한다. 여기에서 일관성 있는 구성들, 행복한 결말들, 승리, 혹은 미에 대한 현대 작가들의 깊은 적개심이 유래한다.

대중 문학도 역시 결함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평범한 가치들에 집중하여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믿는다. 그것의 결함 있는 도덕—이타주의—은 그것이 결코 설득력 있게 구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너무나 많은 대중 영화는 터무니없이 의외의 짓들을 하는 평범한 등장인물들로 가득 차 있고, 성격 묘사와 구성은 아주 일관성이 없어서 어떤 미학적 목적도 상실된다.

대중은, 영국 작가 이언 플레밍(Ian Flemming)의 제임스 본드 책들



(James Bond books) 같은 낭만주의적 묘사들을 간절히 바란다고— 비록 그 주인공을 패러디하는 차후의 영화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 (not)을지라도—랜드는 단언한다. 진정한 낭만주의는,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들을 단언하고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들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 도덕적 이상을 진술한다.

아이들도 역시 자기들의 가치들을 계발할 낭만주의적 이상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읽고 보는 것의 대부분은 대신 그들에게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이 되라고—도덕이 고통스럽다고—말한다. 똑똑한 아이들은, 모순을 보고서, 아무것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그것은 현대 예술과 문학이 우리의 문화를 이르게 한 비참한 상태라고, 그녀는 결론짓는다.

## 11 랜드의 소설들

### 랜드의 소설의 목표

랜드에게는, 비참함, 질병, 그리고 재난은, 연구할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술의 적합한 제재(題材)가 아니다. 그녀는 예술이 긍정적인 어떤 것, 즉 사물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되어야 할지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및 정신적 생존을 얻는 데 노력을 들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심리적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격 특질들을 발견하여야 한다. 예술은 그 점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데, 하기가 그것의 가치가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라기보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제재들을 경험하고 성찰하게 한다는 사실이긴 하다. 그 점은 예술을 가치 그 자체로 만드는 것이다.

소설을 쓰는 데서 랜드 자신의 목적은 이상적인 인간의 개념을 투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찰하게 하는 것, 즉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삶의 모델을, 그리고 그것을 옮겨줄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 그러한 관념들은 그녀의 작품들에 스며들어 있다.

## 《우리 살아 있는 자들》

**주제와 제재.** 랜드의 1936년의 소설(과 차후의 연극과 영화) 《우리 살아 있는 자들(We the Living)》의 주제(theme)는 국가에 맞서는 개인 그리고 인간 삶의 최고 가치이다. 그것의 제재(subject)—그녀 자신의 경험에서 끌어내었다—는 러시아 혁명에 의해 합리적 가치들이 파괴될 때의 삶의 잔인성이다.

**구성.** 구성(plot)은 독립적인 마음을 가진 한 젊은 여성(키라 · Kira)이 마음이 통하는 이성(異性) 친구(레오 · Leo)를 발견하는 것을 보여준다. 연인들은 볼셰비키에 의해 통제되는 페트로그라드에서의 삶의 무너지는 폐허를 탈출하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절대 탈출하지 않기로 체념하고서, 키라는 이상주의적인 젊은 공산당 관리(안드레이 · Andrei)를 만나서 내키지 않지만 존경하고, 그녀는 그에게서 돈을 받아 지금 앓고 있는 레오를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레오가 자기의 요양으로 건강이 회복될 때, 그는 자기의 이상주의와 성실을 잃어버렸다. 한편, 안드레이는 자기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그것이 실제로 야기하는 비참함 사이의 모순으로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한다. 이제 혼자이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므로, 키라는 다시 탈출을 시도하지만 시도 중에 죽는다.

**성격 묘사.** 성격 묘사(characterization)의 면에서, 이것은 아마도 랜드의 가장 성공적인 소설일 것이다. 국가 권력에 의해 시행되는 비뚤어진 이데올로기에 의해 합리적인 가치들이 비틀어질 때 개인들이 직면하는 심원한 개인적 및 정치적 선택들의 어려움을 환기시키는 등장인물들에는 깊이가 있다. 틀림없이, 그 책의 준자전적 성질은 랜드가

이 사건들과 등장인물들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녀처럼, 키라는 혁명의 페트로그라드에 살고 있는 자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젊은 여성이다—비록 키라와 달리, 랜드는 용케 탈출했지만.

**양식.** 양식(style)은 철학적 연애 소설의 양식으로, 러시아와 유럽에서는 흔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형태인데, 이것은 랜드가 미국 출판사를 찾으려고 애를 썼던 하나의 이유이다. 공산주의의 모순들과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잔인한 폭력을, 등장인물들은 논하고, 그들의 선택들과 행동들은 지적한다.

그것은 또한 1930년대 미국에서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책은 유럽에서는 잘 팔렸고 1942년에는(그녀의 동의 없이) 2부의 이탈리아 영화(《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Noi Vivi)》과 《안녕, 키라(Addio, Kira)》)로 각색되었다. 이 영화들은 반국가주의 메시지가 아주 효과적이어서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그것들의 개봉 직후 그것들의 배급을 금지하였다. 그것들은 랜드의 사망 후 1980년대에 영어로 재개봉되었다.

## 《앤섬》

《우리 살아 있는 자들》을 미국 출판사들에게 문제가 되게 했던 것들과 똑같은 문화적 이유들로, 1937년에 씌어진, 랜드의 단편(이 책의 앞의 곳들에서는 중편이라고 되어 있다—옮긴이 주) 소설 《앤섬(Anthem)》은 처음 영국에서 출판되었다. 한 잠재적 미국 출판사는 랜드가 ‘사회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did not understand socialism),’고 불평했다—러시아 혁명을 헤쳐 나갔던 작가에 대해 한 말로 놀랄

만하고 1930년대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국가 계획에 대한 낙관론을 나타낸다.

**주제와 제재.** 책의 주제는 인간 자아의 의미라고, 랜드는 말했다. 그것의 제재는 개인들이 국가 속에 잠긴—‘나(I)’가 ‘우리(We)’로 대체된—악몽 같은 세계로부터의 탈출이다. 랜드는 애초 그 책을 《자아(Ego)》라고 이름 지을 생각이었지만, 이것이 구성을 놓쳐버릴지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구성.** 랜드는 《앤섬》이 구성보다는 *줄거리(story)*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행동을 중심으로 삼기보다는 등장인물들의 시각의 변화를 중심으로 삼는다. 다른 아이들과 같이, 7-2521번—이 세계에서는 이름이 숫자로 대체되었다—은 집단 가옥(collective home)에서 길러진다. 그는 사물들에 관해 호기심이 있고 빨리 배우는 사람이라는 ‘재앙(curse)’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학자(Scholar)가 되는 것을 꿈꾸지만 거리 청소부로 일자리가 할당되는데, 이것을 그는 자기의 주제넘음에 대한 처벌로서 본다.

그는 자기가 ‘귀중한 하나(Golden One)’라고 부르는 소녀에 반한다. 그는 과거의 ‘언급할 수 없는 시대(Unmentionable Times)’로부터 시작하는 터널에서 금속 선로들을 발견한다. 자기의 탐구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는 과학적 실험을 하고 전기와 인공조명을 발견하는 데 이 은신처를 사용한다. 그는 학자들에게 말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발명이 파괴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양초부(Department of Candles)의 일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인적미답의 숲(Uncharted Forest)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귀중한 하나는 그를 찾아낸다. 그는 언급할 수 없는 시대로부터의 집 하나를 발견한다. 그는

그 서재에서 책들을 읽고 ‘나(I)’라는 단어를 발견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름을 부여한다—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처럼, 자기의 개성을 되찾을 수 있을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

**성격 묘사.** 주인공 7-2521번은 다른 사람, 귀중한 하나와 함께 그리고 그녀를 통하여 자기의 개성을 발견한다. 이러한 성격 묘사는 《우리 살아 있는 자들》에서 키라와 초기 레오의 경상(鏡像·mirror image)이다. 이상적인 인간을 성격 묘사하려는 랜드의 첫 시도는 여자 등장인물이었지만, 《앤섬》에서는 행동을 이끄는 것이 남자 등장인물이다. 《앤섬》에는 학자들 외에는 다른 등장인물들이 거의 없는데, 이들은 중앙 집권주의와 불합리한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

**양식.** 그 책은 비밀 일기의 형태로 씌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주인공이 집합주의 국가에 영합할 수 없음과 씨름할 때, 그리고 개인주의의 개념과 그것이 함축하는 심원한 선택들을 이해하려고 애쓸 때, 그의 생각들에 접근할 수 있다.

《앤섬》은 예브게니 자마틴(Yevgeny Zamyatin)이 쓴 1921년의 러시아 소설 《우리(We)》, 그리고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가 쓴 더 잘 알려져 있는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와 몇몇 유사점들을 가지고 있다. 헉슬리의 책에서도 역시, 아이들은 집단적으로 길러지고 있고 일자리를 할당 받는다. 유일한 개인주의자, ‘미개인(Savage)’이라고 불리는 국외자는 추방되어 결국 자살을 한다. 그러나 헉슬리의 세계는 계획된 풍요의 세계다. 그는 기술에 낙관적이지만 인간 가망에 비관적이다. 대조적으로, 랜드는 집합주의적 빈곤을 예측한다. 그러나 그녀의 세계에서는, 적어도 인간 구원의 가망이 있다.

## 《원천》

랜드의 획기적 소설은 1943년에 출판된 《원천(The Fountainhead)》이었다. 그것은 그녀를 유명하게 만들었고, 지도적인 개인주의 작가로서 그녀의 위치를 확실히 하였으며, 베스트셀러 목록들에서 상위를 차지하였고, (1949년 영화와 함께) 그녀에게 재정적 안정을 주었다.

**주제.** 랜드에 따르면, **주제**는—정치에서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면에서—개인주의 대 집합주의이다. 참으로, 《우리 살아 있는 자들》과 달리, 책에는 정치나 경제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것은 모두 평범함을 조장하는 체제에 대항하는 한 명의 독창적인 사람에 관한 것이다.

**제재.** **제재**는 인간 창작에서 성실과 정직을 위한 투쟁이다. 전쟁터는 건축이고, 싸움을 이끄는 주인공은 상상력이 있는 젊은 건축가, 그리고 합리주의적 현대주의(rationalist modernism)의 개척자, 하워드 로어크(Howard Roark)이다.

**구성.** 구성은 로어크가 자기의 비인습성 때문에 건축학 대학에서 퇴학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한편, 그의 영합주의 학우 피터 키팅(Peter Keating)은 일류 회사에서 아주 근사한 일자리를 얻고, 사장 가이 프랑콘(Guy Francon)에게 아첨하며, 파트너가 된다.

로어크는 결국 자기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지만, 그의 건물들은 그것들의 시대보다 빨리 왔고 그는 계산서를 지불하기 위해 돈을 새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프랑콘의 딸, 도미니크(Dominique)를 만나는데, 그녀도 역시 자기 주위의 평범함을 경멸한다. 그들은 깊은 지적 및 성적 관계를 같이 나눈다. 로어크는 점차 고객들을 얻기

시작하지만, 이것은 영향력 있는 《기치(Banner)》의 언론인 엘즈워스 투이(Ellsworth Toohey)를 자극하는데, 그는 로어크의 개인주의를 증오하는 사회주의자이다. 그는 소송을 공작하고, 로어크는 소송에서 진다.

로어크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서 행복할 수 없으므로, 도미니크는 키팅과 결혼한다. 그러나 민중을 선동하는 《기치》의 소유주 게일 와이낸드(Gail Wynand)는 그녀에게 홀딱 반하게 되어, 이혼의 대가로 키팅에게 돈을 지불하며, 그녀와 결혼한다. 자기들 둘 다를 위한 새 집을 의뢰할 생각일 때,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빌딩이 로어크에 의해 설계된 것을 발견한다. 그는 로어크의 고객이자 친구가 된다.

그렇지만 키팅은 자기의 약해 가는 경력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필요로 한다. 그는 주요 주택 계획, 코틀랜드트(Cortlandt)에서 로어크가 협력하도록 설득한다. 로어크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자기의 급진적인 설계에 따라 지어진다는 조건에서 그렇게 한다. 코틀랜드트의 성실성이 인습적인 특색들의 추가로 망쳐졌다는 것을 로어크가 차후에 발견할 때, 그는 그것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 투이와 《기치》는 대중 분노에 불을 지핀다.

그의 재판에서, 로어크는 창조성이 자존심과 독립에 어떻게 달려 있는지 법정에 설득력 있게 말한다. 그는 선봉적으로 무죄가 된다. 와이낸드는 대중에 영합하는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닫는다. 로어크는 그들[대중]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도미니크는 평범함이 극복될 수 있다(can)는 것을 보고서, 와이낸드를 떠나 로어크에게로 간다. 그러나 와이낸드는 여전히 그에게 거대한 마천루를 설계



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 건축물의 정상에 있는 로어크 및 도미니크와 함께, 소설은 영웅적으로 끝난다.

**성격 묘사.** *성격 묘사*는 다섯 명의 주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삼는다. 주인공, 하워드 로어크는 집단주의에 비해 창조적 개인주의가 더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그는 순수 예술이 개인 마음의 작용이지, 중역 회의나 위원회에 의해 창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피터 키팅은 그 반대다. 그는 랜드가 ‘두 번째 손을 쓰는 사람(second-hander)’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독립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신념들과 가치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다. 그는 오직 기회주의와 연고주의를 통해 성공한다. 그는 약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를 추구한다. 그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기 홍보 때문에 도미니크와 결혼한다. 그의 경력은 유행의 변화와 함께 등락한다. 여주인공, 도미니크 프랑콘은 자기 아버지의 회사의 평범함을 조롱한다. 오직 로어크만이 그녀와 맞먹는 사람이지만, 투이는 그의 평판을 나쁘게 했다. 낙담하여, 그녀는 자기 징벌과 비참함의 삶에 착수한다.

게일 와이낸드는 어린 시절 빈곤을 딛고 일어서서 주요 신문사를 통제하게 되었다. 로어크와 같이, 그는 지적으로 강하지만, 그의 성공은 여론에 영합하는 것—이것은 결국 그를 파멸시켜, 도미니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이다—에서 생긴다. 엘즈위스 투이는 랜드에 의한 악의 의인화이다. 그는 집합주의와 사회주의를 단호하게 촉진한다.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위대함을 증오하여, 그는 로어크 같은 개인주의자들의 자존심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는 자기가 대중들을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진정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이다.

**양식.** 《원천》은, 자기의 합리주의 메시지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양식으로 쓰인, 철학적 연애 소설이다. 등장인물들은 상이한 세계관들을 대표하고, 때때로 그것들을 설명하는 철학적 연설들을 한다.

이 접근법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들은 등장인물들을 믿을 수 없는, 일차원적인 대변자로 보았고, 어떤 현실 인간도 투이가 하는 만큼 명백하게 자기의 사악한 동기들을 말로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키팅이 하는 만큼 자신 있게 타협의 편익들을 자랑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불평한다. 다른 한편, 비평가들은 하워드 로어크의 영웅적 개인주의의 진가를 인정했는데, 이것은 현대 문학에서는 드물었고, 아직도 드물다.

많은 사람들은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를 읽은 다음 《원천》에 도달하고, 차후의 책의 프리즘을 통해 그것을 본다. 이것은 불행하다. 비록 그것의 주제가 더 제한적일지라도, 주요 도덕적 내용은 모두 거기에 있다. 그것은 랜드의 핵심 가치들과 미덕들—이성, 목적, 자존심, 독립심, 성실, 정직, 정의, 생산적임, 그리고 자부심—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킨다.

###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1957년의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랜드의 사상에 끌어들이는 책이다. 그것은 그 시대의 집합주의 분위기와 선풍적으로 불화하였다. 그러나 이미 《원천》으로부터 많은 추종자들을 축적해 놓았으므로, 그녀는 그것을 출판하는 데 문제를 겪지 않았고, 그것은 베스트셀러 목록들의 상위에 올랐다. 그것은 여전히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다.

**주제.** 그 소설의 주제는 인간의 유일한 생존 도구로서 마음의 역할이다. 부(副)주제는 합리적인 자기 이익의 도덕—윤리적 이기주의(ethical egoism)—이다.

**제재.** 그 책의 제재는 대부분의 세계가, 인간 생존이 달려 있는,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살아가는 방식과 삶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이성이 없이는 불가능해지는 방식이다.

**구성.**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는 긴 책이고, 많은 뒤얽힌 관계들과 부(副)구성들이 있지만, 대강의 구성은 매우 간단하다. 착취되고 비방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기술자들, 발명가들, 과학자들, 대학 교수들—이 파업에 들어간다. 그들의 창조성과 지식이 인정되지 않자, 세계 경제는 무너진다.

여주인공 대그니 태거트(Dagny Taggart)는 가족 소유 철도 회사를 간직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녀는 자기 오빠 제임스(James)의 방해를 받는데, 그는 무능한 연고자들과 유착 거래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경쟁자들을 방해하는 데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녀는, 또 한 사람의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자 그의 혁명적인 새로운 금속이 철도를 구할 수 있는, Hank 리어든(Hank Rearden)과 협력한다. 그들은 연인 사이가 된다.

그러나 그들의 야망은 그들이 의존하는 중요 인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방해받는다. 이들은 철도의 가장 재능 있는 기술자들과 주요 고객 엘리스 와이엇(Ellis Wyatt)을 포함하는데, 그는 혈암(頁巖 · shale rock)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방법을 개척했지만 그저

자기의 유정들에 불을 지르고 떠날 뿐이다. 또 한 사람의 고객인 프란시스코 당코니아(Francisco d'Anconia)는 어떤 이유인지 자기 자신의 사업체를 파산시키고, 그것과 함께 대그니의 철도도 거의 없앨 뻔한다.

이전의 20세기 모터 회사(Twentieth Century Motor Company)의 버려진 공장에서, 대그니와 행크는, 운송과 산업에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지만 파괴되어버린, 근본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모터의 잔존물을 발견한다. 대그니는 발명자를 추적하려고 하나 허사지만, 리어든은 정부에 의한 자기 금속의 강제 몰수와 자기 사업체를 강제적으로 분할하는 규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대그니는 그렇게 많은 주요 생산자들의 실종의 배후에 있다고 자기가 믿는 사람을 추적해서 그의 비밀 거주지까지 그를 따라간다. 그가—또한 그 모터의 발명자이기도 한—존 골트(John Galt)라는 것이 드러난다. 비밀 은신처는 그의 발명품들 중의 또 하나에 의해 세상에 안 보이게 되어 있다. 대그니는 골트와 사랑에 빠지지만, 골트, 와이엇, 당코니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부한 세계를 포기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온다. 경제적 혼란의 악화에 직면하여, 정부가 철도를 국유화하고 제강소와 기타 산업들을 몰수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녀는 발견한다.

경제적 혼란은 계속되고, 국가수반은 전 국민에 연설할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의 방송은 존 골트의 목소리에 의해 차단되고, 그가 대신 전 국민에 연설한다. 그는 마음에 따라 사는(live by the mind) 사람들이 지금 파업 중이라고 설명하고, 객관주의 원리들(Objectivist principles)에 관한 긴 진술을 가지고 이것을 정당화한다. 자기들 자신

의 삶을 살고 자기들의 노력의 과실을 향유할 자기들의 권리를 사회가 인정할 때까지 자기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골트가 약탈자들의 정권에 의해 사로잡혀 막 고문당하려고 할 때, 대그니는 마침내 파업자들에 동참한다. 그녀와 골트는 탈출하여 은신처로 돌아온다. 그 정권은 결국 무너지고, 마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성격 묘사.** 대그니 태거트는, 그 야망이 훌륭한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인, 재능 있는 기술자이자 여성 사업가이다. 행크 리어든은 혁명적인 새 금속을 생산하는 발명가이자 금속공학자이다. 마찬가지로, 엘리스 와이엇은 독립적인 마음을 가진 석유 시굴자이면서 또한 이례적인 지질학자이자 화학자이기도 하다. 프란시스코 당코니아는 창조적인 발명가, 사업가, 그리고 사상가이다. (세계의 상태를 고려하여, 자기는 지구를 어깨에 메고 가는 신화의 거인 아틀라스(Atlas)에게 그것을 떨어버리라고 권하겠다고 말하면서, 소설에 그 제목을 준 사람은 그이다.) 그리고 존 골트는 기술자일 뿐만 아니라 과학자, 발명가, 그리고 철학자이기도 하다.

구성과 이 등장인물들은, 인간 진보가 발명들과 획기적인 발견들에 달려 있고, 이것들은 그 다음에 지식, 마음, 그리고 지력(知力)을 필요로 한다는, 랜드의 요점을 해설한다.

이 주인공들은 다양한 배열의 적대자 역들에 직면한다. 리어든의 아내 릴리언(Lillian)이 있는데, 그녀는 끊임없이 그의 평판을 몰래 손상시킨다. 연고 자본가 오렌 보일(Orrin Boyle)이 있는데, 리어든의 경쟁자다. 플로이드 페리스(Floyd Ferris)가 있는데,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과학이 보여준다고 단언하는 국가 과학

자다. 로버트 스타들러(Robert Stadler) 박사가 있는데, 그는 자기의 탁월한 발견들이, 그리고 평판이, 독재적 정부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웨슬리 무치(Wesley Mouch)가 있는데, 중앙 계획자로 바뀐 믿을 수 없는 로비스트다. 이런 등장인물들은 마음과 지력이 고의로 방해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의 실례가 된다.

**양식.** 다시 한 번, 이 책은 철학적 연애 소설이지만, 그것은 서사시적 무용담(epic saga)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등장인물들에 더 큰 다양성이 있는데, 특히 적대자 역들이 그러하다. 《원천》에서와 같이, 여주인공의 애정 생활이 복잡하지만, 애정(heart)뿐만 아니라, 이지(理智·mind)에 따라서 움직인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에서 적대자 역들은 창조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람들에게서 빼앗거나 달라붙어서 착취함으로써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강압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이성—인간의 본질적인 생존 도구—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파멸시키거나 잃게 되면, 그들은 견뎌낼 수 없다. 오직 이성을 적용함으로써만이 우리가 세계를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 형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발전들—그것들이 그 이야기의 금속, 공학, 혹은 추출 및 처리 기술이건, 아니면 농업, 의학,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이건 상관없이—을 이룰 수 있다고 랜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창조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생존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한다. 그들의 획기적인 발견들은 진보를 추진시킨다. 골트의 파업은 그러한 마음이 강압 아래서 작동될 수 없다는 것, 즉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새로운 기술들

을 창조하기 위해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는 독립적으로 행동할 개인들의 자유가 인간성의 전체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그니가 혁명적인 모터의 발명자를 찾을 때 전직 고용인이 이야기한 20세기 모터 회사의 몰락은 이타주의와 평등주의의 해악들에 관한 랜드의 견해들의 강력한 우화이다. 그것은 설립자의 후계자들이 그것에, 각 고용인이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편익을 얻을 것이라는, 새로운 원칙들을 부여할 때까지는 성공적인 회사였다고, 우리는 이야기 듣는다.

그러나 그 효과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수록,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능력이 모자라는(less able)’ 동료들의 저녁이나, 그들의 아이의 홍역이나, 그들의 아내의 수술, 그들의 조카의 학교 교육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그것에 대해 베풀어야 할 아무것도 없는데도 더 많이 일하도록 기대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필요(needs)’가 실제로 무엇일지 누가 결정할까? 자동차? 요트? 그리고 누가 사람들의 ‘능력(abilities)’을 측정할까? 그것은 공개회의들에서 투표수로 귀착되었다.

자기들이 모두 거지가 되었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깨달은 것은 이것들에서였다고, 전직 고용인은 자세히 이야기한다. 자기들의 ‘필요(needs)’가 그밖에 모든 사람의 것보다 더 크지 않으면 아무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회의들은 구걸 경연 대회들(begging contests)이 되었다. 한편, 회사의 산출물은 떨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부족량을 채우기 위해 시간외로 일할까? 물론, 그것은 ‘더 능력 있는(more able)’ 것으로 판단된 사람들이었다. 그 결과는, 자기들

이 지명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속도를 늦추고 그밖에 모든 사람보다 덜 생산적이리라 굳게 결심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회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자존심도 파괴했다.

그리고 그것이 집합주의 이데올로기의 논리라고, 랜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 12 랜드의 비판자들

### 랜드의 철학적 접근법

현대 철학은 현실이 접근 불가능하거나, 알 수 없거나, 환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랜드는 한탄한다. 그래서 자기들을 안내할 확고한 어떤 것도 없이, 사람들은 불가지론, 신비주의, 그리고 자기 탐닉에 부지중에 빠진다. 우리의 뿌리 없는 현대 문화는 그 사실의 충분한 증명이다.

그러나 많은 비판자들은 랜드의 대안으로 감명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객관주의 인식론 개론(Introduction to Objectivist Epistemology)》—개념 형성에 관한 짧은 논저—을 제외하고는 그녀의 견해들이 세목, 반론, 혹은 증거에서 설득력 있지 않은 개괄적인 논문들과 강연들에서만 제시되었다고 언급한다. 만약 그녀가 대학에서 전문적인 철학자였더라면, 그녀의 견해들은 학리적인 논쟁의 용광로에서 검증되었을지 모른다. 대신 숭배자들의 일파가 그저 그녀의 견해들에 탐닉하고 보강하기만 했다.

비판자들은 또한 랜드가 사물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회의론자들이 자기들을 안내할 객관적인 진실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그녀가 암시하듯이, 자의적인 변덕의 문제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

은 완전히 일관성 있게, 원칙에 입각한 방식들로,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자기들의 최상의 추측들(guesses)에 근거하여 행동할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면하는 도덕적 선택들은 좀처럼 삶이나 죽음이나와 같이 뚜렷하지 않다. 대부분은 생존에 명백한 관련이 거의 없다. 그것들은 원하지 않는 요구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하느냐 여부 혹은 낯선 사람이 떨어뜨린 돈을 돌려주느냐 여부 같은 것들이다.

덧붙여서, 많은 독자들은 랜드의 과장 어구(예로서, ‘높은 현대 철학이다. 살균제는 이성이다’)와 독설(특히 칸트에 대해서 심한데, 현대 예술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해악에 대해 그녀는 그를 비난한다)에 주춤한다. 그녀는 심지어 중요한 쟁점들에 관해 (애덤 스미스가 자본주의에 관해 그렇게 했고, 심지어 칸트도 자유 의지에 관해 그렇게 했듯이) 널리 자기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마찰을 일으킨다.

랜드는 또한 자기의 반대자들에서 가장 나쁜 동기들을 추정하기도 하여, 그들을 약하거나, 속거나, 불합리하거나, 비도덕적이라고 낙인 찍는다. 그녀는 이타적인 사회들이 ‘기생충 같은 인간들(parasites), 거지들(moochers), 약탈자들(looters), 짐승 같은 인간들(brutes), 그리고 흉한들(thugs)’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설계된다고 쓴다—이것은 자기들의 동기들이 유덕하다고 믿는 의혹을 품은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지 않은 언어이다.

## 현실과 지식에 관한 랜드의 견해

랜드는 상식적인 기초에—즉,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들이 우

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현실과 지식에 관한 자기의 견해의 기반을 둔다. 우리의 두뇌는 우리에게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만, 오직 우리의 이성을 적용하기로 선택함으로써만이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사물들을 그것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라 분류하는 개념들을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에 뿌리박혀 있고 객관적인 방법들에 의해 도달되는, 좋은 개념들이어야 한다. 우리는 주관적이게 되는 것—이것은 랜드에게 자의적이게(arbitrary) 되는 것을 의미한다—을 경계해야 한다. A는 A이다. 사물은 그것인 것(what it is)이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두는 이 지식 이론이 진지하게 생각되어야 할지라도, 많은 비판자들은 이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랜드의 개념들이 인간 마음의 구성 개념들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인간 마음은 그 일에 신뢰할 수 있는 도구인가? 그것은 그 자체, 진화의 산물로서, 세계에 의해 형성되고 세계의 일부이다. 그것은 어떻게 현실 위로 우뚝 솟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일부가 되는 어떤 것에 관한 객관적인 견해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다른 비판자들은 랜드의 견해가 그녀의 세 가지 기본적인 ‘공리(axioms)’—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본질 혹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안전하게 놓여 있다는 것에 의혹을 품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잘못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꿈의 세계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공리들이 아주 진부하여 거의 어떤 것도 그것들에 기반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매우 다른 결론들에 도달할 것이다. 사물들이 존재하지 않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논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물들이 존재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자기의 공리들에 도전할 수 없다고 랜드가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즉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일관성이 있지만 환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억지스러운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적어도 우리의 경험들의 상이한 해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게다가, **존재가 존재한다(existence exists)**라는 주문(呪文)은 주관 주의자들을 패배시키지 못하는데, 이들은 좀처럼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세계에 **객관적으로 접근할(objective access)** 수 없고, 그래서 존재에 관한 우리의 ‘지식(knowledge)’이 박약하다고 단언한다. 우리가 가진 전부는 작업 이론들(working theories)—추측들(guesses)—이고, 아무리 잘 확립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그것들과 모순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물론 랜드는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개념들을 형성할지 모른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때, 만약 어떤 개념이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나 증거로 전복될 수 있다면, 그녀의 ‘지식(knowledge)’이 어떻게 회의론자들의 이론들보다 좀 더 확고할까?

더군다나, 랜드는 우리의 개념들이 원(原) 지각에서 점점 더 멀어짐에 따라 그것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신하기가 더 어렵다고 인정한다

—그것들을 지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부지런히 조사하고 그것들을 일관성과 무(無)모순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그것들이 신뢰될 수 있다고 그녀가 믿지만. 그러나 고도로 추상적인 개념들과 관계들—경제와 같은 것—은 그저 너무나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어떤 인간 마음도 다룰 수 없을 뿐이라고 비판자들은 주장한다. 그러한 것들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의 불가피한 지식 결여는 사회를 재설계하려거나 경제를 계획하려는 시도들이 변함없이 실패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 도덕에 관한 랜드의 견해

랜드의 도덕 및 정치 사상은 그녀가 사물들의 객관적인 본질이라고 보는 것에 근거해 있다. 우리는 인간 본성 그 자체로부터 무슨 행동들이 옳은지 추론해 낼 수 있다. 도덕은 *사실들(facts)*에 달려 있지, 감정에 달려 있지 않다. 즉 도덕은 객관적이다.

다시, 우리가 도덕 원칙들을 객관적인 사실들에 의거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은 심오한데, 하기가 *무엇인가(what is)*로부터 *무엇이어야 하는가(what ought to be)*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수세기 동안 철학자들을 곤란하게 했던 유명한 *존재 당위(is-ought)* 질문—를 랜드가 정말로 보여주는지 여부에 대해 비판자들이 의심하긴 한다.

그녀의 대답은 가치가 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심원한 필요—자기 보존의 필요—에 이바지한다. 가

치들을 가지는 것은 우리를 살아 있게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에 이바지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감정, 의견, 전통, 혹은 당국의 강권은 잊어버려라. 어느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것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러나 누구의(whose) 생존인가? 랜드는 ‘사람의 생명(man’s life)’에 관하여 이야기하지만, 비판자들은 ‘사람(man)’이 여러 가지들, 즉 우리 자신의 종, 일반 인간, 인류를 구성하는 개인들, 혹은 어떤 인간 개인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 생존(human survival)은 우리 각각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의 도덕적 기준으로서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랜드는 인간(human) 생존을 행동을 취하고 있는 개인(individual)의 생존으로 잘못 혼동—하고 그 결과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기주의를 촉진—한다고, 비판자들은 말한다.

비판자들은 또한 그녀가 자기의 개인주의 도덕과 정치학의 기반을 두는 인간 본성을 랜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의문으로 여기기도 한다. 우리는 사회적 종이고, 동물 사회와 유전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집단(group)의 생존이지, 개인의 생존이 아님을 암시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일반 선(general good)을 위해 이타적으로 행동하도록, 그리고—많은 다른 종들이 하는 것 같이—심지어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모두가 우리 종의 다른 구성원들과 유전적 유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이타주의나 자기희생인 것 같이 보이는(looks)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공

유하는 유전자들의 생존을 촉진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랜드가 외관상 자기희생적 행동들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인데, 이것은—그녀에게는 보이지 않지만—사실상 개인의 바로 그 본질을 촉진한다.

그러나 어쨌든, 삶을 촉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우리의 생존을 돕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알아내는 데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할지 모르고, 그것에 관해 진정한 의견 불일치가 있을지 모른다. 랜드가 그렇도록 유해하다고 믿는 소련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고 아직도 많은 옹호자들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복지 국가들에서의 사람들이 그 전 어느 때보다도 더 오래 살고 있다는 점도 또한 기억하려고, 비판자들은 말한다. 랜드 자신의 생존 기준에 따라서도, 그녀가 기생적이라고 조롱하는 사회들과 생활양식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다.

## 정치학에 관한 랜드의 견해

랜드의 정치 철학은 그녀의 윤리학만큼 혁신적이다. 정치 과정을 제한하고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인 권리들은 세계, 인간 본성, 그리고 도덕의 원칙들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 달려 있다. 그것들은 생존에 좋은 것으로부터 직접 유래한다.

그러나 권리들을 생존에 의거시키는 것은 권리들이 그 자체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그것들이 유용하기 때문만으로 정당화된다고 암시한다고, 반대자들은 말한다. 그렇지만 랜드 자신이 주장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마약 사용과 상대를 가리지 않는 성행위가 유용하지 않지만

—참으로, 해롭지만—우리가 그래도 그것들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쪽인가?

물론 랜드는—무슨 종류든—상당한 생활양식들을 실험할 권리 그 자체가 생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도덕 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예를 들면, 그들이 담배 피우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혹은 그들에게 건강 보험이나 연금 계획들에 불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느 한 쪽 견해를 생존을 더 촉진시키는 것으로 정당화할 무슨 증거가 있는가? 누가 옳은지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인간 이성에 대한 그러한 한계를 강조하면서, 랜드의 보수주의적인 비판자들은 그녀가 종교와 전통을 가치 없는 것으로 목살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다고 말한다.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이렇게 멀리 데리고 왔다. 그 이유는 종교와 전통 각각이 획득된 지혜—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지식으로, 수세기에 걸쳐 검증되고 축적되었으며,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심지어 이해할 필요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종의 생존을 정말 촉진하는 규칙들에 체화되어 있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수주의자들은 말한다.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irrational)’ 권위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무시하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관습과 예의바름의, 인내·관대 및 주고받기의, 사물들을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의, 상호 신뢰와 협동을 촉진하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작은 자기희생들의, 그 모든 작은 행위들을 생각해 보라. 이 모든 것은, 그것이 창설하는 신뢰 사회로부터 우리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기주의(egoism)*와 잘 맞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설득력이 없다. 우리가 그것에 관해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한다. 실체 없는 ‘이성(reason)’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본질이다. 아마도, 이타주의가 우리의 본성의 일부로서 우리와 함께 진화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타주의가 사실상 우리의 집단 복지를—비록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어떤 방식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정말 촉진시키기 때문이라고, 랜드의 비판자들은 말한다.

## 자본주의에 관한 랜드의 견해

랜드의 자본주의 옹호도 다시 그녀의 윤리학과 정치학만큼 혁신적이다. 자본주의는 *사회(social)* 체제—물질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술, 문학, 그리고 기타 비물질적인 것들도 역시 소중히 여기는 사회 형태—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것이 물질적 부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저 ‘필요 악(necessary evil)’으로서 참아야 할 뿐인 어떤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유일하게 *도덕적인(moral)* 사회 체제, 강제에 기반을 두지 않는 유일한 체제라고, 그녀는 역설한다. 자본주의에서는, 당신은 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얻지, 그들에게서 빼앗음으로써 얻지 않는다. 자본가의 자기 이익과 이윤은 악이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경쟁도 역시, 인간 삶이 달려 있는, 끊임없는 학습 과정—더 큰

가치를 더 적은 비용에 창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움직인다.

자본주의는 자기의 비판자들을 가지고 있지만, 랜드의 자본주의 기술(記述)도 마찬가지다. 우선, 자본주의는—담배와 같이—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재화들을 매매할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것은 랜드의 궁극적인 생명 기준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자본주의가 그 자체 도덕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가 최상의 결과들을 낳기 때문에 그것이 지지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 랜드가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비판자들은 말한다. 정치 및 경제 체제들을 판단하는 데서, 그녀는—특히, 소련에 비한 미국의 경제적 우월을 강조하면서—결과들에 상당한 비중을 부여한다. 그러나 합리적 도덕적 가치들로부터, 개인의 행동들을 거치고, 그 다음 사회 제도들을 거쳐, 그러한 궁극적인 경제적 결과들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는 데는 긴 연쇄의 증거와 논증이 필요하다. 개인의 자유는 하나의 가치로서 옹호할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든 그것이 좋고 번영하는 사회를 낳을 것이라고 정말로 보장할 수 있을까?

## 예술과 문학에 관한 랜드의 견해

랜드의 미학은 또 하나의 혁신이고, 예술을 평가하는 잠재적으로 유용한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진정한 예술은 중요하지만 추상적인 개념들에 물리적 형태를 주고 이로 인해 우리가 그것들을 직접 숙고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나 예술과 문학의 합리적 목적에 대한 그녀의 강조는, 비판자들의 눈에는, —예술로서 분류할 사람들이 거

의 없을 미키 스피릴레인(Mickey Spillane)의 미국 범죄 스릴러들 (crime thrillers)에 대한 그녀의 찬사는 말할 것도 없고—모든 다른 가능한 운동들을 제외한 낭만주의에 대한 그녀의 아낌없는 찬사에 의해 기반이 약화된다.

랜드는 선전 활동(propaganda)이 예술이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비판자들은 선전 활동과, 예술이 제공할 수 있다고 그녀가 믿는 종류의, 도덕 교육 사이에는 명백한 경계가 없다고 지적한다. 참으로 소련과 나치의 조상(彫像), 조각, 음악, 그리고 건축은 그녀의 지침들과 완전히 양립할 수 있는 것 같다.

영웅들이 영감을 줄지 모르고, 낭만주의가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쪽이든 끊어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것 (unbroken diet)은 빨리 우리를 지루하게 할 것이라고, 반대자들은 말한다. 불완전한(imperfect) 인간들이 어떻게 (그리고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게) 자기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문학과 예술도 역시 성공적일 수—있고 아마도 더 적절하고 흥미를 끌 수—있다.

## 랜드의 소설

정치 문화들은 좀처럼 소설들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데, 하기야 랜드 는 용케 그것을 해냈다. 자기의 미학 원칙들과 일치하여, 그녀의 소설 들은 낭만주의적이다. 그것들은 개인들을 영웅적인 것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여주고, 사업, 기업심, 그리고 자유가 달성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그녀의 견해는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랜드는 자기가 소설들을 쓰기 위해 자기의 철학을 고안한다고 말했

는데, 그렇지만 그녀의 소설들은 확실히 자기의 철학의 전달 수단인 것 같이 더 보인다. 이것은 문학으로서 그것들의 결점들의 다수를 설명한다고, 비평가들은 말한다. 그것들의 구성들은 있음직하지 않다. 등장인물들은 자기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너무 긴 연설을 한다. (존 골트의 연설은 3시간 계속될 것인 반면, 하워드 로어크의 법정 연설은 할리우드 영화 역사에서 가장 긴 연설이 되었다.) 또한 다른 점들에서도, 등장인물들은, 종종 터무니없이 사악하거나 영웅적인, 만화 견해들(caricature views)의 그저 대변인들인 것 같다. 도덕적으로 회색인 사람들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다. 참으로, 랜드는 사람들이 즉시 착한 친구들과 나쁜 녀석들을 알아낼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결코 탐정 소설들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식의 면에서, 서평가들은 랜드의 책들의 길이와—그들이 또한 상당히 ‘좌뇌적(left-brain)’이라고 말하기도 하는—그녀의 대화에서의 반복에 관해 불평했다. 랜드는 우리에게 사물들에서 무엇을 만들지를 이야기해 주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아내게 하지 않는다. 그녀의 어조는 미묘하지 않다. 즉 적대자 역들은 약탈자들, 기생충 같은 사람들, 아침꾼들, 혹은 악한들이다. 주인공들은 강하고, 지조가 있고, 단호하다.

랜드의 소설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 보장되는 일단의 목적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인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에 의해 세계가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한 그림인가? 기업심과 발명이 실제로 이와 같이 작동하는가? 심지어는 ‘대발명의(breakthrough)’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조차도 보통은, 많은 사람들의 작업과 아이디어들을 포함하여, 단편적인 개선의 과정의 결과라

고, 반대자들은 말한다.

랜드의 소설들은, 비판자들이 말하듯이, 삶의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the)’ 해답을 찾고 있는 감수성이 예민한,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영합하는 서투르고 고압적인 책들일지 모른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여전히 놀랄 만큼 인기가 있—고 대단히 영향력이 있—다.

## 아인 랜드의 유산

### *랜드의 지적 공헌*

비판자들이 랜드의 이야기하기(story-telling)에 관해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이, 그녀의 소설들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저 이야기만을 넘는 것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또한 삶, 개인적 도덕, 정치, 그리고 경제에 관해 새로운 견해들—모두가 가장 견고한 기초, 이성의 기초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그녀는 역설한다—을 가진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도 얻고 있다.

종교적 신념의 권위라고 생각되는 것에, 전통이나 민주주의에, 대중의 일반적인 승인에, 혹은 권력자들의 말에 뿌리박혀 있는 도덕들과 정치적 비전들은 양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견해의 문제로 요약된다. 즉 하나를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 대조적으로, 랜드는, 옳든 그르든, 자기 자신의 결론들이 현실의 견고한 사실들에 뿌리박혀 있다고 역설한다. 만약 우리가 객관적인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가지는 것과

꼭 같이, 우리가 도덕적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견해들을 소설을 통해 진술하려는 그녀의 선택은 그것들을 많은 학리적인 에세이들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든다.

랜드는 또한 그녀가 자기의 접근법과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결론들—그 결론들이 아무리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을 옹호하는 강건성(robustness) 때문에 독자들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녀는 이타주의가 어째서 비도덕적인지—그것이 성공을 죄악으로 만들고 게으름을 미덕으로 만든다는 것, 그것이 파괴적이고 반생명적이라는 것—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그것을 넘어, 그녀는 적극적으로 그 반대를, 즉, 이기주의나 합리적 자기 이익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 그것이 강제의 해악을 최소화하고 우리 모두에게 최상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단언한다. 그리고 다만 독자들을 고무하기 위할 뿐으로, 그녀는 이것을 ‘이기심의 미덕(the virtue of selfishness)’이라고 부른다.

똑같이 강건하게, 경제적 및 정치적 진실들도 또한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현실과 도덕의 사실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그녀는 단언한다. 그녀는 개인의 권리들에 기초하여 세워진 정치 체제가 어째서 그 자체 좋은 것이고, 강제를 줄이며, (부수적으로지만 다행히) 평화와 풍요를 낳는지를 설명한다. 그녀의 자유 옹호 논거, 즉, 인간들이 이성적 동물이라는 것, 만약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개선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세계와 상호 작용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자유가 인간 삶에 본질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혁신적이다. 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변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에서 생기는 보상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랜드의 소설은 자기의 독자들 안에 있는 영웅을 끌어

낸다. 만약 당신이 초점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그녀는 암시한다. 그러나 자존심은 오직 진정한 도덕적 자질과 진정한 인격에만 기반을 둘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는, 안전을 요구하는 대신에 기회를 붙잡고, 당신의 자유나 존엄성을 누구에게도 팔아버리지 않고, 당신의 업적과 당신의 정신적 및 육체적 노력의 과실을 방심하지 않고 방어하고, 부탁을 하지도 희생하도록 기대되지도 않고, 같은 방식으로 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립을 권유한다. 그것은 많은 독자들을 감동시켰고 많은 삶들을 바꾸었던 영웅적인 비전이다.

### *합의에 거슬러서*

논쟁을 자초하는 모든 사람들 같이, 랜드는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든다. 몇몇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여기는 것은 그녀의 견해들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한 쟁점에 관해 얼마나 많은 견해들이 있건, 그녀에게는 하나는 옳고 그 나머지는 그르다고, 비판자들은 말한다. 절충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확실성은 ‘이성에 대한 반역(revolt against reason)’인 반면, ‘도덕적 회색(moral grayness)’은 ‘도덕적 가치들에 대한 반역(revolt against moral values)’이자 ‘현실의 절대성(absolutism of reality)’에 대한 반역이다.

그러한 절대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랜드의 견해들을 하나의 철학보다는 하나의 종교 같이 보게 된다. 그녀의 추종자들의 몇몇은 그런 인상을 보강했는데, 마치 그녀의 방법들이, 실수의 가능성이 없이,

반박의 여지가 없는 진실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종교들, 이데올로기들, 권위들, 그리고 심지어는 과학들과 철학들조차도 일정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때, 그 결과는 종종 억압과 비극인데, 왜냐하면 불합리하거나 사악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진(眞)이고 선(善)인 것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랜드는 매우 단호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세계관의 비판은 그녀에 대한 인격적인 비판을 의미하지 않는다—그리고 역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녀의 체계의 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아무리 이음매 없게 되어 있건 상관없이, 반드시 그것 모두에 대한 공격인 것은 아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그것이 지지자들과 비판자들 양쪽 다에 붙어넣었던 열정을 넘어서 보라, 그러면 새롭고, 중요하고, 심오하고, 논쟁할 가치가 있는 많은 것이 랜드에 있다.

##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하고 있는가?

그러나 랜드의 주요 영향력은 철학보다는 정치학과 경제학에 있었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를 쓴 그녀의 목적은 그것이 예언적이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의 현재 상태는 거의 소설을 넘어서는 것 같다. 그 소설에서 언급된 모든 터무니없고 해로운 규제들의 약간의 변형들이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제자리에 있다. 국가 소유권은 덜 유행할지 모르지만, 국가가 보조금, 조세, 규제, 그리고 위협을 통해 기업들을 통제할(control) 수 있을 때 국가 소유권(ownership)은 불필요하다.

선진 경제들에서 막대한 개입 증가는 우리가 경제학의 문제뿐만 아



나라 철학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랜드의 논점을 정말 보강한다.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한 유일한 제한이 다수과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이유는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유한한 국가의 역할도, 과반수 규칙의 강제적인 본질도, 그리고 그 국가 강제가 어떻게 소수과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의 토대를 침식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이해(理解)의 결여는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에서 서술된 것의 그렇게 많은 부분이 현실이 된 이유일 것이다. 자본주의와 기업심은 통제들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 혼합 경제는, 납세자들로부터 강압으로 빼앗은 규제적 은혜와 보조금을 얻기 위해 기업들과 이익 집단들이 선거 운동하는,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가 되었다. 비록 명목상으로는 자유롭고 사적인 소유지만, 회사들은 국가에 의해 속박되고 지도된다.

랜드의 해결책들은 급진적이다. 그녀는 강건하게 어떠한 강제력 사용도 거부하고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옹호한다. 그리고 철학은 이런 정책들[해결책들]을 정당화하기(justify) 위해 꾸며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결론들이 그녀의 철학으로부터 나온다. 그녀는 부 창출에 집중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믿기로 인간들이, 그들의 본성상,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는 세계를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있는 부 창출자들과 기타 독립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저 파업에 들어가서 세계를 그것에[파업에] 맡겨버리는 시점을 상상한다. 그러나 아직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하고 있는(shrugging) 조짐은 거의 없다. 아마도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지배적인

도덕적 및 정치적 문화에 흡수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들은 스스로 철학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지배적인 철학적 문화를 이해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것과 싸울 수 있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다고, 렌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개인들은 정말로 역사의 추이를 바꿀 수 있다. 아마도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에 있는 것—그녀는 그것이 예언(prophecy)이 아니라 허구(fiction)라고 인정했다—과 정확하게 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개인들은 사건들을 심원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다.

## 13 랜드에 의한 그리고 랜드에 관한 인용문들

### 자기 자신에 관하여

나는 사람들—즉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통합되고,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삶의 견해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아인 랜드와의 《플레이보이》 인터뷰

나는 겁쟁이가 될 만큼 충분히 용감하지 않다. 나는 그 결과들을 너무 명백하게 본다.

현존의 권력 기구와 싸우는 그녀의 용기를 칭찬받았을 때:

레너드 페이코프, 《객관주의: 아인 랜드의 철학》에 의해 인용됨

### 현실과 지식에 관하여

[객관주의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공리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어떤 지각(知覺)하는 사람과도 혹은 그 지각하는 사람의 감정, 느낌, 소망, 희망, 혹은 두려움과도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주의는 이성이 현실을 지각하는 사람의 유일한 수단이고 행동에 대한 그의 유일한 안내자라고 주장한다. 이성이라는 말로, 나는 사람의 감각들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를 식별하고 통

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인 랜드와의 《플레이보이》 인터뷰

*이성의 사용에 관하여*

당신은 (철학적인 의미에서) 나의 개인적인 삶의 운동(*crusade in life*) 이 단지 집합주의와 싸우는 것도, 이타주의와 싸우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아는가? 이것들은 원인이 아니라 그저 결과, 효과일 뿐이다. 나는 이 세상의 악의 진정한 원인, 진정한 뿌리—불합리한 것들—를 찾아 나간다.

제니퍼 번스, 《시장의 여신: 아인 랜드와 미국 우파》에서 인용된  
《아인 랜드의 편지들》

동물들은 자신들을 자기들의 배경에 적응시킴으로써 생존하는 반면에, 사람은 자기 배경을 자신에게 적응시킴으로써 생존한다.

《신지식인을 위하여》

자신이 모순에 직면해 있다고 당신이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전제들을 점검하라. 당신은 그것들 중 하나가 그른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모든 쟁점에는 두 면이 있다. 한 면이 옳고 다른 면이 그르지만, 한 생각, 즉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쁜 생각들은 없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중도는 항상 나쁘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 윤리학에 관하여

서양 문화의 모든 측면은 재탄생의 전제 조건으로서 새로운 윤리 규범—합리적 윤리학—을 필요로 한다.

《낭만주의 선언》 안의 ‘낭만주의란 무엇인가?’

사람의 독립적인 자아에서 생기는 그 모든 것은 좋다. 사람들에게 대한 사람의 의존에서 생기는 그 모든 것은 나쁘다.

《원천》

## 가치에 관하여

당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배워라, 즉, 당신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 싸워라.

《신지식인을 위하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도 혹은 누구도 소중하게 여길 수 없다.

《이기심의 미덕》

## 이타주의에 관하여

희생이 있는 곳에서는, 제물(祭物)을 모으는 어떤 사람이 있다. 서비스가 있는 곳에서는, 서비스 받는 어떤 사람이 있다. 당신에게 희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노예와 주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될 생각이다.

《원천》

모든 쾌락주의 및 이타주의 교리들의 도덕적인 서로 잡아먹기(moral cannibalism)는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손해를 필요로 한다는 전제에 있다.

《이기심의 미덕》

도덕의 목적은 당신에게, 고통 받고 죽을 것이 아니라, 즐겁게 지내고 살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호하느라 죽는 것은 자기희생이 아니다. 만약 가치가 충분히 크다면, 당신은 그것 없이 존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인 랜드와의 《플레이보이》 인터뷰

## 자기 이익/이기주의에 관하여

나는, 나의 삶과 그것에 대한 나의 사랑을 결코, 내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위해 살 것을 요구하지도, 앓을 것을 맹세합니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개인주의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의 삶도 운영하지 않겠—고 어떤 사람도 나의 것을 운영하게 하지도 않겠—다. 나는 지배하지도 않겠고 지배당하지도 않겠다. 나는 주인이 되지도 않겠고 노예가 되지도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에게도 희생시키지 않겠—고 어떤 사람도 나 자신에게 희생시키지 않겠—다.

《미국주의의 교과서》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들을 선택할 것이지만, 노예들도 주인들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직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같은 친구들만 선택할 것이고, 그들을 나는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지만,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복종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손을 잡을 것이고, 혹은 우리가 그렇게 욕구할 때 혼자 걸을 것이다.

《앤섬》

이기심은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일들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누구든,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편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해도 좋다. 이것은 비도덕적이지 않고, 최고의 도덕이다.

《아인 랜드의 일지들》

### 미덕에 관하여

건물은 사람과 꼭 같이 성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꼭 같이 드물게.

《원천》

목적이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의 느낌이나 정체불명의 충동에 휘둘러 떠돌면서 어떤 악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당신은 목적—생산적인 목적—을 가져야만 한다.

아인 랜드와의 《플레이보이》 인터뷰

합리성(Rationality)의 미덕은 이성을 자기의 유일한 지식 원천, 자기의 유일한 가치 판단 그리고 자기의 유일한 행동 지침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 . . 그것은 자기 자신의 판단들을 형성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작용에 따라 살 책임을 누구든 받아들이는 것(이것은 독립(Independence)의 미덕이다)을 의미한다. 그것은 누구든 자기의 신념들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이나 소망들에 결코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것은 성실(Integrity)의 미덕이다), 누구든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결코 날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것은



정직(Honesty)의 미덕이다), 누구든, 물질에서도 정신에서도, 벌지 않은 것들과 자격이 없는 것들을 결코 추구하거나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것은 정의(Justice)의 미덕이다)을 의미한다.

《이기심의 미덕》 안의 ‘객관주의 윤리학’

### 행복에 관하여

쾌락주의(hedonism)는 선이란 당신에게 쾌락을 주는 무엇이든지라고, 그러므로, 쾌락이 도덕의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객관주의(objectivism)는 선이란 합리적인 가치 기준들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인 랜드와의 《플레이보이》 인터뷰

당신의 행복의 달성은 당신의 삶의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고, 고통이나 분별없는 자기 탐닉이 아니라, 그 행복은 당신의 도덕적 성실의 증거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들의 달성에 대한 당신의 충실의 증거이고 결과이기 때문이다.

《신지식인을 위하여》

행복은 자기의 가치들의 달성에서 생기는 의식 상태이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 감정에 관하여

당신이 느끼는 것은 사실들에 관해 당신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에게 단지 사실들에 관한 당신의 추정치에 관해 무언가 말해줄 뿐이다. 감정들은 당신의 가치 판단들의 결과이다. 그것들은 당신의 기본적인 전제들에 의해 야기되는데, 후자를 당신은 의식적으로나 잠재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고, 후자는 옳거나 그렇지 모른다.

아인 랜드와의 《플레이보이》 인터뷰

## 정치학과 경제학에 관하여

### 개인의 권리들에 관하여

개인의 권리들은 사회를 도덕 법칙에 종속시키는 수단이다.

《이기심의 미덕》

개인의 권리들은 대중 투표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다수파는 소수파의 권리들을 투표로 빼앗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권리들의 정치적 기능은 바로 다수파에 의한 압제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소수파는 개인이다).

《이기심의 미덕》

사람의 권리들은 오직 물리적 강압의 사용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

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그의 생명을 빼앗거나, 그를 노예로 만들거나, 그에게서 물건을 빼앗거나, 그가 자기 자신의 목표들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가 자기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거슬러서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오직 물리적 강압에 의해서뿐이다.

《이기심의 미덕》

크건 작건 어떤 집단이나 집합체도 그저 다수의 개인들일 뿐이다. 집단은 자기의 개별 구성원들의 권리들 외에는 권리들을 가질 수 없다.

《이기심의 미덕》

### *재산권과 창조성에 관하여*

사람이 자기의 육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꼭 같이, 자기의 권리들을 현실로 바꾸고, 생각하고, 일하고, 결과들을 간직할 권리, 즉 재산의 권리가 없이는 어떤 권리들도 존재할 수 없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창조자의 기본적인 필요는 독립이다. 추론하는 마음은 어떤 형태의 강압 아래서도 작동할 수 없다. 그것은 억제될 수도, 희생될 수도, 어떤 고려 사항에든 전혀 종속될 수도 없다. 그것은 기능에서 그리고 동기에서 완전한 독립을 요구한다. 창조자에게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은 부차적이다.

《원천》

창조자의 관심은 자연의 정복이다. 기생하는 사람의 관심은 사람들의 정복이다.

《원천》

만약 개개 사람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강압의 사용을 개시하는 어떤 사회 체제든 어떤 사람이 제안하거나 지지한다면, 그가 평화의 옹호자로 자세를 취하게 하지 마라.

《신지식인을 위하여》

### 국가의 역할에 관하여

잠재적으로, 정부는 사람의 권리들에 대한 가장 위험한 위협이다. 그것은 법적으로 무장 해제된 희생자들에 대한 물리적 강압의 사용에 대해 법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이기심의 미덕》

사람들이 서로를 다룰 수 있는 오직 두 가지 수단만 있는데, 총이나 논리나다. 강압이나 설득이나다. 자기들이 논리를 수단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총에 호소했다.

《철학: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

정부의 유일하게 적합한 기능들은 당신을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치안, 당신을 외국 침입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대, 그리고 당신의 재산과 계약들을 다른 사람들에 의한 침해나 사기로부터 보호

하고 분쟁들을 합리적 규칙들에 의해 객관적인 법에 따라 해결하는 법원들이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미합중국은 세계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하며, 자기의 원래의 건국 원칙들에서, 유일하게 도덕적인 나라이다.

《철학: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는 궁극적인 전도(轉倒)의 단계, 정부는 자기가 좋아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반면에 시민들은 오직 허가에 의해서만 행동할 수 있는 단계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들의 단계, 폭력에 의한 통치의 단계이다.

《자본주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우체국뿐만 아니라, 거리,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도 모두 사적으로 소유되고 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는 국가와 경제의 분리를 옹호한다. 정부는 오직 강압의 사용을 수반하는 쟁점들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치안, 군사,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분쟁들을 해결할 법원들을 의미한다. 그 밖에는 없다.

아인 랜드와의 《플레이보이》 인터뷰

### 자본주의에 관하여

자유로운 마음과 자유 경제는 계(系)들이다. 하나는 다른 것 없이 존

재할 수 없다. 자유 국가의 통화의 상징으로서 달러 표시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징이다.

아인 랜드와의 《플레이보이》 인터뷰

부는 사람의 사유 능력의 산물이다.

《신지식인을 위하여》

가장 작은 필요성에서부터 가장 높은 도덕적 추상 관념에 이르기까지, 바퀴에서부터 마천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소유는 사람의 한 가지 속성—그의 추론하는 마음의 기능—에서 생긴다.

《원천》

자본주의는 부가 약탈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래에 의해서 획득되는 역사상 유일한 체제였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자기의 일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의 행복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는 유일한 체제였다.

《자본주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관계들은 자발적이다.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개인적 판단들, 신념들 그리고 이익들이 명령하는 대로, 자유롭게 협동하거나 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서로를 다루거나 다루지 않을 수 있다.

《자본주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한 사람의 일의 경제적 가치는, 자유 시장에서는, 단일의 원칙에 의해, 즉 보답으로 그와 자기들의 일이나 제품들을 기꺼이 교환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주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경제 권력은 긍정적인 것을 수단으로, 즉 사람들에게 보상, 유인, 지불금,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행사된다. 정치 권력은 부정적인 것을 수단으로, 즉 처벌, 손해, 투옥, 파괴의 위협에 의해 행사된다. 사업가의 도구는 가치들이다. 관료의 도구는 공포다.

《자본주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혼합 경제이다—즉, 자유와 통제들의 혼합인데, 이것은 현재의 지배적인 추세에 의해서, 독재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에서의 행동은 사회가 독재 체제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에 일어난다. 이것이 일어날 때 그리고 일어난다면, 그것은 파업에 들어갈 때일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아니다.

아인 랜드와의 《플레이보이》 인터뷰

*돈에 관하여*

만약 당신이 나에게 미국인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탁월성을 지적해 보

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그들이 돈을 만든다(to make money · 돈을 벌다)라는 구절을 고안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 선택하겠다. 전에 어떤 다른 언어나 국가도 이 단어들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 미국인들은 부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서 당신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돈의 근원이 무엇인지 질문해 본 적이 있는가? 돈은 교환의 도구이고, 이것은 생산되는 재화들과 그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돈은 서로를 다루고 싶은 사람들이 거래로 다루어야 하고 가치의 대가로 가치를 주어야 한다는 원리의 물질적 형태다. 돈은 당신의 제품을 눈물로 요구하는 거지들의 도구도 아니고, 그것을 강압으로 당신에게서 빼앗는 약탈자들의 도구도 아니다. 돈은 오직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가능해진다. 이것이 당신이 악이라고 여기는 것인가?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들의 인격에 대한 단서에 관해 비결을 좀 가르쳐 주겠다. 돈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것을 불명예스럽게 얻었다.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것을 벌었다. 돈이 악이라고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는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필사적으로 도망가라. [돈이 악이라는] 그 문장은 접근하는 약탈자의 나환자의 종(鍾)(leper's bell)이다.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같이 살고 서로를 다룰 수단을 필요로 하는 한—그들이 가진 유일한 대체물은, 만약 그들이 돈을 포기한다면, 총구이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금은 객관적인 가치, 생산된 부의 등가물이었다. 지폐는 존재하지 않는 부에 대한 담보 대출금인데, 그것[부]을 생산하도록 기대되는 사람들을 겨냥한 총에 의해 뒷받침된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 번영에 관하여

미국의 풍요는 공동 선(common good)에 대한 대중의 희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자기들 자신의 사재(私財)의 형성을 추구하는 자유인들의 생산적인 재능에 의해 창출되었다. 그들은 미국의 산업화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람들을 굶기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발명한 모든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모든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 발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더 높은 임금, 그리고 더 값싼 재화를 주었—고 따라서, 그 길의 모든 걸음마다, 전 나라가 전진하고 있었고 이익을 얻고 있었다.

《자본주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역사상 어떤 정치 경제 체제도 자본주의만큼 그렇게 웅변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크게 인류를 이롭게 하지도 않았다.

《자본주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내가 자본주의라고 말할 때, 나는—국가와 교회의 분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똑같은 이유들로, 국가와 경제가 분리된—완전하고, 순수하고, 통제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이기심의 미덕》

경제에 대한 모든 정부 간섭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강압으로 탈취된, 일하지 않고 얻은 편익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주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미학에 관하여*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어떤 피라미드나 궁전도 결코 필적하거나 접근하지 못할 장관(壯觀)의 금자탑이다.

《이기심의 미덕》

예술은 인간에 관한 그리고 존재에 관한 예술가의 근본적인 견해의 투사(投射)이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자기들 자신의 독립적인 철학을 전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시대의 지배적인 철학적 영향들을, 의식적으로나 잠재의식적으로, 흡수한다. 오늘날의 문학의 대부분은 오늘날의 철학의 충실한 반영이다—그리고 그것의 보기이다!

아인 랜드와의 《플레이보이》 인터뷰

## 영웅적 자질에 관하여

당신의 불이 꺼져서, 완전히는 아닌 것, 아직은 아닌 것, 그리고 전혀 아닌 것의 희망 없는 늪에서 대체할 수 없는 불꽃에 의해 불꽃이 되어 튀게 하지 마라. 당신의 영혼 속의 영웅이 당신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고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삶을 위해 외롭게 좌절하여 죽게 하지 마라. 당신이 바라는 세계는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존재한다... 그것은 현실이다... 그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나의 삶을 단일의 절대(absolute)를 가지고, 즉 세계는 나의 가장 높은 가치들의 이미지로 형성될 나의 것이고, 그 투쟁이 아무리 오래거나 어렵더라도, 더 작은 기준에 결코 넘겨주지 않을 나의 것이라는 점을 가지고, 시작했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나의 글쓰기의 동기와 목적은 이상적인 사람의 투사이다. 나의 궁극적인 문학적 목표로서, 그 자체 목적으로서, 도덕적 이상의 묘사다—소설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교훈적인, 지적인, 혹은 철학적인 가치들도 그것에 대한 그저 수단들일 뿐이다... 나의 목적, 첫 원인 그리고 원동력은 하워드 로어크나 존 골트나 헵크 리어든이나 프란시스코 당코니아를—어떤 추가적인 목적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그 자신 목적으로서 묘사하는 것이다.

《낭만주의 선언》

## 랜드에 관한 인용문들

객관주의(Objectivism)에서 오류는 절대적인 지식과 최종적인 진실들(Truths)이 이성을 통해 획득될 수 있고, 그러므로 절대적인 옳고 그른 지식과 절대적인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고와 행동이 있다는 신념이다. 객관주의자들(Objectivists)에게는, 일단 어느 원칙이 이성을 통해 진실인(True) 것으로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논의를 끝이다. 만약 당신이 그 원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의 추론은 결함이 있다. 만약 당신의 추론이 결함이 있으면 그것이 교정될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교정되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결함이 있고 그 집단에 속하지 못한다. 추방은 그러한 개혁되지 않는 이단자들에 대한 마지막 단계이다.

마이클 셔머(Michael Shermer), ‘역사상 가장 있음직하지 않은 컬트(The Unlikeliest Cult in History),’ 《회의론자(Skeptic)》

그녀는 몹시 분석적이고, 의지가 강하며, 아주 원칙에 입각한, 전적으로 독창적인 사상가였고, 가장 높은 가치로서 합리성을 매우 강하게 주장하였다.

앨런 그리스펜(Alan Greenspan), 《혼란의 시대  
(The Age of Turbulence)》

## 14 추가적인 읽을거리

### 아인 랜드를 읽는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랜드의 차후의 소설들, 《원천》이나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를 가지고 시작한다. 《원천》은 그녀의 정치 혹은 경제 원칙들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녀의 도덕 체계에 관한 훌륭한 우화이다. 그것은 이상적인 인간에 관한—그리고 성실, 정직 및 자존심 같이, 그녀가 지지하는 미덕들에 관한—그녀의 개념의 명백한 그림을 제공한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는 더 긴데, 그녀의 세계관에 관한 설명은 더 명시적이고, 등장인물들에 의한 (종종 긴) 연설들에 포함되어 있다. 랜드에 따르면, 존 골트에 의한 연설은, 비록 그것의 대단한 길이로 약간의 독자들이 그것을 건너뛰게 되겠지만, ‘객관주의의 철학이다(is the philosophy of objectivism).’ 그리고 다른 연설들이 랜드의 사교의 다른 부분들을 다루지만, 그것들은 그것을 쉬운 체계적인 방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자가 적어도 약간의 랜드의 논문들과 강연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는데, 이것들은 《신지식인을 위하여》(이것은 그녀의 철학의 긴 진술과 그녀의 소설들로부터의 발췌들을

포함하고 있다)나 《이기심의 미덕》(이기주의의 도덕에 집중한다) 같은 주제 모음집(thematic collections)에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랜드의 사상의 적용에 관해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경제적 자유에 집중한다)이나 (합리적 사고와 그것의 적용들에 관한) 《철학: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가 출발할 유용한 장소들일 것이다. 이 모든 모음집들은 현저하게 비전문적이고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랜드의 논문들과 강연들은 종종 그 당시의 구체적인 쟁점들에 관해, 그리고 논쟁적인 효과를 위해, 씌어졌다. 이 큰 작품량 안에서, 그녀의 논점들은 종종 반복되거나 다른 형태들로 재활용된다. 이 모든 것은 그것들 배후의 일관성 있는 철학 체계를 아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랜드의 소설들의 열광자들은 그것들이 독자들을 그녀의 철학 속으로 끌어들인다고 주장한다. 소설들은 세계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ought to be)*에 관한 고무하는 비전을 제공하고 그녀의 원칙들이 실제 상황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그녀의 철학을 (랜드의 말을 사용하면) ‘구체화한다(concretize)’고, 그들은 말한다.

**양식.** 약간의 독자들은 랜드의 양식의 일부가 충격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철학과 문화는 자기만족적이게 되었고 충격을 주어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어야 한다(should)*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철학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지도적인 인물들을 포함하여, 자기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 혹독한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녀는 숨은 뜻이 있는 용어들을 사용한다(예로, 현대 예술은 ‘오점(smears)’이다,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야만인(savage)’이다. 이 모든 것 아래에는 보통 매우 날카로운 사고가 있지만, 약간의 독자들은 그 모욕과 과장 표현을 마음에 걸리는 것으로 여긴다.

독자에게 이상한 인상을 주는 또 하나의 양식의 문제는 랜드가 끈질기게 ‘man’을 사용하는 점이다. 이것은 오늘날 성차별적인 것 같이 보이고, 그것은 그녀가 쓰고 있었을 때 바로 그랬는데, 그녀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일관성이 있어서, 의도적인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넓은 쟁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man)’은 개인도 혹은 더 넓은 어떤 것도 의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것에는 해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을 알기는 쉬운데, 이런 식이다. ‘사람(man)은 11,000년 전에 동물들을 길들였다, 존은 사람(man)이다, 그러므로 존은 11,000년 전에 동물들을 길들였다.’

## 랜드에 대한 짧은 안내서들

아래의 것들은 유용한 짧은 개론서들이다.

Neera Badhwar, “Objectivism” in *Arguments for Liberty* (2016, edited by Aaron Ross Powell and Grant Babcock)

바드워는 랜드의 철학에 대한 짧은 개론을 제공하고, 그것이 개인의 자유에 기반을 둔 정치 체제의 옹호 논거로서 이바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Neera Badhwar and Roderick Long, “Ayn Rand” in *The Stanford Encyclopaedia of Philosophy* (2010)

랜드의 생애, 형이상학, 지식 이론, 윤리학, 정치 철학, 그리고 미학에 관한 간단한 학리적인 온라인으로, 참고 문헌을 포함하고 있다.

Andrew Bernstein, *Objectivism in One Lesson* (2008)

이 짧은 비판적이지 않은 개론은 독자들이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와 《원천》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랜드의 철학, 특히 그녀의 도덕 체계에 집중한다.

Harry Binswanger, *The Ayn Rand Lexicon* (1998)

랜드의 작품에서의 개개 용어들과 개념들에 관한 A-Z 설명들. 또한 유용한 더 짧은 판이 온라인으로도 있다.

Jeffrey Britting, *Ayn Rand* (2004)

랜드의 일기들과 논문들에 근거해 있고 사진이 든 짧은 전기인데, 특히 그녀의 영향들과 그녀의 단호한 객관주의 사상 촉진에 집중하고 있다.



James Fitz, *Ayn Rand Universe: The Unofficial Guide to Her Life, Books and Philosophy* (2012)

짧고 어조가 중립적인데, 이것은 주로 인터넷 스터디 가이드로서, 매우 짧은 절들로 나누어져 있다. 그것은 대개 전기적이고, 그녀의 사상에 관해서는 자료가 더 적다.

Allan Gotthelf, *On Ayn Rand* (2000)

랜드의 철학 사상에 관해 짧고 잘 구조화되어 있는 요약인데, 그녀의 에세이들과 소설들로부터의 광범위한 인용문들을 가지고 있고, 간단한 전기를 포함하고 있다.

## 랜드의 주요 소설

《우리 살아 있는 자들(We the Living)》 (1936)

가치들이 소멸되었고, 주인공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혁명 후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준(準)자전적 소설.

《안섬(Anthem)》 (1938)

디스토피아의 암흑시대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데, 거기서는 개인성이 억압되었고 기술이 중앙 집중적으로 계획되지만, 주요 등장인물

들은 구제를 발견한다.

### 《원천(The Fountainhead)》 (1943)

자기의 비전을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어느 타협하지 않는 건축가에 관한 이 이야기는 이상적인 인간에 관한 랜드의 견해를 요약한다.

###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Atlas Shrugged)》 (1957)

창조적인 기업가들이 약탈과 착취의 문화에 의해 방해를 당하다가 드디어 그들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디스토피아의 미국을 무대로 한다.

## 랜드의 주요 논픽션

### 《신지식인을 위하여(For the New Intellectual)》 (1961)

표제 에세이(title essay)는 철학의 역사를 이성보다는 대개 신비주의나 강압을 촉진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발명과 성취, 돈, 이윤, 그리고 사회화된 의약을 포함하는 주제들에 관해 그녀의 소설들로부터의 발췌들도 있다.

《이기심의 미덕(The Virtue of Selfishness)》 (1964)

이기주의의 도덕, 이기주의의 본질, 자선의 윤리학, 그리고 기타 주제들에 관한 랜드와 너대니얼 브랜던의 에세이들.

《자본주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Capitalism: The Unknown Ideal)》 (1966)

자본주의의 도덕에 집중하여, 이것은 또한 앨런 그린스펀과 너대니얼 브랜던의 에세이들도 가지고 있다. 주제들은 사업의 박해, 반독점법, 금, 방송 주파수역(域)에서의 재산권들, 학생 반항, 그리고 권리들의 본질과 정부의 본질을 포함한다.

《낭만주의 선언(The Romantic Manifesto)》 (1969)

예술의 철학과 그녀가 낭만주의를 주창하는 이유들에 관한 랜드의 해설.

《신좌파: 반(反)산업 혁명(The New Left: The Anti-Industrial Revolution)》 (1971)

중퇴, 마약, 그리고 혁명으로 상징되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신좌파 운동에 대한 강건한 비판. 랜드는 그것의 반(反)성공 및 반(反)재산 기초들을 강조한다. 진보주의 교육이 아이들의 마음을 구속하

고 왜곡하는 방식에 관한, 인종 차별주의에 관한, 그리고 민족주의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객관주의 인식론 개론(Introduction to Objectivist Epistemology)》  
(1979)

실제로 제목이 암시하는 것보다 범위가 더 제한되어 있는데, 이 논저는 랜드의 개념 형성 이론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약간 전문적인 언어.

## 유고집

《철학: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Philosophy: Who Needs It)》  
(1982)

이 논문들은 철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이 철학이 의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 책은 이 점을 교육, 도덕, 정치 그리고 경제에 관한 에세이들을 가지고 설명한다.

《원시의 복귀(Return of the Primitive)》 (1999)

《신좌파》의 확대판인데,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그리고 환경 보호주의 같은 주제들에 관해 피터 슈워츠(Peter Schwartz)가 쓴 추가

적인 에세이들을 가지고 있다.

## 그녀 자신의 말에서의 랜드

*The Art of Fiction: A Guide for Writers and Readers* (2000), edited  
by Tore Boeckmann

랜드의 강연에서 모은, 작가들을 위한 간결한 조언으로, 자기 자신의 작품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빅토르 위고와 미키 스피레인도 인용한다.

*The Art of Non-Fiction: A Guide for Writers and Readers* (2001),  
edited by Robert Mayhew

철학에 뿌리를 둔 사실적 논문들에 집중하여, 이 강연들은 양식을 전개하는 것과 의식적 및 잠재의식적 글쓰기 심리학에 관해 이야기한다.

*Ayn Rand Answers: The Best of Her Q&A* (2005), edited by Robert  
Mayhew

현대 예술에서부터 인종 차별주의, 페미니즘, 마약들, 자살, 리버테리언들, 그밖에 여러 가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들에 관해 청중이 아인 랜드와 한 토론에 관해 글로 읊긴 기록들.

*Journals of Ayn Rand* (1999), edited by David Harriman

이 일지들(journals)은 러시아에서의 자기의 생활에 관한 랜드의 견해들, 그녀의 초기 경력, 그리고 그녀가 자기의 소설들을 창작한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The Letters of Ayn Rand* (1997), edited by Michael Berliner

대체로 랜드의 편지를 연대순으로 모은 것이지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이사벨 패터슨(Isabel Paterson), 그리고 존 호스퍼스(John Hospers)에게 보낸 그녀의 편지들에 관한 특정 절들도 가지고 있다.

*Objectively Speaking: Ayn Rand Interviewed* (2009), edited by Marlene Podritske and Peter Schwartz

TV와 라디오 쇼로부터의, 그리고 대학 교수들 및 언론인들과의, 인터뷰들을 글로 엮긴 기록들인데, 그녀의 철학보다 정치 쟁점들에 더 집중한다.

*The Playboy Interview* (1964)

그녀의 세계관의 실제적 함의들에 집중하여,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와의) 이 인터뷰는 그녀의 사고에 대한 유용한 간결한 통찰

력을 제공한다.

## 랜드에 관한 책들

Barbara Branden, *The Passion of Ayn Rand* (1998)

너대니얼 브랜던의 아내 바버라가 쓴 랜드의 개성과 복잡한 일들에 관한 지각력 있는 상세한 묘사로, 그녀는 랜드를 거의 20년간 알고 있었다.

Nathaniel Branden, *Judgment Day: My Years with Ayn Rand*

그녀의 이전의 애인이자 동료로부터의 있는 그대로를 보이는 상세한 묘사.

Jennifer Burns, *Goddess of the Market: Ayn Rand and the American Right* (2009)

랜드의 생애와 미국 정치에서의 역할에 관한 비판적인 전기.

Douglas Den Uyl and Douglas Rasmussen (eds.), *The Philosophic Thought of Ayn Rand* (1984)

대개 상대적으로 호의적이거나 중립적인 관점들로부터, 랜드의 체

계의 다양한 부분들을 비판하는, 다양한 철학자들의 학리적인 에세이들의 모음.

Allan Gotthelf and James Lennox (eds.), *Concepts and Their Role in Knowledge* (2013)

과학에서의 지각과 개념 형성에 관한 랜드의 이론들에 관한, 논평들과 응답들을 가진, 학리적인 에세이들.

Allan Gotthelf and James Lennox (eds.), *Metaethics, Egoism, and Virtue* (2010)

랜드의 형이상학과 윤리학에 관한 학리적인 저자들 사이의 논쟁들로, 그것들 사이의 연결을 탐구한다.

Allan Gotthelf and Gregory Salmieri, *A Companion to Ayn Rand* (2015)

랜드의 소설들, 에세이들, 강연들, 그리고 시사 문제에 관한 성찰들을 포함하는 랜드의 작품에 관한 포괄적이고 학문적인 비평들.

Anne Heller, *Ayn Rand and the World She Made* (2009)

독창적인 연구, 새로운 기록 보관소 자료, 그리고 랜드의 동료들과



의 인터뷰들에 근거하여 언론인 앤 헬러가 쓴 통찰력이 있는 전기.

Robert Mayhew, *Essays on Ayn Rand's Atlas Shrugged* (2009);  
*Essays on Ayn Rand's The Fountainhead* (2006); *Essays on Ayn  
Rand's We The Living* (2012); and *Essays on Ayn Rand's Anthem*  
(2005)

랜드의 소설에 관한, 학문적이지만 접근할 수 있는, 호의적인 에세이들로, 그것의 출판과 수락을 포함하고 있다.

Scott McConnell, *100 Voices: An Oral History of Ayn Rand* (2010)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과의 인터뷰들.

Leonard Peikoff, *Objectivism: The Philosophy of Ayn Rand* (1993)

현실과 지식에서부터 윤리학, 정치학, 그리고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랜드의 사상에 관한 체계적이고 호의적인 개설. 철학적인 언어로 씌었다.

Tara Smith, *Viable Values: A Study of Life as the Root and Reward of Morality* (2000)

객관주의 윤리학의 ‘원칙에 입각한 이기주의(principled egoism)’

에 관한 엄밀하고 학리적이지만 명백한 진술, 그리고 대안적인 입장들에 대한 비판.

Tara Smith, *Ayn Rand's Normative Ethics: The Virtuous Egoist*  
(2006)

객관적인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랜드가 필수적이라고 믿는 근본적인 미덕들에 관한 자세한 학리적인 연구.

## IEA에 대해

이 연구소는, 유한 합자, 연구 및 교육 자선 단체(No. CC 235 351)이다. 그것의 사명은 시장들이 경제 및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의 역할을 분석하고 해설함으로써 자유 사회의 근본적인 제도들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IEA는 자신의 사명을 다음을 통해 달성한다.

- 고품질의 출판 프로그램
- 콘퍼런스, 세미나, 강의 그리고 기타 이벤트들
- 중고등 및 대학생들에 대한 봉사 활동
- 매체 도입과 출연의 중개

1955년 고(故) 앤터니 피셔 경에 의해 설립된 IEA는 교육 자선 단체이지, 정치적 조직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정당이나 단체로부터도 독립되어 있고, 어떤 선거나 주민 투표에서도 혹은 어떤 다른 때에도 어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에 영향을 미칠 생각으로 활동들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것의 재원은 출판물의 판매, 콘퍼런스 참가비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로 조달된다.

자신의 메인 시리즈의 출판물들 외에도 IEA는 또한 계간지 《경제 문제 (Economic Affairs)》도 출판한다.

IEA는, 자신의 업무에서, 유명한 국제적 대학 자문 위원회와 명예 연구 위원들의 저명한 패널의 도움을 받는다. 다른 학자들과 함께, 그들은 출판될 만한 IEA 출판물들을 논평하며, 그들의 논평들은 저자들에게 익명으로 전

달된다. 그러므로 모든 IEA 페이퍼들은 지도적인 학술 잡지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엄격한 독립적 심사 과정을 밟는다.

IEA 출판물들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널리 수업에서 사용되고 교재로 채택된다. 그것들은 또한 전 세계에 걸쳐 팔리기도 하고 종종 번역/재간된다.

1974년 이래로 IEA는 70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100개의 비슷한 기관들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창설하는 것을 도왔다. 그것들은 모두 독립적이지만 IEA의 사명을 공유한다.

IEA의 출판물들에서 표현된 견해들은 필자들의 견해들이지, (법인 견해를 가지지 않는) 이 연구소의 견해들이 아니며, 그 관리 이사들이나 대학 자문 위원들이나 중견 직원들의 견해도 아니다.

연구소의 대학 자문 위원들, 명예 연구 위원들, 이사들 그리고 직원들은 다음 페이지에 열거되어 있다(그 다음 페이지 생략—옮긴이 주).

---

연구소는 자기의 출판 프로그램과 기타 업무를 위해 고(故) 로널드 코스(Ronald Coase) 교수의 관대한 회사(喜捨)로부터 온 재정적 지원에 감사드린다.

## 옌킨이 후기

역자는 대학에 들어간 후 이런 저런 학문 분야를 들여다보곤 했다. 원하고 찾으려고 한 것은 사회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그 체계가 더욱 넓은 범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기를 희망하였다. 전통 정치학과 행정학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공공선택론을 전공하게 된 연유가 그러하였다. 다행히 고든 털력을 알고 난 후부터 더 이상 학문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공공선택론에 마음을 둘 수 있게 되었다. 공공선택론에서 체계의 문제를 해결한 셈이었는데, 역자에게 정치학은 곧 공공선택론이었다.

털력의 공공선택론 창안이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인간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과 털력이 그 책을 여러 번 읽었다는 것을 알고서 자연 미제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의 글을 읽게 되었으며, 그 결과 미제스를 좋아하게 되었고, 오스트리아학과 이론을 공부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학과 이론은 대학에서 배운 경제학에 비해 체계와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하여 경제 현상을 오스트리아학과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아인 랜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미제스와 아인 랜드가 친했고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였다. 미제스가 옳은 생각을 가진 사상가니 아인 랜드도 옳은 생각을 가진 사상가라고 생각했다. 입수되어 읽은 그녀의 저작을 토대로, 그녀의 생각이 털력과 미제스,

혹은 공공선택론과 오스트리아학과 이론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았다. 대단히 체계적이어서 체계를 찾는 나의 학문적 정향과도 들어맞았다. 뿐만 아니라, 아인 랜드의 체계는 정치학, 경제학보다 더 넓었다. 아인 랜드의 체계는 정치학과 경제학의 기초를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등의 철학에 두는 거대한 체계였다.

아인 랜드의 학문 체계에 대한 신뢰는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아인 랜드의 설명에서 굳어졌다. 자본주의가 옳다는 것을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다방면으로 밝히지만, 아인 랜드의 설명이 가장 근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본주의가 대중에 봉사하지만, 랜드는 자본주의의 도덕적 정당화 근거를 자본주의가 대중에 봉사한다는 점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그것이 과학적, 객관적 도덕과 양립하는 유일한 체제라는 점에 두었다. 그녀의 객관주의 철학에 근거하는 자본주의 정당화는 가장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정당화였다.

역자가 이 학자나 저 학자를 알고 좋아하게 된 것이 이런 사소한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역자는 학문 연구에서 체계를 찾아내게 된 것이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의 공부를 하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결국 하나의 체계를 가진 PPE(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를 하게 된 셈인데, PPE 각각의 롤 모델로 철학에 아인 랜드, 경제학에 루트비히 폰 미제스, 그리고 정치학에 고든 털력을 세우게 되었다.

이 역서는 Eamonn Butler, *Ayn Rand: An introduction*,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18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아인 랜드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역자는 이런 목적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번역했다.

특히 번역을 통해서 아인 랜드의 사상이 얼마나 광범위한 체계인지를 알리고 싶었다. 또한 이 역서는 아인 랜드를 공부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아인 랜드의 소설들이나 비소설들이 번역되어 있어 그것들을 읽음으로써 아인 랜드의 사상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책만으로는 아인 랜드를 공부하기가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종합적인 그림을 보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 경우 버틀러의 책의 이 번역서를 읽는 것이 그런 문제들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는 1957년에 나왔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아주 잘 그리고 있다. 소설의 모습과 현재의 우리나라의 모습이 너무 닮았다. 현 정부의 잘못된 개입주의 정책들과 사회주의 이념으로 인해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소설에서처럼 창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기업가들이 시달림에 도무지 견디지 못하여 파업에 들어가서, 골트(Galt)의 계곡—그 계곡이 미국이든 동남아든 유럽이든—으로 들어갈까 걱정된다. 아인 랜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소설을 썼지만, 불행하게도 예언이 실현될 수도 있다. 많은 독자들이 버틀러가 쓴 이 책을 읽고 아인 랜드의 가르침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여 그러한 예언의 실현을 막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아인 랜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독자들의 ‘장기적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이다.

랜드의 소설 제목 번역과 관련해서, 언급할 것이 있다. 소설 *Atlas Shrugged*는 《아틀라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는데, 이 책에서는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로 번역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까지 역자가 책들을 번역하면서 시종일관 원문에 충실한 정확

한 번역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shrugged는 자동사로 쓰였고, 사전의 뜻은 ‘(불쾌, 절망, 놀라움, 의혹, 냉소 등의 몸짓으로) (양손바닥을 내 보이면서) 어깨를 으쓱하다’는 뜻이다. 소설에도 어깨를 으쓱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영화에도 프란시스코 당코니아가 “He(아틀라스를 말함) shrugged,”라고 말하면서, 미국인들이 잘 쓰는 그 제스처를 써서, 어깨를 으쓱한다. 물론 이 버틀러 책의 본문에서 보듯, ‘He shrugged it,’처럼 타동사로 쓰면 ‘그것을[지구를] 떨쳐버렸다,’는 뜻이 된다. 마찬가지로 《파운틴헤드》로 번역되어 나와 있는 소설, *The Fountainhead*는 《원천》으로 번역하였다. 반면 *Anthem*의 번역에 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앤섬이라는 말이 실려 있으므로 외래어로 번역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번역 출판과 관련하여 감사할 분들을 언급하고 싶다. 우선, 변함없이 흔쾌히 번역 출판권을 주신 영국의 경제문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동 연구소의 학술·연구 부(副)이사 리처드 웰링스(Richard Wellings) 박사 그리고 계약 실무를 처리해 주신 EPICENTER 이사 애덤 바사(Adam Bartha)에게 감사한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아마 아인 랜드를 국내 독자에게 속히 소개하고 싶은 생각에서 아인 랜드 번역 출판의 진행 상황을 역자에게 틈틈이 문의하셨다. 이것은 역자의 나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오정근 교수, 현진권 원장, 그리고 조윤희 선생님은 골트의 농장에 걸도록 멋진 명판을 선물해 주셨다. 이 기회에 세 분에게 다시 감사를 드린다.

2019년 7월 13일 골트의 농장에서 역자 씀



## 옮긴이에 대해

황수연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정년퇴직하였으며, 한국하이테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과, 경성대학교 재직 중 애리조나 대학교 경제학과(1991년[폴브라이트 교환학자], 1997년), 조지 메이슨 대학교 공공선택연구소(2004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2013년)에서 교환 교수로 연구하였다. 공공선택론,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주의 분야의 책을 다수 번역하였다. 이 역서들에는 에이먼 버틀러가 쓴 《공공선택론 입문》,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입문》,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입문》, 《자유 사회의 기초》,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축약된 국부론》, 《애덤 스미스 입문》과 버틀러가 한 장(章)을 쓴 《초보자를 위한 자유의 길잡이》가 포함되어 있다.